

시로 읽는 성보순례
흐려진 미소여 미소 일천의 바다여
국보 제108호 계유명삼존천불비상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게 가져라
마음을 쫓지 말고 주인이 되라.
「장아함 반니원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15호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청렴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종교

조계종 불교사회硏, 2012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의 근본 역할인 사회적 치유에 대한 인식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13일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지난해에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종교로는 개신교(43.3%)가 꼽혔으며, 가톨릭(24.1%)과 불교(19.1%)가 뒤를 이었다. 가장 믿음이 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27.1%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23.8%, 개신교가 11.2%였다.

하지만, 종교가 제 역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봤다. 종교의 역할인 치유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6.9%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42.7%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도 종교 단체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었다. 34.3%가 시민단체(NGO)를 신뢰하는 단체로 꼽았으며, 종교계가 5.4%, 사법부 5.3%로 뒤를 이었다.

종교 단체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6.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장 불투명한 종교로는 개신교가 43.3%로 가장 높았고, 불교(11.5%)와 가톨릭(11.3%)이 뒤를 이었다.

한국 종교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덕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도덕성'이 32.1%로 가장 높았다. 비슷한 덕목이자 종교의 생명인 청렴성(14.2%), 공정성(13.8%)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는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종교 치유 여부에 42% 부정적
시민 76% "종교 투명치 않다"
영향력은 개신교가 가장 높아
신뢰는 가톨릭… 불교 어중간
대선후보 종교 선택 영향 없어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종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도덕성과 청렴성 등으로 조사된 만큼 종교 본연의 자세를 지켜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대 이슈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질문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대통령 후보자 자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국민들은 도덕성(23.8%)을 가장 높게 꼽았고, 개혁 의지(16.3%), 미래 비전(16.1%)도 높게 고려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후보자의 종교에 대해서는 0.4%만이 고려해 가장 낮은 요소로 나타났다.

대선이나 주요 선거 때마다 이뤄지는 종교단체의 직 · 간접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종교단체의 부정선거 감시활동 참여에 대한 질문에 60.2%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29.9%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종교계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6.3%가 부정적 의견을, 24.2%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무원들의 종교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76.2%가 긍정적 의견을, 학내 종교 교육에 대해서는 63.6%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종교평화법 제정은 50.4%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정치, 사회, 신앙 등의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불교 발전에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대 흐름에 조응한 종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5%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3면



위용 드러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새법당 불도(佛都) 부산에 새로운 전통문화도량이 위용을 드러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11월 11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지원의 대웅전은 최기영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등 시대의 명장들이 대거 참여해 현대 한국불교건축사에 다시 없을 예술품으로 조성됐다. 또한 108평 규모에 외11포, 내13포로 지어진 목조 건축물은 유래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준공법회에는 지역 주요 사찰 스님과 내외빈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5면**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고승 탄신 · 열반 100주년 선양 '활발'

경허 · 성철 · 서옹 스님 사업회들 기념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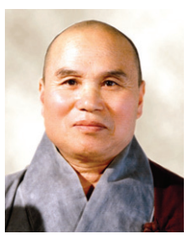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불교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경허(1846~1912), 성철(1912~1993), 서옹(1912~2003) 스님의 입적 ·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한다.

성철 스님이 설립한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9~30일 동국대에서 세계적인 남방불교 연구자 피터 스킬링 등이 참여하는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 주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011년 '퇴옹성철과 현대 한국불교'를 주제로 네 차례 학술포럼을 연 데 이어 성철 스님 사상의 본질인 돈오돈수와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자리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11월 26일 성철 스님이 강설한 '선림보전'을 토대로 '성철 큰스님 강설 선어록 강좌'도 연다.

조계종 5대 종정과 전남 장성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도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23일 원로의원과 각


경허 스님


성철 스님


서옹 스님

교구본사 주지,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람 운동 결사법회'를 열고 서옹 스님이 생전 주창한 '참사람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백양사는 서옹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실천하는 '참사람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본부 내 연구소를 만들어 각종 학술세미나와 법회도 열 예정이다. 11월 15~31일에는 기념 전시회 '참사람의 향기'를 열고 스님이 사용했던 지필묵(紙筆墨), 가사 · 장삼, 원고, 사진 등을 공개한다. 열반 10주년인 2013년에는 서울에서도 전시회가 열린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올해를 기화로 앞으로 서옹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 운동을 더 알차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허 스님의 '주색(酒色) 문제'를 다룬 〈불교평론〉 폐간과 논란으로 연기된 학술세미나가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2월 중으로 그동안 발간된 〈경허집〉을 총괄하는 정본 〈경허집〉을 재발간 할 예정이다. 또 수덕사에서 2013년 4월 국제선수행법회와 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도 도입 때 행정력 고려해달라"

서울 구별 사찰 주지들 연석회의서 비판 '한 목소리'

"새로운 행정제도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일선 사찰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찰 행정력과 포교 현장에 맞는 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

"40년 동안 모은 등록신도가 40만, 2년 동안 모은 조계종 멤버쉽 신도가 19만 명입니다. 새로 시행 중인 신도품계 가입자가 6만 명이라 들었습니다. 사찰 포교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시행은 시정돼야 합니다."(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서울 지역 조계종 사찰 주지 협의회인 '직할교구 상임위원 및 서울구별대표 연석회의'에서 신도품계 제도와 합동 신도품계법회 등 포교원 종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쏟아졌다.

직할교구사무처가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조계사, 국제선센터, 수국사 등 20여개 서울 시내 사찰 구별 대표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합동 신도품계법회와 기존 구별 협의회를 3~4개씩 묶은 권역별 협의회 구성을 모두 부결 시켰다.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대표 스님들은 "제도 도입에 있어 사찰행정력과 현실성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915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교육원 대승불교 세미나
조계종 종회의장 향적 스님 인터뷰
동산반야회 창립 30주년 법회
포교원 UN방문 평화메시지

신행 6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가다

화엄만다라 16·17
각묵 · 대림 · 황경환



마음 · 명상 27
존 카밧진 박사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원)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08호 계유명삼존천불비상



흐려진 미소여 미소 일천의 바다여

나태주

조팝꽃, 산수유 꽃이라 해도 좋았고
더러는 모란이라 함박꽃이라 해도 좋았을 게다
몸철 하루나 이틀 환한 날빛 속에
몸부림 하나로 피었다 지는 목숨을 두고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꿈꾼다 했던가
연꽃 불꽃무늬 모자를 쓰시고
이슬 속에 피어난 연꽃송이 맨발로 밟고 계신 부처님
한 분이 아니라 세분, 다시 보면 일천의 부처님
한결같이 웃음 머금고 바라보아 주시니
세상의 온갖 소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이 잠잠해지고
저승 가는 길 어둔 강물조차 밝았다 할 것인가
깡그리 망가져 보이지 않는 이목구비 흐려진 미소여
흐려졌기 더욱 그립고 서러운 미소 일천의 바다여
여전히 고달픈 오늘의 세상사 어지러운 인간사
불쌍히 여기소서 어여삐, 부디 어여삐 여기소서.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나태주 시인은… 충남 서천 출생.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대숲아래서〉, 〈막동리 소묘〉.

대승불교, 한국불교가 가져야할 정체성

조성택 교수, 15일 교육원 대승불교 세미나서 주장

"오늘의 시대와 한국불교의 현실을 성찰해 조계종 스스로 '선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대승의 정체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이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승불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11월 15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주최한 제2회 대승불교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승불교,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불교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선종은 대승 전통은 멀어지고 배타적 정체성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에 만연한 '깨달음 지상주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면 수행은 일상적 실천과 분리된다"며 "이는 스님보다 재가자에게서 더 심각한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깨닫지 못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초기불교에 대한 맹신에 대해서도 "대승불교의 전통적 관점을 간과한 채 팔리어 경전에 기초한 초기불교를 '부처님의 원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의 가

사회적 실천 추구하는
시민보살을 양성해야
확일화된 법계, 고시
현대에 적절치 않아

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근본불교는 특정 경전으로 환원되거나 고정된 체계로 재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리와 지식 위주의 불교 신행에 대해서는 종교적 감수성이 부재한 교육 체계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신행에서 감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불교의 '교리화'에서 비롯된다"며 "여기에는 근대 유럽의 불교학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한국 불교학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 교수는 ▷문명 비판의 교사 ▷화쟁의 실천 ▷시민 보살의 양성 ▷수행의 일상성과 감성의 복권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과잉 욕망의 시대에 단순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문명 비판의 실천"이라며 "문명 비판의 실천가이자 교사가 될 때 한국불교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세기동안 한국불교는 역사와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명에 대한 자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교적 자각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시민보살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前 교육부장 퇴휴 스님은 '대승불교와 오늘의 승가교육'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행 승가교육에 대한 보안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퇴휴 스님은 종단 기본 교육 일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승가교육은 종도로 하여금 일치된 정체성을 만들도록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승가대학,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기본선원이라는 이질적인 세 기관을 통해 기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교육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가고시와 법계제도에 대해서도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확보될 지는 의문"이라며 "비구계 수지 이후 승려들을 획일적인 승가 고시와 법계 체제 속에 가두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이덕진 창원문성대학 교수의 발제가 이뤄졌으며, 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승원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종호 스님,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회가 바로서야 종단이 바로 서"

인터뷰 – 제15대 조계종중앙종회 하반기 의장 향적 스님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가 바로서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종회 의장으로서 종회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2차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향적 스님은 11월 13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원 간 합의를 통한 의사 진행을 하반기 종회의 운영기조로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다년간의 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종회의원 간의 불화가 종단 분규의 씨앗이 되는 모습을 누차 목격했다"며 "투표도 좋지만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가 종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적 스님은 안정적 운영이외에도 ▷내년 3월 종회총림법 개정 ▷종헌·종법 제개정 ▷총무원 직제와 예산 편성의 변화 ▷단기출가제도 입법화를 하반기 종회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192차 정기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총림 지정은 교계 안팎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고, 방장 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정립 요구도 불거지고 있어서다,

향적 스님은 "동화사 총림 지정은 종정 스님 주석처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불합리한 총림법은 내년 3월 종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총림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헌 종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시대와 종단이 변화한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종헌 종법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종헌 종법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종회서 총림법 개정 추진
총무원 직제·예산 변화 필요
단기출가제도 입법화 고민 중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총무원 직제 개편과 세수 증가도 종회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향적 스님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현재 많은 종무행정이 온라인화 됐지만 총무원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적이다"라고 비판하며 "중첩되는 행정 체계들을 통합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총무원장 스님과 협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가 지난 18년간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퇴보한 것"이라며 "예산이 있어야 포교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계획하지만, 이제는 중앙종무기관 조직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종회를 비롯한 모든 종도가 종단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당시 前 교육부장 소임을 맡았던 만큼 출가자 증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 중이다. 향적 스님은 단기 출가제도 입법화를 제안했다.

스님은 "월정사의 단기 출가제도는 호응도 높을뿐더러 이를 통해 발심 출가하는 수행자들도 상당 수"라며 "다양한 출가 방법을 모색해야하지만 단기 출가제도는 가장 현실적이다.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직지사 주지 후보 흥선 스님 선출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지사 차기 주지 후보에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선출됐다. 직지사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흥선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흥선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교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교구 산림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1974년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직지사 성보박물관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흥선스님은 총무원의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직지사는 이날 산중총회에서 문경 김용사 회주 혜창 스님을 직지사 회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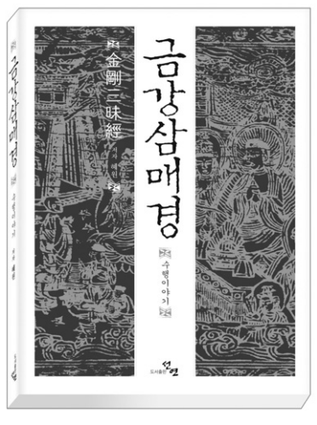


흥선 스님(사진 맨 오른쪽)이 직지사 주지로 당선됐다.

출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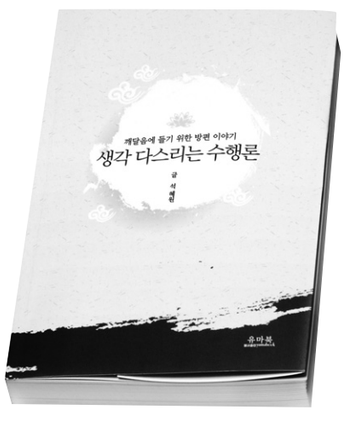
금강삼매경 출판기념법회 불교방송 3층법당 12월 29일 오후 2시 (참석인 책증정)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 1,2,3,4 단계 이수 후 공(空)마저 놓는 수행으로 보살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살들이 중생의 궁금증을 대신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이고, 고뇌가 일어날 때 공(空)에 굴에 두라고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경계에 빠지니, 방편을 제시하고 공(空)에 들게하고 공(空)마저 놓게 한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상구보리는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1단계 : 들숨날숨 집중　　2단계 : 들숨날숨 관찰
3단계 : 화두참구 (견성)　　4단계 : 공(空)에 들어감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모집
• 1기 접수중　• 인원 : 50명　• 저자 혜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이수자. 단, 공(空)에 든 분은 예외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모집
• 2기 접수중　• 저자 혜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 사부대중 (50명)

【 1기 수강 후 하시는 말씀 】
·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 미래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무 아 선 원 031)721-2148~9

◈ 첫 강의 입재
■ 날짜 : 2013년 1월 10일　■ 기간 : 1년
■ 교재 : 금강삼매경,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 강사 : 혜원스님

민추본 미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추고은 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2012 평화통일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부장 지홍 스님은 "공모전은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상생과 공존의 원칙으로 풀어가야한다는 여론을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입상한 미디어 콘텐츠는 향후 평화통일교육, 대중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상자는 △ 최우수상 추고은 (통일이 된다는 건) △우수상 김가연 (하나의 나무) 김성은 (우리에게 통일은 '내일로' 다) △장려상 허종탁 (남북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승주 (평화통일), 박건형 (백두산에 가기 위해선), 최계연 (평화농활), 김영준 (그 아이의 바람) 등이다.

정혜숙 기자

진흥원, 군종교구에 1억원 지원기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13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 스님)에 군 포교 활성화 기금 1억원을 지원했다. 군종교구는 후원금을 격지·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규칠 이사장은 후원금 전달 후 "군승들과 불자 장병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군 불교가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군 불교 진흥을 위해 매년 군종교구를 후원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후원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백양사 승풍실추 전원 공권정지 3년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은 11월 15일 제97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기소된 토진 스님 등에 대해 공권정기 3년 징계를 결정했다.

호법부는 지난 7월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인 토진 스님 등 7명의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청구했으나 당사자들이 소임에 물러나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의 과제는 '도덕성 회복'

'불교사회硏 여론 조사'로 살펴본 불교 현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적 치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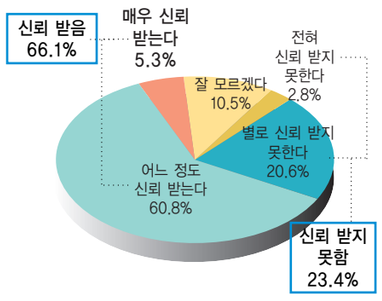
실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민단체(34.3%)를 가장 신뢰했고, 종교 단체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5.4%에 불과했다. 단순 수치로만 5배의 차이다.

이 같이 국민들이 종교단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재정 문제와 도덕성 실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올 한해 불교계는 백양사 승풍 실추 사건으로, 개신교계는 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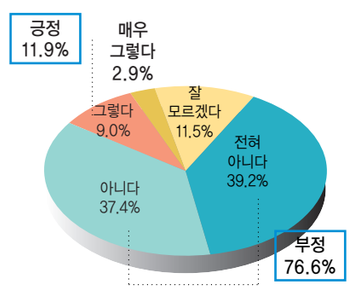
조사에서도 종교 단체의 재정 투명성 부분에 76.6%의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래도 국민들의 66%는 불교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었으나,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지난해에 이어 가톨릭(27.1%)이 1위에 올랐다.

불교와 개신교의 내홍에 가장 수혜자는 가톨릭이다. 실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43.3%로 여전히 1위를 수성했지만, 전년보다 10%이상이 떨어졌다. 불교 역시 지난해 23.7%에서 19.1%로 하락했고, 가톨릭만 17.6%에서 24.1%로 상승해 불교를 제쳤다.

그렇다면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들이 한국 종교계에 주문하는 덕목은 바로 도덕성(32.1%)이었다. 종교의 생명인 청렴성(14.2%), 공정성(13.8%)도 국민들의 요구들 중 하나다.



한국불교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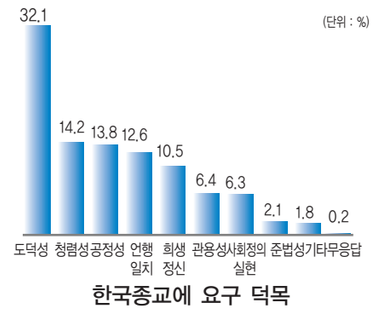


종교단체 재정 투명성

국민 60% 불교 신뢰하나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
재정 투명도는 '바닥 수준'
20~30대 불교에 희망적
하위층 포교에 신경써야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0~30대와 하위층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사회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해 20대와 30대는 불교(20.9, 26.7%)를 꼽았고, 월평균 수입이 199만원 이하인 하위층에서도 불교(24.3%)를 가장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는 20대가 불교(26%)를 가장 신뢰했고,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중·하산계층들도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가톨릭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줄여갔지만, 최근 들어 불교계가 전향적 행보를 보이는 데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 멘토' 법륜, 혜민 스님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힐링 트렌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종교에 요구 덕목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교와 개신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는 세대별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톨릭은 전 세대에 걸쳐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며 "이는 불교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성과 청렴성 확립이 시급하다"며 "또한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위 계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UN과 협력 통해 포교 영역 확장"

포교원, UN방문해 평화 메시지 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뉴욕 UN본부에 UN평화사절단(단장 수불)을 파견해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전했다.

UN평화사절단은 미국 워싱턴의 엘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참배를 시작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과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뉴욕 불광선원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포교원의 UN평화사절단 방문은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종교계 처음으로 추모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해외포교 현황을 둘러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UN본부 방문에서는 '천년의 문화·천년의 평화'를 주제로 UN주재 한국대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청공연이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UN과 협력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해나가겠다"며 "교민 포교를 비롯해 국내외국인 포교 등 포교활성화에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왼쪽 두 번째)과 수불 스님(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UN평화사절단 대표들은 UN뉴욕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가운데)을 만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불교신문 제공

재가교육 외길 30년, 새 시대 맞다

동산반야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1982년 창립된 이래 재가불자 교육과 신행의 대표로 활동해 온 동산반야회가 창립30주년을 맞았다.

재가불교운동의 일환으로 고(故) 김재일 법사가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설립한 동산반야회는 재가불자 기초교리강좌를 비롯해 현대식 교육을 교계 최초로 실시해 신행문화를 주도해왔다. 동산반야회는 1992년 불교 최초의 2년 교육과정인 '동산불교대학', 3년 과정의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동산한글불교의식교육원' 등 세분화된 교육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불교계 교육환경이 다양, 전문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동산불교대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존 교리교육과 차별된 불교미술, 불교한문, 다도, 불교장례문화, 사찰음식문화 강좌 등을 개설했다. 이런 강좌들은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또 1998년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를 결성, 염불결사대회를 매년 열며 신행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는 창립 당시의 교육과 신행의 역할에서 더나가 공익단체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법회에는 동산반야회 법주 무진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금강선원 이사장 활안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안동일 명예이사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진장 스님은 이날 "지난 30년간의 수많은 불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동산반야회가 자리할 수 있었다"며 "불자 모두가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상우 이사장을 비롯한 동산반야회 임원진들은 30년 간 동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안동일 명예이사장 등 공로자들

최초 2년제 불교대학 설립
전문교육· 신행 이끌어

을 치하하고 공익단체로 새로운 시대 개막을 다짐했다.

안동일 명예이사장에게 자랑스런동산인상 등이 수여됐으며 전임 임원진에는 감사패 등도 전달됐다.

이상우 이사장은 법회에서 "교육과 신행활동 선도하는 입장에서 공익단체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동산반야회의 발전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 이어 공연장에서는 기념공연과 동산가족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산반야회 30주년 기념식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새로운 불자신행 문화 창달을 서원했다.

종책 질의·의원 출석률 긍정적

NGO모니터단, 조계종 종회 모니터 결과

교계 NGO 활동가로 구성된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은 지난 11월1~7일 열린 제192회 중앙정회 정기회 모니터링 결과를 11월14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평가서에서 "이번 회기에서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무기관의 사업에 대해 미리 연구하거나 조사해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며 "지난 191회 평균 출석률이 66%인 것에 비해 이번 회기에는 평균 75%가 참석하는 등 그나마 고무적인 변화가 발견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발언 도중 발원권 없이 끼어들거나 큰 소리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인건비나 사업비를 단순비교하며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니터단이 제시한 총무원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과 포교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종단의 예결산과 사찰예결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신중일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일 주 문



신흥사 관음보살 점안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1월 14일 신흥사 통일대불 내원법당에서 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철 스님 선어록 강좌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1월 26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성철 큰스님 강설 선어록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02)735-2428



나눔김장 불사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12월 2일 송광사 일대에서 나눔김장 불사를 진행한다.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18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11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한다. 수상자로 일본산 묘법사가 선정됐다.



이웃종교인과 강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11월 21일 동대문구청 초청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강연을 펼친다.



불교의식음악연구 출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은 12월 1일 신촌 봉원사에서 '불교의식음악 연구, 악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만해공원 조성 일일 찻집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11월 22~24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심우장 만해공원 조성위한 일일찻집을 연다. (02)722-1044

"에밀레종 복원도 자신 있습니다"

대만 최대 범종 제작한 원광식 성종사 사장



"어떤 종이라도 소리나 문양 등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어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에밀레종 복원도 자신있습니다."

범종 제작업체인 진천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주조했다. 대만 최대 범종이다. 불광산사는 대만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범종을 제작하기로 하고 대만을 비롯해 한·중·일 등 세계 각국 범종 제작업체의 기술력을 분석해 성종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2대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광식 주철장(69)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그는 국내 유일의 범종 인간문화재(제112호)다. 평생을 범종 제작에 바쳐온 그는 조선시대 중엽 맥이 끊겼던 전통 범종 제조기법을 되살려냈다. 성종사는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최고의 범종 제작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5개월의 작업기간을 거쳐 제작된 이 종은 높이 4.32m, 지름 2.55m, 중량 25t의 초대형 범종으로 성종사 특허 공법인 밀랍주조공법(특허명 범종의 로스트왁스 주조 방법)으로 제작했다.

대만 사찰 범종이지만 한국 범종인 봉선사 범종의 형태를 취했고 표면에는 한·중·일 3국 범종의 양식을 혼합한 독특한 문양과 금강경 5200여 자를 새겼다.

원광식 주철장은 "일본, 대만,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제치고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범종 국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주철장은 평생을 종만드는데 바쳤다. 1973년 8촌 형이던 창업자 원국진 전 사장이 작고하자 22세 때부터 기술을 전수받던 원 사장이 성종사를 인수했다. 쇳물이 튀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종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수덕사 범종 등 전국 사찰의 크고 작은 범종 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종을 만들면 만들수록 조상들의 지혜에 놀랄 뿐입니다. 종의 문양, 설계, 합금법 등이 잘 어우러져야 에밀레종 같은 수작의 범종을 만들 수 있어요. 조상의 지혜에 놀랄 따름이죠."

원 주철장의 이런 원력은 아들이 이어가고 있다. 14년째 부친을 도우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원천수 이사(43)는 이번 수출에 대해 "전통 범종 제조기술을 잇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종 제작사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창회 24년

세계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한 승려대회 봉행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의륜. 회장 청운)는 창회 24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한 승려대회를 11월 9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승려대회에는 종단총연합회 회원종단 150여 대표를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상임부회장 용주 스님의 개회선언, 삼귀의례와 찬불가로 시작됐다. 행사에서는 회장인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청운 스님의 인사말과 총재 겸 이사장인 의륜 스님 인사말에 이어 국제승가법왕청 보광 스님의 법어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동국대에 1억 기부

불자 장학기금으로 전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월 16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으로부터 제2건학기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금은 불자청년지도자육성장학기금과 교지매입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과 사회국장 덕일 스님, 이경자 신도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진화 스님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 부끄러울 따름이다"며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학교가 주요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것처럼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교육, 연구, 시설 인프라 개선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봉은사 보내주신 큰 보시가 학교에 많은 힘이 되었다"며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화답했다.



한편, 봉은사는 2010년과 지난해 불자청년지도자육성장학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교지매입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 총 2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노덕현 기자**

빼빼로 대신 우리 쌀 가래떡을

조계사, 10일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 운동



조계사는 11월 10일 지난해에 이어 우리 쌀 소비 촉진운동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농촌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셔서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조계사가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 농촌의 특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어린이지도자聯, 새 회장에 성행 스님



서울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1월 24~25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리는 제5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새 회장으로 취임한다.

1994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1기로 졸업한 성행 스님은 1995년 반야사 주지로 성림어린이집과 룸비니어린이집 운영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후원모임 카루나의 모임 조직한 바 있다. 또 독거어르신을 지원하는 복지단체 니르바나 마을 창립하고 재소자 교정교화에도 나섰다.

2005년부터 동련 상임이사로, 또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연꽃처럼 곱고 향기로운 어린이법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교육방법과 예방책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미천산방에서 열강하던 때의 모습

목정배 교수의 병상일기

삶을 귀히 믿고 하루 하루 사세요

10월 9일 | 한로가 넘어가는 소리
서늘한 물보라 일구며
야윈 가슴가로
빗겨 가고 있는 순간.
깊은 숨 한 모금
가을 하늘 밖으로
내뿜고 살련다!

구름 밖 저 넘어
별천지가 있는지
자하빛 안개가
너울춤을 추고 있고녀,
나도 덩실덩실 덩두껑
어깨춤을 추려네.
석류가 노을빛 닮아
가을걷이하는 농부들
모두가 기뻐하는 날
니르바나 춤추면
불국토로 되누나.

10월 11일 | Believe란 무슨 뜻인가. 삶을 존재케 하는 말이다. 즉 live를 being하는 것이리. 생존과 동의어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랑=믿음이니 모든 사람은 삶을 귀히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리라.

10월 12일 | 새벽녘 네 시에 간호사가 점검. 나도 함께 깨어 화장실 출입. 다섯 시 넘어 일층 영상실로 내려가 가슴과 배를 사진 찍고, 또 관장하고 피 뽑아 가고, 주사 맞고 많이 지치고 있네. 오후엔 또 MR사진, 한 밤엔 금식 참 지루하게 열흘이 훌쩍 지나가네.

인생이란 생로병사 생로에서 바로 사로 직진하면 좋으련만. 어이하여 병에서 그 온갖 괴로움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그 병이 본래 없다면, 열 받지 않고 사는 열반바라밀이다.

10월 13일 |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네. 트위터에 사고가 발생하여 딸이 와서, 몇 시간 매만져 고쳤네. 고맙다. 그래 또 시작하려고 한다.

허리 아픔이 말할 수 없다. 끊어질듯 통증이 심하다. 그래도 참아 이겨야 한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님들께 드리는 말씀…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공고문

존경하는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여러분!

저희는 종단에서 오랫동안 수행정진을 해왔으며, 지금은 종단의 임원으로서 종단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단의 책임자인신 총무원장께서 종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위기에 처한 종단을 바로 세우고 다시한번 종풍을 더 날리고자 저희들이 종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히 또 다시 장군죽비를 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총무원장의 비위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종단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만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참회해야 할 총무원장께서 적반하장의 형태를 지속하고 있어 파사현정의 자세로 다음과 같이 총무원장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종단개혁에 종도 여러분의 참여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금의 김윤철(향운스님)이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와 종권을 장악한 후의 비행사실들입니다.

■ 김윤철 (향운스님)의 종권을 장악을 위한 일련의 행위…

1. 종단의 주요 의결기구의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여 종회를 외곡 하였고,

2.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진 것처럼 형식만 갖추어 법원을 속여 각종 인허가를 받았으며

3. 원효종의 종헌·종법(입종 30년 경과되어야 종정추대 가능)을 어기고 종도들을 속여 자격 없는 고·장영국(혜봉, 1994년 수계)을 종정으로 추대하여 종권을 장악한 후 각종 비리행위를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한 김윤철(향운스님)의 종권 장악 후 비행은 현대불교신문 제 886호(2012년 5월 2일 15면)에 밝힌 바와 같이

1. 창건주의 뜻과 달리 주지를 임명한 고왕사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 재판계류중이며 추진금 1억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받았고

2. 원주 소림사가 원효종으로 귀속 되자마자 약 24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건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수사하여 부산고검에 계류 중에 있으며

3. 울산시 소재 남산사의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임명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종도들로 부터 고소당하여 현재 울산지검, 울주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고

4. 2009년 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피고소인 자격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5.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재판 계류중에 있고 대법원에서 종회의원 무효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6. 현대불교신문 제914호(2012년 11월 14일, 2면)에 게재된 내용 중에는 삭발한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모 스님을 원로위원으로 공고하고 현 종회위원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정족수가 25명인데 본인 인척을 포함하여 6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을 종회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종회위원은 정족수가 최소한 과반수인 13명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종단 규정원에서 전체 종회위원 해임통보 조치하였음)

위 사실 이외에도 종정스님의 감사 지시로 규정원과 감사원의 조사결과 위 비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아울러 종정스님의 종령으로 총무원장 김윤철(향운스님)의 감사지시를 내린바, 이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규정원장 직무대리 임우섭(성암스님), 감사원장 김두환(일륜스님)을 직위해임 또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체탈공고를 자행하는 등 종정스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종헌·종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종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독단적인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규정원에서 2009년 불법으로 선출한 종회위원을 해임 통보하고 김윤철(향운)에게 총무원장직인과 일체 문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긴급으로 김대관(벽송)종정스님 명령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현재 망월사에서 종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에서는 김윤철(향운)스님을 탄핵하였고 종정스님께서 종령으로 김윤철(향운)스님을 총무원장 직위를 해임하라는 명령을 선포하였고 즉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윤철(향운스님)의 수 많은 비리와 부정이 있지만 지면으로는 다 나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만 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모습으로 원효종의 종지에 부합하는 수행의 본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향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종단 재산과 종도의 권리를 위하여 강력히 대처해 갈 것을 종도 여러분들께 천명코자합니다.

우리 원효종 원로대덕스님 및 전 종도 스님을 포함한 종도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한 우리 종단의 종지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단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위 원 장 : 종정 김대관(벽송)
원로원장 : 허창해
부 의 장 : 도천
의 장 : 혜담
원 로 : 창일 · 원각
임시총무원장 : 김순석(휴원 용일)
부 원 장 : 명운
감사원장 : 일륜 규정원장 대행 : 성암

■ **대한불교원효종 교구**
강원교구원장 : 청암 경남교구원장 : 법승
경북교구원장 : 성죽 경북남교구원장 : 심상
광주교구원장 : 원각 전남교구원장 : 마명
전북교구원장 : 경오 충북교구원장 : 석암

■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 (순서 무순)
성원, 해공, 대성, 지해, 원오, 정행, 명관, 보각, 우담, 영육, 무송, 도우, 정천, 고산, 정암, 성원, 삼장, 정광, 하산, 찬일, 태성, 혜공.

불기 2556년 11월 15일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새로운 전통문화도량 佛都 부산에 '우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11일 새법당 준공… 1만 대중 참석


11월 11일 준공법회를 통해 위용을 드러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해풍을 이기기 위해 목조로 지어진 부산지원의 대웅전은 시대의 명장들이 참여한 예술품이기도 하다.

한국 최고의 장인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새로운 전통문화도량이, 불도(佛都) 부산에 우뚝 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는 11월 11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열고 부산 불교를 이끌 진리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경학원장 무비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수불,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 등 사부대중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선불교 미래 밝히는 도량되길"

故 대행 스님은 생전 영상 법문에서 "오늘 이 불사도 종국에 생각하면 내 집이다. 내 집을 짓는 데 무슨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하겠는가"라며 "불사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모든 것은 공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무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법당은 대행 스님이 가르쳤던 '참생명 자리'다. 이를 바로 살필 수 있어야 바로 '한마음선원'에 온 것"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최고의 법당도 의미가 없다. 부처님 인연은 소중하다.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설했다.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의 원력이 깃든 부산지원 새법당 준공 불사에 참여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컸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부산 지원장 혜도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한마음 자리에서 자성불의 진리를 깨우치는 도량으로 바로서길 바란다"며 "안으로 깊어지고 깊어져 부처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지역 스님과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은 "한국불교, 부산불교는 시대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5주년을 맞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세세생생 불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은 "거룩한 성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 한 수행자와 신행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오늘 세워진 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수행자와 신행자로 장엄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와 함께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석조 부산시의회의장은 "현대 불교 건축사의 걸작으로 평가 받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한국 선불교의 내일 밝히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축전을 전하기도 했다.

현대 불교 건축사에 남을 걸작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이번 불사는 11년을 이어온 대작이다. 백두대간 끝자리에 자리한 봉래산을 등지고 자리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125㎡(약 2,706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1,469㎡(약 445평), 연면적 4,907㎡(약 1,478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전각 구성은 108평의 대웅전과 그 앞에 좌우로 요사채(심해당)와 선실(연묵당), 보향루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목조로 지어졌다.

이번 불사에서 가장 눈을 띄는 것은 이 시대의 명장들이 참여한 대웅전이다. 해풍을 견디기 위해 목조 건축을 결정한 만큼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명인들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대행 스님과의 인연이 깊은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도편수로

108평에 외11포 내13포, 국내 유일
시대의 명장 7명 원력 다해
한국 16국사 · 16선사 목탱화에
요사채, 선당, 보향루 등 11년 불사
해수 관음상 · 도량탑 남은 과제

"대행 스님 가르침 되새겨
내면 불사 이어 갈 것" 발원

합류했으며, 주불 석가모니불은 목아 박찬수 조각장이, 후불 목탱화는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 스님이 맡았다.

기와는 중요문화재인 이근복 번와장이, 옻칠은 정수화 칠장이 단청은 김성규 단청장이, 외부 벽화는 이연욱 화백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명장들이 이번 불사에 참여해 대웅전 법당을 자신의 작품으로 장엄한 것이다.

부산지원 대웅전은 조선시대 다포기법으로 전면 7칸, 측면 4칸의 외11포, 내13포 오량 내외 5포 5출목 팔작집 목조건축물이다. 외11포 내13포의 다포양식에다 4개의 박공을 얹은 형태를 목조로 올리고, 그 지붕 위에 5t이나 되는 우주탑(원탑)을 떠 받치는 형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건물로 꼽힌다.

고주, 추녀 등 일부에 쓰인 북양육송을 제외하면 모두 경북과 강원도의 육송만 사용했다. 건물을 지으며 12,230여 개의 결구가 사용 · 부착됐으나 어디 하나 절단해 못을 사용한 것 없이 전통 기법 그대로 시공됐다.

이에 대해 이상문 부편수는 "108평에 외11포, 내 13포 규모의 건물을 지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작업에 들어가니 주심포부터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다"며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항상 대행 스님의 원력과 보살핌이라고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목아 박찬수 명장이 조성한 주불 석가모니불은 개금 방식이 특징이다. 국내 유일 칠장인 정수화 명장이 개금한 석가모니불은 9번 이상 옻칠을 하고 개금해 불에 굽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조성된 불상의 개금은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마음선원 특유의 목탱화에는 일반적인 나한과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16국사와 16선사가 자리하고 있다. 천정에는 33조사가, 외벽에는 심우도, 부처님 본생담 이외에도 대행 스님의 부산법회 장면, 산중 수행 장면, 치악산 견성암 등 대행 스님의 포교 원력과 수행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벽화가 조성됐다.

이근복 번와장이 작업한 기와도 대웅전 불사를 여법하게 한 요인이다. 외 11포, 내 13포까지 올라간 처마로 대웅전 지붕이 높아져 와공들의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총 41,500장의 대와(大瓦)를 통해 불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같이 대행 스님의 생전에 다져진 원력과 켜켜히 쌓인 인연 공덕은 부산 지원 대웅전 불사를 통해 여법히 회향한 것이다.

아직 계속되는 불사의 현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불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법당으로 오르는 좌우 계단에 8대 보살을 조각해 넣는 일과 법당 마당에 도량탑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해수관음보살상 봉안과 연못을 만드는 일 등의 도량 정비가 남았다. 이 모든 게 대행 스님이 생전에 계획해 놓은 유지들이다.

이와 함께 1879년 개원 당시 기존 법당은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신도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부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참나를 찾아가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어린이 법회, 부모법회와 지자체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도량불사를 진행해 왔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키워가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불사에 임해왔다"며 "법당 불사를 회향했지만 앞으로 더욱 정진해 내면의 불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 부산=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대웅전 처마 모습. 대웅전 지붕은 외11, 내13포 다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4만여 개의 대와가 사용됐다.


준공법회에는 지역 주요 사찰 주지 스님과 내외빈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행 스님의 생전 영상법문도 상영됐다. 스님은 "불사 마저도 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전 중앙불단의 모습. 문화재 기능 보유자 청원 스님이 조성했다. 중앙불단은 나한과 10대 제자 이외에도 16국사, 16선사가 함께 조성된 게 특징이다.


이번 불사에 참여한 명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역 소외계층 겨울 나기를 위한 성금도 전달됐다.


부산지원은 11년 간의 불사를 통해 현재의 여법한 사격을 완성했다.

"11년 불사, 제게는 수행이었습니다"

인터뷰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2001년 가진 기공식 이후 11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사진〉은 만감이 교차했다. 대행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이어나간 불사가 이제야 회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긴 불사에 지치고 힘들었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마음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이었다고 스님은 술회했다.

"대행 스님께서 세우신 원력이었고, 저는 이를 잘 받들어 이어가야 할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11년 불사를 하면서 왜 부침이 없었겠습니까? 부침이 올 때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한 생각 안에 극락도 지옥도 있습니다. 한 순간 생각을 돌이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11년의 불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번 불사는 저에게는 마음 수행이었습니다."

대행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는 불사였지만,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최기영 대목장, 목아 박찬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간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으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에 대해 혜도 스님은 "자신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겸양의 말을 이어갔다.

큰 원력 따르니 불사 이뤄져
"마지막까지 마음 정진할 것"

"스님의 원력과 인연을 따르니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해풍이 심해 목조 건물로 만들고자 했더니 최기영 대목장을 만났고, 스님의 원력으로 목아 박찬수 선생이 불상을 제작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어갈 개금 불사를 생각하니 정수화 칠장을 만났습니다. 11년 대작 불사를 이끌어 온 것은 제가 아니라 스님의 크신 원력과 인연의 힘입니다."

향후, 스님은 해수관음상 봉안과 도량탑과 연못 조성 등 마무리 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다.

"진리를 갈구하는 모든 생명들이 이 도량에 들어 일체 무명을 거두고 밝음에 드는 그날까지 안주하지 않고 마음의 불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내 마지막 원력을 담아냈습니다"

인터뷰 – 불사 총감독 진행한 최기영 대목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새법당 불사의 하이라이트는 대웅전이다. 외11포, 내13포에 108평의 웅장한 대웅전의 자태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불사를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사진〉이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최 대목장은 당시 대행 스님을 만나 인연을 키웠다. 나무 향기가 좋아 목수가 된 후에도 스승 김덕기 선생을 따라 사찰 불사를 하면서도 대행 스님과의 인연의 끈은 이어졌다.

"대행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토굴이 치악산 상원사 아래에 있었는데 상원사 복원을 저와 스승이 했습니다. 그때도 종종 찾아뵙곤 했죠. 환속해 목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대행 스님께서 고생 많이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스님의 은혜는 제가 집 한 채 짓는 것으로는 모자릅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불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도 대행 스님과의 인연 공덕을 이제야 세상에 회향할 수 있게 됐다고 최 대목장은 술회했다.

"제가 대행 스님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의 불사를 의뢰받았을 때,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장 혜도 스님에게도 '이 불사는 다른 누구에게도 못 준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행 스님과의 인연 '각별'
가르침 생각하며 11년 불사

장장 11년의 대작불사. 한국 사찰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량을 만든 최 대목장에게 이번 불사는 42년 목수 생활의 모든 실력을 담아낸 역작이다. 그래서 이번 불사 회향이 최 대목장에게는 뿌듯함과 아쉬움으로 함께 다가온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은 제 목수 인생의 모든 원력을 담아낸 역작입니다. 좀 더 크고 좋은 나무로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고 싶었는 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불사가 완성되는 오늘은 제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대행 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이 천년을 이어가는 도량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중일 기자

호국부터 통일까지 민족사 담긴 도량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한다

1) 역사, 전통으로서의 전등사

강화도는 삼국시대부터 서해 일대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에 자리한 전등사도 그 유구한 역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근대화를 겪으면서 전등사는 관광사찰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졌다. 최근 전등사는 이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불사를 진행 중이다. 변화하는 전등사의 면모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전등사 대웅보전에 있는 나부상. 선조들의 해학이 담겨있다.



강화 전등사 전경.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현재의 면모를 가꿨다. 최근에는 무설전 불사와 금강경 독송 기도 법회를 통해 신행 사찰로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일명 정족산 사고인 장사각은 일제 강점기에 반출되기 전까지 군사가 주둔하며 지켰던 중요한 사고였다. 그만큼 조선시대 전등사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초다.

흔히 고찰로 오르는 길에는 오욕의 세월을 그대로 맞이했을 고목들이 길 옆으로 들어서 있다. 그래서인지 항상 고찰로 가는 길은 낯설지가 않다. 언젠가 한 번은 와봤을 법한 기시감이 고찰로 가는 길에는 항상 존재한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주지 범우)로 가는 길에도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다. 정족산 삼랑성 남문에서 시작한 숲길을 걸어 오르면 가슴부터 시원해지는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 숲길을 안에는 천년고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다.

전등사의 역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인 서기 381년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를 창건함으로서 시작한다. 그 뒤 고려 고종 46년(1259)에 삼랑성에 가궐을 짓게 했으며, 원종 5년(1264)에는 대불정오성도량을 넉 달동안 열었다. 원종 7년(1266)에는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진행되기 했다.

본래는 진종사였던 사찰명이 '전등사'로 변한 것은 고려 충렬왕비 정화궁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화궁주가 옥등(玉燈)을 불전에 시주해 사찰명이 바뀐 것으로 전해지나 주지 범우 스님이 견해는 조금 다르다.

정화궁주의 명을 받들어 인기 스님이 전한 송나라 대장경과 〈경덕전등록〉때문이라는 것이다.

범우 스님은 "단순히 옥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명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인기 스님이 전한 〈경덕전등록〉을 포함한 대장경을 보장하게 된 사찰이라는 뜻에서 전등사로 이름이 굳어진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해사 임승익이 지은 〈대조루중건모연문〉에서도

부처님 법 전하는 사찰이자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성지
근대에는 개성군 일대 총괄
최근 불사 통해 변화 준비 중

'육조의 의발을 상수하는 뜻에서 전등사라고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랑성 안에 위치한 전등사는 대몽항쟁 등 역사적으로도 호국불교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몽고와의 전투를 위해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등사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지켰다. 이렇게 수습된 민심은 해인사에 보장된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 원력이 됐다.

여러 차례 국난을 겪으면서 전등사가 나라와 왕실의 안정을 기원하는 호국성지이며 왕실의 종찰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였다. 조선 현종 원년(1660)에는 왕실의 세보를 비롯한 실록을 강화로 이전해서 보관하기 위해 전등사 경내에 선원각과 장사각을 짓는다. 이후 숙종조에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들을 전부 정족산 사고로 옮기게 된다.

정족산 사고는 중요성은 건물에서도 나타난다. 여타의 사고들과 다르게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취향각'이 있었으며, 안에는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도 상주했었다.

하지만 1886년 10월 14일 일어난 병인양요(丙寅洋擾)는 전등사에 쓰라린 상처를 남긴다. 프랑스 선교사 학살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한불통상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강화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는 얼마 안 가 조선의 강경한 방어에 부딪친다.

이들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전등사 일대를 수색하고 사찰의 소중한 기물들을 유린한다.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까지 이어지며 강화의 불교유적들은 거의 소실된다.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까지 전등사는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함께 했다. 1911년 사찰령 반포에 의해 교구본사가 된 전등사는 강화, 개성 등 여섯 개 군에 소재하는 34개 사찰을 본사로 승격하게 된다. 1934년에는 전문 강원이 설립됐고, 본말사지도 편찬했다. 하지만 6.25 동란 이후 남북이 갈리면서 본사는 남쪽에, 말사들은 북쪽으로 나눠지는 아픔을 겪었다.

수많은 외침과 동란을 겪으며 민족의 고난과 궤를 함께 해온 전등사를 바라보는 역사적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지리적으로는 서해안의 관문 사찰이면서, 호국 성지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근현대 이후에는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국 유일의 사찰이기 때문이다.

주지 범우 스님은 "전등사는 유구한 시간동안 자신의 역할을 하며 지역과 함께 호흡해왔다"며 "인천·강화 지역 사찰 중 본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전등사가 유일한 만큼 서해안 관문 사찰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서부 수도권을 책임지는 신행 사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등사가 각종 불사와 법회를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경, 장단, 개풍 등 말사가 있는 분단 사찰은 전등사가 유일하다"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생각하는 사찰로서의 면모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간화선 세계화 기치 올리겠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11일 개원2주년 기념법회 봉행

개원 2주년을 맞은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11월 11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前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총무원 재무부장 일감,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 증명법사로 나선 보선스님은 법어에서 "불법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라"며 "자기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하고 천천히 수행하라"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국제선센터는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평가하고 "세계 속의 한국불교가 선양되는 중심 허브를 역할을 하기 위해 모든 사부대중이 깊은 관심과 동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법정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국제선센터를 사랑하는 많은 대중들의 공의를 모아 설립취지에 맞게 노력하겠다"며 "한국불교 세계화와 포교 거점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지난 10월 13일 양천공원에서 진행한 '2012 가을한마당'의 수익금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 500만원과 국수 1500인분을 양천구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11월 11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개관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 여성이 전용 교육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갖는다. 또한 창립12주년 기념식도 함께 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11월 2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과 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어 4시 30분 조계사 불교대학 인근에 마련된 전용 교육관에서 남상민 원장(한국예절문화원)의 자수예술작품전인 '자수팔상전 석가세존의 생애' 전시회를 개막한다.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은 12월 임기를 마치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장에 이어 7대 신임원장으로 정경연 산업미술대학원장을 선출했다. 정경연 신임 불교여성개발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도 겸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해요

동행, 28일 환경 세미나 개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재단이 환경토크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한다.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동행에서 새롭게 펼치는 야심찬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후원단체를 결성해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캠페인으로 넓혀갈 생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발표 주제는 '지구 온난화, 지속가능한 대안적 삶을 꿈꾼다(환경재단 대표 최열)'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살기(에코붓다 대표 유정길)' 등이다.

이밖에도 동행은 올 하반기 선재의 선물 네 번째 이야기 '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을 12월 1~31일까지 개최한다. 또한 12월 5일 후원의 밤을 개최 자비나눔 기금마련행사를 펼치며 이는 불교방송에서 특별 생방송 된다.

정혜숙 기자

불교의식 학인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7기생)

팔공불교대학에서 초심자라도 불교의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7시 ~ 10시)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접 수 : 2012년 11월 25일(일요일)까지

❶ 교 육 과 정 (내용)
도량석, 종송, 향수해재,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각단불공

❷ 재의 시식편
천도재, 시달림, 방생의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범음범패와 의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❸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팔공 IC 5분거리)
☎ 053)986-1080, 010-9361-5566

팔 공 불 교 대 학 학장 일관 합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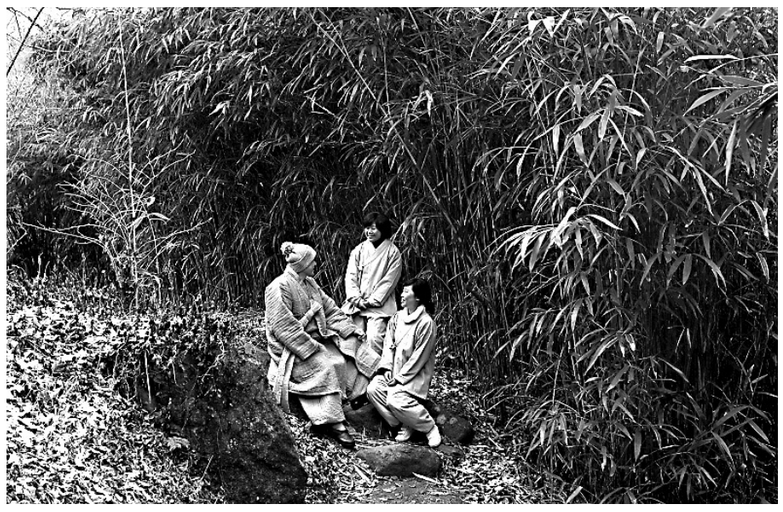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nght Posture Health Care P.A

수험생 스트레스, 수련관·절에서 풀자





수험생들을 위한 특강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구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구로구 일대에 벽화를 그리는 '벽위의 아트' 프로그램(사진 왼쪽)을 진행하며, 화엄사(사진 오른쪽)는 11월 17~18일 '내 삶의 메인 프로젝트' 라는 테마의 강의를 마련해 수험생들을 맞이했다.

교계 청소년시설 및 사찰,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수능시험으로 그동안 발산하지 못했던 끼와 재능을 뽐내고 자기수양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고3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계 청소년 복지시설과 사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것. 청소년센터 및 수련관은 문화체험을 비롯해 진로 적성 찾기에 도움이 되는 특강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으며, 지역 사찰들은 수험생만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진로적성, 이미지메이킹, 재테크 특강 등 다양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02-2642-1318)은 11~12월 동안 학사일정 및 수능이 끝난 후 공백기에 있는 중3· 고3학생들에게 미래설계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3·고3을 위한 청춘청몽 릴레이 'Design Your Life'라는 큰 주제로 △자기표현 및 리더십 △단기목적자금 금융엔진 △아름다운 청소년의 성(性) △긍정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메이킹 특강을 실시한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자기표현 및 리더십' 특강. 청소년 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리더십 코칭이다. '단기목적자금 금융엔진' 특강에서는 여행, 용돈, 자기계발 등 알바 및 단기취업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단기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아름다운 청소년의 성' 특강은 소중한 성을 바르게 인식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성적 의사표현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또한 기업들의 고졸채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어필하는 노하우를 제시하는 '이미지 메이킹' 특강도 준비됐다. 이 밖에 학업과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리는 레크레이션(웃음치료) 및 상대와 공감하는 긍정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긍정 커뮤니케이션'도 눈여겨볼 만하다.

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최은희 사회복지사는 "졸업을 앞두고 20대로의 전환기를 맞는 고3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시기에 교양과 상식, 우리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지식습득과 여가거리를 제공해 긍정적 청소년 발달기회가 되도록 마련했다"며 "인근 학교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청소년수련관(02-838-1318)도 11월 24일 수련관 내 소극장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 및 특강'을 열어 수험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 진로선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날 수련관내에서 분노조절 및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인 'Who am I'와 자아발견 및 타인을 이해하는 '이미지 메이킹 Life Up'을 진행한다. 'Who am I'는 다양한 신체활동 및 심성계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미지 메이킹 Life Up'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도록 한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예술활동 행사도 준비했다. 관내에 상설 한지공예체험장을 만들어 전통한지를 직접 떠보고 한지공예를 만드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11월 10~30일 고3 청소년들을 모집해 구로구 일대에 벽화를 그리는 '벽위의 아트'를 진행한다.

류병석 구로청소년수련관 상담실장은 "청소년들은 벽화 그리기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구서구청소년수련관(053-572-2451)**은 11월 말경 '청소년 고3 진로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또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053-761-9400)**은 11월 21일 인근지역 4개 학교 수험생들을 대구시민체육관에 초청해 장기자랑, 축하공연, 인기가수 공연 및 비보이댄스, 마술 공연 등을 선보인다.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053-639-7101)**은 12월 8일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활동 청소년들을 위해 무대공연을 마련해놓고 '동아리대축제'를 개최한다.

진로상담, 트레킹 등 마련…학부모 위한 프로그램 '눈길'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앞만 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수험생 템플스테이는 쉼과 더불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자신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들과 함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힐링형' 프로그램과 트레킹, 레프팅 등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충남 논산 지장정사(041-732-5629)가 12월 1~2일 실시하는 템플스테이는 '멘토'를 찾는 수험생들에게 좋다. 스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간 잊고 있던 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MBTI 검사를 바탕으로 한 스님과의 진로상담 시간이 특별하다. 그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명상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031-574-5585)는 매 주말마다 '상담이 있는 명상, 상상(相想)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수험생활 동안 자신도 모르게 받아왔던 상처를 명상과 상담을 통해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남 고성군 옥천사(055-672-0200)는 11월 24~25일 '수험생 휴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아침 고요 명상, 편백 숲 걷기, 차담 시간을 선보이며, 수험생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담는 '소원주 만들기'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색다른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잊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전남 화순군 쌍봉사(061-3734-9041)**는 11월 24~25일 쌍산의소(의병활동 유적지) 트레킹, 단청체험을 진행한다.

강원 강릉시 현덕사(033-661-5878)는 바다내음을 만끽하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상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이곳은 사찰에서 직접 콩을 볶고 맷돌에 갈은 뒤 정성스럽게 내려 마시는 사찰 커피가 유명하다. 수험생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마셨던 커피가 힐링을 위한 차로 탈바꿈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 용주사(031-235-6886)는 11월 24~25일 '수능생·학부모를 위한 휴식·소통·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학업 뒷바라지에 지친 학부모들은 휴식요가와 숲치유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찾을 수 있다. 학부모와 자녀간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명상' 체험시간도 마련되며, 효(孝)사상을 고취시키는 부모은중경 독송도 진행된다.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의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공부에 치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적었던 수험생들에게 SQ지수(자아행복 지수)측정을 제안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직접 개발한 SQ지수는 몸, 마음, 관계, 사회적 역할 등 4가지 영역을 측정해 자신의 행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써 측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자아 성찰의 시간과 행복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측정은 SQ지수 홈페이지(sq.templestay.com)에서 할 수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수화공연, 압화 작품 보러 오세요"

연화원, 12월 16일 수화사랑 음악회 개최

수화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가 마련된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은 12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2012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가 '꽁트 부처님일대기'를, 광림사 수화사랑 합창단이 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위의 꿈' '사랑으로' 등의 노래를 수화로 선보인다.

이 밖에 능인 스님(행복사 주지)과, 불자가수 김흥국, 영화배우 김경애 및 숀리가 출연할 예정이며 자비의 쌀 3000㎏ 전달식 및 장애인 자녀 초중고생 6명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진다.

또한 연화직업재활원 장애인들이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제작한 각종 꽃누름 압화 제품을 전시, 판매해 장애인들이 더욱 멋진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해성 스님은 "장애인들에게 노래와 공연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불교문화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압화제품을 판매해 이들의 뛰어난 실력을 격려하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불어넣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장애·비장애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 되는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2202-5831 이나은 기자

"어르신한테 골프배우니 재밌어요"

광진노인복지관, 골프대회 개최

어르신들과 초등학교 아동들이 함께하는 골프대회가 열렸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1월 16일 복지관 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강습이 가능한 어르신과 저소득 아동이 함께 하는 광진골프대회를 진행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토토시니어 나눔활동 공모 일환으로 저소득 아동을 위한 어르신들의 행복나눔 프로그램인 '홀인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를 연 것.

이날 대회에서 참여아동들은 6월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어르신들에게 배운 골프실력을 발휘했다. 어르신 1명과 아동 2명이 한팀으로 구성돼 퍼팅 및 스윙 정확도를 대결했다.

화평 스님은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 골프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홀인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노년 문화확산과 저소득 아동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02)466-6242 이나은 기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초청해 매주 금요일마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골프 강습을 마련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정사)은 우수한 불교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불교교리(사상)에 입각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불교계 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후원 및 자원봉사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대상에는 1천만원, 우수상은 부문별 1개씩 선정해 500만원을 지원한다.

11월 27일까지 내방 및 우편으로 접수 마감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jgo.or.kr/)를 참고하면 된다. (02)942-0144 이나은 기자

심인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 밀교사상과 수행 (密敎思想 · 修行)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일반불자, 승려〈비구, 비구니〉 법사
강 의 : 매주 일요일 12시 ~ 1시 30분 〈점심공양〉
준비물 : 간편한 복장〈법복착용〉, 필기도구는 제공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공부할 과목 ◀ 지도법사 : 법운(法雲)스님

- 근본불교 : 비밀불교의 기본사상 (秘密佛敎의 基本思想)
- 밀 교 란 :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 밀교의 삼대사상 : ❶ 육 대 (六大) = 체(體) : 地, 水, 火, 風, 空, 識
  ❷ 사 만 (四曼) = 상(相) : ① 대만다라(大曼荼羅) ② 법만다라(法曼荼羅) ③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④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❸ 삼 밀 (三密) = 용(用) : 심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
- 밀교의 만다라 : ①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②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 밀교의 삼륜신 : ① 자성륜신(自性輪身) ② 정법륜신(正法輪身) ③ 교령륜신(敎令輪身)
- 현교의 삼신불 : ① 법신(法身)〈비로자나〉 ② 보신(報身)〈노사나〉 ③ 화신(化身)〈석가모니불〉
- 위빠사나 수행법. 탄트라와 명상법
- 육자진언염송 〈옴마니반메훔〉
- 현교와 밀교성불론의 차이점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031)692-3653,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미국 스미스대 간화선 특강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무엇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가?

2012년 11월 5일 미국 동부의 스미스대학 종교학과는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을 초청 '한국 간화선 수행법' 특강을 실시하였다. 니엘슨 도서관 메리 매이플 홀에서 열린 특강에는 메사추세츠주 스미스대, 햄프셔대, 앰허스트대, 마운트 홀요크대 등의 교수 및 학생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통역은 햄프셔대학 교수인 혜민 스님이 맡았다.

정리=김홍근 박사(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실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요체인 선(禪)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이고 지식적 차원의 이론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지혜를 눈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무던히도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발전한 사회모습에서 보듯이 엄청난 질적, 양적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그것은 무지를 넘어 무지의지(無知之知)를 눈뜬 결과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시작도 끝도 없었던, 시작과 끝이 동시인 모습 없는 모습에서 비롯된 물질적 장벽과 정신적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수행법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500년이 흘러 간화선이라는 수행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그 수행법을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선보이는 인연을 가져보겠습니다.

물질적인 벽은 간단한 도구만 있어도 허물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인들은 대개 정신적인 벽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정신적인 벽을 맛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벽을 느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허물 수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실례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물건을 무엇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눈이 본다거나 마음이 본다고 대답하겠지요. 상식이나 지식으로 말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놈이 있어서 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은 분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괴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먼저 본 뒤에야 사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눈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거울에 비친 눈을 보고 '저것이 눈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상황 밖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수행을 통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을 찾아서 전해주신 선지식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화선 수행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손가락을 한 번 튕겨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마음은 왜 아니냐?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음이란 말은 이 일단의 일을 깨달은 이가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짐짓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배워서 답이라고 해봐야 자기 안의 번뇌 망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알음알이로 답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마음이 한다고 가르치지만, 불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불법은 불안과 법안을 말합니다. 불교는 대자대비를 가르치지만, 불법은 무자비합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요구합니다.

또 내가 죽어 송장이 되면, 손가락이나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손가락이나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이쯤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눈앞을 가로막는 정신적인 벽을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보고 듣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답만 찾으십시오. 문제 따라 답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마음속에 걸리게 됩니다. 뭔가 갑갑한 기운이 가슴에 자리 잡아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기운이 왜 생겼겠습니까? 답을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알고 싶은 궁금증이 그런 기운을 만들어 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다가 물이 안 나타나면, 목만 더 마르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 일어나면
의심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답답한 기운에 집중하며 정진
강하게 밀어부쳐야 화두 열려

갑갑하니 알려고 해야 하고, 알려고 하지만 알아지지 않으니까 답을 찾아 계속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의심만은 결코 놓치지 말라는 점입니다. 그 답답한 기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답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햇볕을 볼록렌즈에 맞추어 불을 얻는 것처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인연이 있으면 바로 갑갑한 기운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답만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되풀이해서 외우지 마십시오. 문제는 한 번 듣고 느끼면 됐습니다. 오로지 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됐습니까?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것도 아닌, 뭔가 아련한데 갑갑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연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공부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집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집중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집중은 어느 한 곳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지만, 간화선 수행에서의 집중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연되어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에 스스로 사무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뱃사공이 여울물을 만나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떤 식으로 집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멀어집니다. 그냥 밀려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때의 집중력이란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리뭉치를 두드려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매우 세게 쳐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화두가 걸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길을 가본 사람의 길안내를 받아야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수행하기도 힘들지만, 선지식 만나기는 더 힘든 법입니다.



수불 스님은 … 1975년 범어사에서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7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부터 10여 년 간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다. 1989년 부산에 안국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이며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이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2012년 11월 5일 미국 동부 스미스대에서 '한국 간화선 수행법' 특강을 실시했다.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통역은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이 맡았다. UCLA에서도 같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질문

수불스님이 지도하는 간화선 수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단계에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고 바로 의정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는 한 번 듣고 알아들었으니, 답만 찾도록 지도합니다. 간화선은 처음부터 대중들을 위한 지름길 수행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질과학문명이 발전한 것만큼 이제는 정신문명의 수행법도 발전해서 누구나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통 간화선법은 이 바쁜 시대에 맞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활구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눈뜨는 것입니다. 참고로 참선과 선은 다릅니다. '참'이 떨어져나가 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은 신비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공개된 비밀입니다. 진리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비밀 없이 자유자재로 인연을 살펴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에 가깝습니다. 선은 종교마저도 수단으로 삼아 종교를 넘어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인연으로 여러분이 간화선 수행으로 대자유를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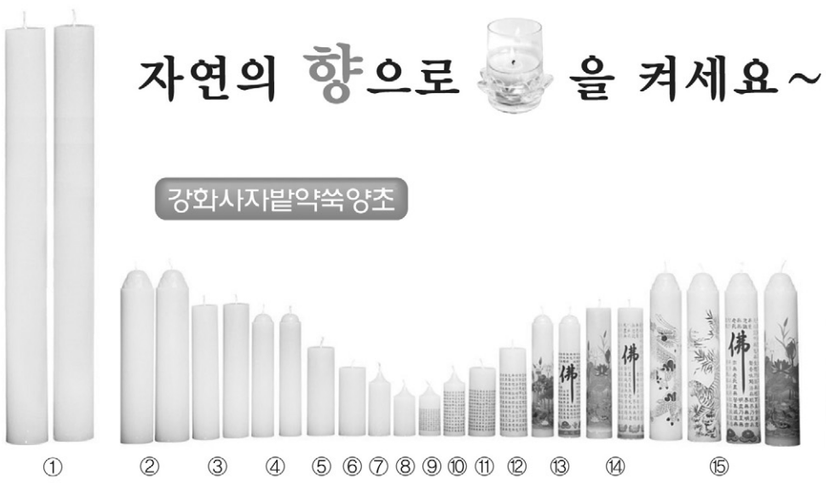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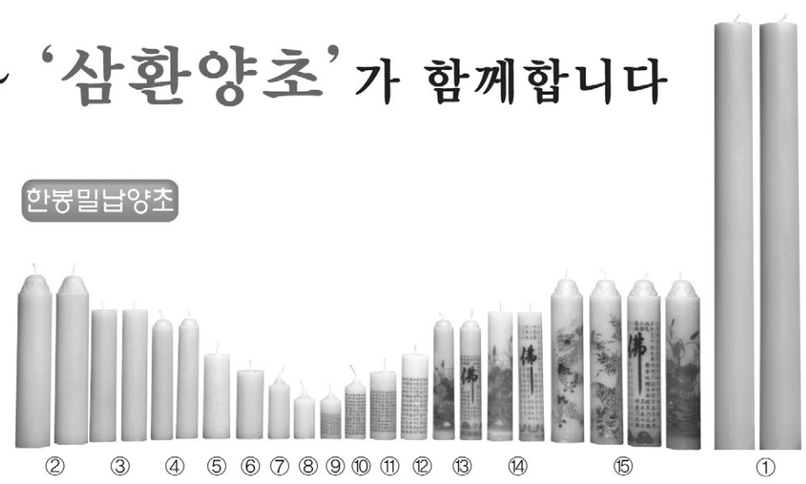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경허 선사 세미나… 논란 재점화?

조계종 교육원·수덕사,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
〈불교 평론〉 폐간 등으로 일정 수정, 효탄 스님 등 5명 발표



박재현 교수
"경허, 부정적 평 친일사관 반영"



김방룡 교수
"진속 구분 없는 무애수행법, 행리 문제 안 돼"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불교평론〉 폐간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연기 됐다가 한 달여 만에 본격화 돼 눈길을 끈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윤창화 민족사 대표에 의해 논쟁이 된 경허 스님의 주색 및 삼수갑산행과 관한 다른 입장을 밝힌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대문제와 경허의 사상'에서 "경허에 대한 부정적인 인물평에는 식민통치 이념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허에 대해 평가를 내린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친일 성향을 강하게 보였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허 스님의 행적 기록을 남긴 권상로와 김태흡을 예로 들어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화 운동인 심전(心田) 개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며 "그들의 눈에는 경허 스님은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으며 주색과 관련된 일화는 부정적으로 확대 재해석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또 "경허 선사가 자신의 주색 관련 행적에 대한 입장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심리학에서의 자아 수용의 성격이 강하며 삼수갑산행도 도피성이 아닌 당시 불교계의 권력지향에 대한 비판과 경계의식이 반영된 자기 비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허의 간화선과 수행관'을 발표할 예정인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경허 스님의 수행에는 진과 속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행리를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방룡 교수는 경허 선사가 근대 한국불교 중흥조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며 경허 선사의 선 특징은 선과 악, 성과 속을 떠난 경계에서 무념 무애의 수행법이 특징이라고 입장을 피력한다.

전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은 경허선사의 법맥과 계승을 논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허 선사가 스스로 자신의 법계를 청허휴정 하 11세손, 환성지안 하 7세손으로 밝힌 바 있다. 효탄 스님은 경허 선사가 편찬한 '선문촬요(禪門撮要)'를 기반으로 경허 선사 법맥을 계승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는 '경허의 문학'을,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불교 중흥조'를 통해 각각 경허 스님을 조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욱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강사,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경집 진각대학원대 겸임교수, 이성운 동국대 강사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기로 했던 김호성 교수와 이덕진 교수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허 선사의 행장과 설법과 시가 등을 면밀히 탐구하고 분석하게 될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법문하며 학술세미나 이후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02)2011-181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서화에 뛰어났던 원기 스님

호명 스님, "원기 스님 문집 자료 모집"



원기 스님 영정

대강백이며 선교양종 교정이었던 경운(擎雲) 원기(元奇) 스님의 사상을 재정립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선암사 경운원기 선양실천회(대표 호명 · 선암사 종회의장 · 서울 염불사 주지)는 2013년 6월 14일 '경운 원기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경운 원기의 불교사적 위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학)의 '근대 선암사와 화엄종풍'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화엄종주 경운원기의 사상)' △김경집 교수(위덕대)의 '근대 경운원기의 활동' △진철문 교수(동국대)의 '경운원기의 서화(書畵)에 나타난 예술세계' 등 주제논문 발표가 이어진다. 장소는 미정이다.

경운 원기(1852~1936) 스님은 조선 철종 3년 영남 웅천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출가에 뜻을 품고 17세 되던 해인 1868년 지리산 연곡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선암사 대승강원에 들어가 경붕 익운(景鵬 益運)의 강석을 물려받았다.

스님은 특히 명필로 이름나 29세 때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양산 통도사에서 금자법화경 사경을 했으며, 31본산 주지스님들이 선암사(仙巖寺) 대승암으로 찾아와 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교학에 밝아 함명스님, 경붕 스님과 함께 대강백 이었다.

원기 스님은 1911년 정월 15일 일본 불교화 하려는 이회광의 원종에 맞서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창종된 조선불교 임제종 관장에 선출되고,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교무원 창립시 교정으로 추대됐다. 이후 1936년 세수 85세로 선암사에서 열반했다.

원기 스님의 증손인 호명 스님은 "원기 스님은 선암사를 중심으로 화엄의 종풍이 계승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30세 대승암에서 후학을 가르친 이후 많은 제자가 그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02)938-9395

이나은 기자

고려 '팔관회' 복원 추진

부산불교계, 주요 문화재로 육성 방침 밝혀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이어 고려시대의 중요한 국가행사했던 '팔관회'를 복원,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팔관회의 복원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팔관회를 여법하게 복원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로써 연등회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팔관회는 당시 불교문화를 비롯한 사회상을 대변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오늘날 유 · 무형 문화재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재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회개혁 백련결사 재조명

백련사, 제2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개최

고려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개혁을 위한 불교운동이었던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개최된다.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11월 24일 강진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원묘국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2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채상식 부산대 교수의 '원묘국사 요세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김정희 서울대 연구교수의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 정토신앙의 재조명', 오지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 참회수행의 재조명' 등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인선 순천대 교수, 이기운 동국대 연구교수, 최연식 목포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한편 행사가 끝난 후에는 백련결사를 하셨던 고려 8국사중 4국사가 수행을 하셨던 용혈암 추모순례도 같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조선후기 불교 · 유교 교류 흔적 보여주는 전적

동국대 〈침굉집〉 〈삼봉집〉 펴내



조선후기 불교와 유교의 지식인들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책 〈침굉집〉과 〈삼봉집〉이 잇따라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3차분 사업으로 발간한 조선 후기 화악 지탁 스님의 〈삼봉집三峰集〉과 침굉 현변 스님의 〈침굉집枕肱集〉이 그것이다.

화악 지탁 스님의 삼봉집은 19세기 초반에 유자들과 교류가 긴밀해진 불교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집으로 주목된다.

지탁 스님이 후배들에게 시평을 읽도록 하고 문장을 쓸 때 천기를 유출하도록 권하는 모습은 희귀한 사례로 보인다.

지리산 연곡사와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등에 주석하고 말년에는 금화산 징광사에서 입적한 침굉 현변 스님의 〈침굉집〉은 17세기 불가의 교학 방식이나 수행문화,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짐작하게 해 불교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

동국대 출판부는 2020년까지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불교 문헌 323편 전체를 학술적 완성도가 높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시리즈로 매년 순차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자아와 영혼 주제 학술대회

인도철학회,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5회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에서 본 나 · 자아 · 영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사론 파아품과 세친의 무아론 논증'(박창환), '여래장 사상에서 자아와 무아'(김성철), '인도철학에서 자아재념의 공유와 차별'(정승석),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자아정체성 귀환과 사라진 이야기(박효엽), 미망사의 앎과 행위주체로서의 자아(성청환) 등 발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의 종지 종통 고찰

한일불교유학생協, 24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서

한일불교유학생협의회(상임공동대표 현해)는 11 24일 오후 12시 30분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종조 종명 및 종지 종통에 관한 역사적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김용태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의 종통과 종지'를,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한국불교의 전개와 주도종파의 계승'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 · 고려대장경연구소 업무협약

전래진언결집과 자전편찬사업 공동 추진키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과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31일 한국전래진언결집과 자전편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 한국전래진언결집과 자전편찬사업은 한국 인문학의 연구토대를 확산하고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각종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한국전래진언결집 및 자전편찬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보고, 원활한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문헌과 인력 기술력 등의 상호 제공,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물 보고와 상호 공유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진각종 교육원은 11월 30일 오후1시 진각문화전승관에서 제14회 진각논문발표회를 실시한다.

김주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1월 18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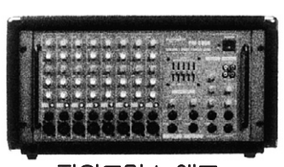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편안한 공간서 어르신과 행복 나눌터”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10주년 금산사 복지원 운영

자비구제(慈悲救濟)의 운영이념을 바탕으로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원행 · 금산사 주지)이 2002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스님)이 11월 15일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개관 당시 전북 유일의 불교계 노인복지관으로 출범한 서원노인복지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은 현재 회원수 6000여 명. 하루 이용인원 400명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성장했다.

개관이래 불보살의 대자대비를 실천하고 지역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기쁨은 더하고 고통과 아픔은 어루만져주는 노인복지를 실현해오고 있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관이다.

서원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과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실천하면서 타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타 복지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복지사업의 포교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의 장점은 노련한 복지사들과 강사, 회원들과의 가족같은 유대감으로 인간미 넘치는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노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11월 15일 기념식을 열었다.(사진 왼쪽) 서원노인복지관은 ‘홀몸 남자 어르신 요리 교실(사진 오른쪽 위)’과 ‘부부 댄스 동아리(사진 오른쪽 아래)’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타 복지관이 벤치마킹 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의 불교복지 원력과 지역 스님들의 후원, 다양한 장기를 가진 불교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복지관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복지관에 선정될 정도로 복지시설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역 사회의 칭찬이 자자하다.

‘홀몸 남자 어르신 요리 교실’과 ‘부부 댄스 동아리’, ‘웰 다잉 프로그램’은 서원복지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다른 복지관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요리교실에서 배운 요리솜씨를 지역 경로당이나 다른 복지시설에 음식을 대접하고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늘 행복한 비명이다.

또 복지관내 ‘행복나눔도서관은’ 2000여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회원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세대별 계층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의 점심식사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정도로 차별화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곳은 몸이 불편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은 11월 15~16일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 지역 기관장들을 초청해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뽐내는 작품 발표회’와 동아리 활동을 선보이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원행 스님은 기념식에서 “자식 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복지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노후 생활을 윤택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발판으로 자비도량으로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보연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어르신들이 늘 기쁜모습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복지관의 사업을 공유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자”고 말했다.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늘 편안하게 이용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NGO, 정기총회 열어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11월 12일 광주모임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선 스님(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장 · 사진왼쪽에서 5번째)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상임대표로 정선 스님 선출

광주전남지역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광주전남불교NGO연대가 새로운 상임대표로 정선스님(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장)을 선출했다.

지난 11월 12일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상임대표로 선출된 정선 스님은 “그동안 잘 가꾸어 온 불교NGO단체들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체계적 시스템으로 운영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정선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상임이사 상용 스님, 광주전남인드라망(준) 대표 승묵 스님,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고현본부장,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 등 10개 단체 대표와 실무활동가 30명이 참여했다.

총회는 이외에도 2012년 사업 결산과 새로운 정관을 마련했으며, 운영위원장에는 이금지(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운영위원)님을 선출됐다.

또한 2013년 사업으로는 매달 운영위원회 개최,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겨울 여름 워크샵 진행, 5 · 18민중항쟁 추모법회 진행,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쳐가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마애불, 협의없이 복원돼…큰 훼손

시멘트 덧대어 임의복원, 원형 찾을 수 없어





해남 고도리 마애불의 복원전 모습(사진 왼쪽)과 복원 후 모습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복원과 훼손이 진행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전남 해남읍 고도리에 위치한 ‘해남 고도리 마애불’은 최근 원래 누워있던 마애불을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면서, 분리된 석조물에 접착제 형태의 시멘트를 덧대어 임의로 복원을 진행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음각형태의 부처님 형상을 현대식 공구인 글라인더로 추정되는 도구로 손을 데, 더 이상 원형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한 해남군 관계자는 “해당 마애불은 비지정 문화재이지만 문화재 복원과 이동에는 관계기관에 신고 후 시행해야 한다”며 “문화재 보전의 원칙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는 지난 86년 지표조사 당시에 누워있는 상태로 위치해 있었다”고 밝혔다.

해남 고도리 마애불은 가로 1.1m, 세로 1.8m의 정방형 돌에 음각으로 조각을 한 좌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연꽃좌대 위에 선정인을 취한 모습과 두광과 신광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이 마애불은 해남 대흥사 남미륵암 마애불과 함께 조성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대해노인복지관, 어르신 만발공양

지역어르신 400여 명 초청해 식사제공

사단법인 아름다운 세상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 광주 법림사 주지)는 특별한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복지센터는 11월 11일 광주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자비나눔 만발공양 행사를 열었다.

만발공양이란 부처님 생전 발우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데서 유래된 자비나눔 실천수행으로,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른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듯 준비한 음식과 위문공연, 연말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1년간 복지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한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진행됐다.

무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른들에게 공경의 마음과 주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며, “지난 1년간 정성스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사는 1부 아리예술단, 광주남초등학교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2부 본행사, 3부 어르신 장기자랑, 자원봉사자 장기자랑, 다과회와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무진 스님, 석운 스님(대흥사 총무), 흥운 스님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의원등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지역 어른들이 참여했다.



대해노인복지센터는 11월 11일 광주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자비나눔 만발공양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지난 92년 초등학교 장학금 전달과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법인이 설립돼 지역소외계층에게 9988 희망만들기,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미용봉사, 경로당 점심 밑반찬 지원, 독거가족 생필품 및 쌀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주간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흥 장원사,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사진 가운데)이 11월 10일 전남 장원사에서 봉행된 삼존불 점안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나섰다.

전남 고흥 장원사(주지 금용)는 11월 10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증명으로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혜초 스님을 비롯해 설봉 스님(태고종 원로의장), 설운 스님(선암사 주지)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새롭게 조성된 불상은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했을 때 비로소 참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며,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많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신도회장 박귀용, 칠성회 회장 이성덕, 자비회 회장 손수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김병호, 영진스님에 대한 감사장 수여, 대중들의 요사 공간인 세삼당 현판식이 같이 진행됐다.

금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스님들의 원력과 신도들의 신심어린 도움으로 삼존불을 봉안하게 돼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존불을 봉안한 장원사는 1948년 창건한 사찰로,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 관음유치원을 운영하며 불교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설 법 · 화 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초음파 방역 시스템
기화방제소독, 방충, 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흰개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의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 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방역, 방재,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 재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 (HT제2008-0001/36호)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분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고온)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기술입니다.

• 초음파 연무방제소독기술 (외부분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돌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dongwhaind.co.kr
동 화 특 수 산 업
031)451-6232 / 팩스 031)451-6238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 인 사



덕운스님은 질병치유의 중생구제에
영험하신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수십년간 육신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위해 기도끝에 선몽하신
“활인 발효방”!
한약재를 첨가한 순수발효열
65℃로 체내독소배출! 건강증진! 면역강화! 질병예방!
건강 침술 강좌
초 · 중 · 고급반 (학인모집)
*장소관계로 예약 접수 받습니다.
활인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

재정 공개로 사찰 운영 '모범'

마산 정법사 新사찰경영 눈길

사찰의 재정 공개는 우리 불교를 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과감한 재정 공개를 통해 사찰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마산시 추산동에 위치한 정법사다. 정법사는 지난 1996년 주지 지태 스님 부임 이후 사찰재정을 투명화하고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 강화,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마산 일대에 새로운 신행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은 "출가 당시 불교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종교도 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사찰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주지가 되면 새로운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가자고 결심을 했다"며 당시 심정을 설명한다.

스님은 정법사 주지 부임 이후 이런 다짐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사찰의 재정 공개다. 스님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찰 재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 달에 한 번 운영위를 주최해 재정을 공개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찰운영 현황을 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새로운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교대의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불교대는 신도를 모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도들이 불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정법사는 지난 1996년 주지 지태 스님 부임 이후 사찰재정을 투명화하고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 강화,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신행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2012년 불교대 입학식 장면.

운영위 조직 사찰 운영 이끌어

신도교육으로 인재 양성 성공

무료급식소도 지역사회에 기여

이를 위해 정법사는 1999년 영축불교대학을 개설 강의료를 6개월에 10만원으로 저렴하게 측정해 대중들이 부담없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단순한 교양 교리 강좌에만 그치지 않고 전공반을 개설해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 심도 깊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도 주목할만하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급식소는 인근 저소득층 이웃 2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28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다. 보현의집 역시 초창기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봉사인원 300명에 마산시의 지원을 받을 만큼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 정법사는 신도들이 신행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불사에 들어갔다. 인근 2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불사를 시작한 정법사는 내년 부처님 오신날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 공사중에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의천 대각국사 911주기 열반 다례재 봉행

천태종, 11월 15일 개성 영통사서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과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심상진)이 11월 15일 개성 영통사 경선원에서 '영통사 낙성 7주년 및 의천 대각국사 911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사회부장직무대행 월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 화합과 단합을 기초한 통일불사의 성지인 령통사에서 이 뜻 깊은 합동법회를 봉행하는 것처럼, 남과 북이 자주 만나 우리 민족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이어 남측대표 갈수 스님과 북측대표 차금철 부장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려는 우리들의 실천행을 천리혜안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불심한마음으로 통일조국·현세지상정토를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서원이 원만성취 되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과 조불련은 11월 15일 개성 영통사서대각국사 911주기 열반재를 봉행했다.

큰마음 실천회 창립 1주년 정기 총회

11월 10일 대구 문화 웨딩서

불교의 대승정신 실천을 지향하는 '큰마음 실천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갖고 창립 취지를 되새겼다.

큰마음 실천회는 11월 10일 저녁 대구 문화웨딩에서 회주 원인 스님과 김천 수도암 주지 원덕 스님 등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총회를 개최했다. 큰마음 실천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승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불자들이 지켜야 할 186개 덕목과 불교 의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11월 10일 열린 큰마음 실천회 정기총회.

이 자리에서 원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침서를 펴냈다"면서 "종교와 민족, 국가를 초월한 큰 원력을 갖고 대승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주시 '직지심체요절' 찾아 불교계 노크

청주시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 금속활자본을 찾기 위해 불교계의 문을 두드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1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직지찾기 활성화 방안과 불교문헌 자료 조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금속활자본 직지가 국내 어딘가에 있다면 불교계가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직지가 법어 등을 수록한 불서인데다 간행 장소도 사찰(청주 흥덕사)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적극 협조한다면 한동안 뜸했던 직지찾기 운동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선본사 합격엿 '나눔'

전국적인 기도도량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가 수험생 부모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떡과 엿을 나눠줬다. 선본사는 11월 7일~8일 이틀 동안 갓바위 참배단 앞에서 8천여 개의 떡과 엿을 나눠주며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선본사 주지 덕문스님은 "수험생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갓바위 부처님께 공양 올린 떡과 엿을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팔공산 갓바위에는 최근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평소보다 서너배 많은 하루 4~5만명의 불자들이 찾아 수험생 자녀의 합격을 기원했다.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계류 주변 음식점, 산사 청정성 해친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침계루(枕溪樓)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이 여러 곳에 있다. 그중에서도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울산 석남사의 침계루는 건물도 좋은데다 자리잡은 곳이 특별하여 단연 돋보인다. 침계루라는 이름은 계류를 베고 누운 건물이라는 뜻이니 계류에 바짝 붙여 지었을 터이고 그런 까닭에 이 건물에서 하룻밤 묵는 경우에는 밤새도록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적막한 밤에 침계루에서 듣는 물소리는 가히 환상적이다.

우리나라 사찰은 대부분 높은 산, 깊은 골에 자리 잡은 까닭에 물과 친숙한 장소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이 물이 지극히 청정하여 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목욕시설이 변변치 못했던 그 옛날 사역을 휘감고 흐르는 계류는 스님들이 몸을 씻는 곳이기도 했고, 좌선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만치 사찰에서 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으며, 계류의 물은 신성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이다. 일단 사람들이 찾아와야 포교도 되는 것이고 사세도 번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이 제 모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요즘과 같이 단풍이 아름다운 철에 산사에 가보면 등산객이나 관광객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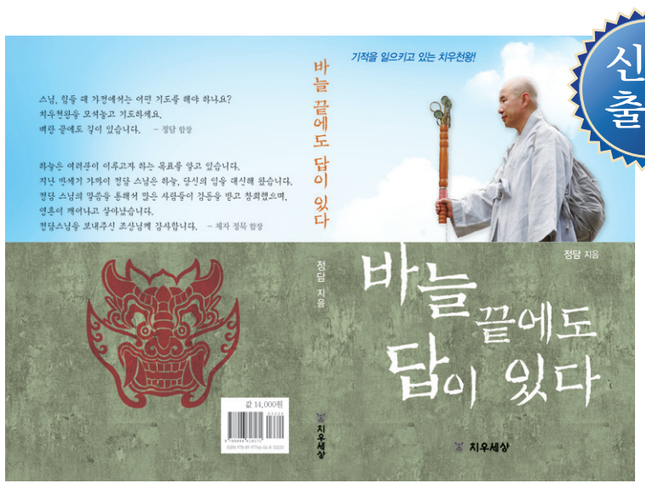
더구나 장사꾼들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는다. 사찰 올라가는 길에 자리 잡은 음식점들은 계류 가에 자리를 만들고 산을 찾는 사람들을 유인한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계류의 물소리와 계류 주변의 단풍이 좋아 이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데, 여기에서부터 계류의 청정성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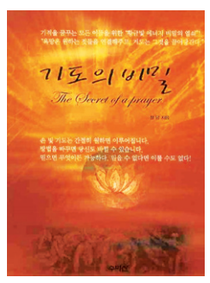
사찰과 가까운 곳의 계류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자연재(自然財)이다. 아직도 우리 사찰은 환경의 오염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연훼손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사찰주변의 자연도 금방 오염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계류는 상류에 오염원이 있거나 사찰 자체에서 오염을 시키거나 음식점들에 의해서 오염이 될 경우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생태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다. 우리나라 사찰이 아름다운 것은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역을 휘감고 흐르는 계류의 청정성을 지켜내는 것은 불교계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까?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산사로가는 길의 계류가에 자리잡은 음식점은 주변 환경의 청정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강원도 ㅊ사찰

"눈"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을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옵션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치우기도상 출시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약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055)932-4103, 010-9537-0034
Daum 카페 주소창에 합천용문사 검색 를 쳐보세요!

용문사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중간지점)

공기 압축열 보일러
연료비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
획기적인 절감!! 편리하고 화재에 안전합니다.
일반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술"이 아닌 "신기술"

하루 1만원으로 50평 난방실현!
하루 2만원으로 100평 난방실현!

심야대비 50% | 도시가스, 전기보일러 대비 70% | 기름대비 80% 절감

초 록	소비전력	난방열량	월간 예상연료비 (단위:원)
압축열 보일러	5kw/h	난방 120㎡(약 4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13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200,000
압축열 보일러	7.5kw/h	난방 180㎡(약 6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0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300,000
압축열 보일러	10kw/h	난방 240㎡(약 8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7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400,000

최고의 기술력, 고객 만족
품질경영의 원칙과 철저한 A/S로
고객님께 "신뢰와 정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주)초록에너텍
대표전화 1666-7634


마하간다웅 수도원에서 한 어린 스님이 공양을 받고 밝은 웃음을 띄고 있다. 마치 한국의 군대 면회처럼 출가한 아들의 뒷바라지 개념으로 공양올리는 가정이 많다.


밍군대탑. 남은부분이 기단부로 8층 건물 높이다.


만달레이 힐 사원에서 내려다본 만달레이 시.


만달레이 힐 사원에서 관욕의식을 하는 미얀마 불자.

승보 공양의 전통 현재까지 이어져

③ 만달레이 마하간다웅 사원 · 마하무니 사원

미얀마 중부에 있는 만달레이는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따웅 왕조의 수도였으며 양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특히 만달레이는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이 활발하다. 만달레이 시내의 수많은 차량들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느끼게 한다.

무역의 도시 만달레이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인도와의 교역이 활발했던 이곳은 아난존자가 다녀갔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일까. 특히 만달레이에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 1000 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마하간다웅 사원과 미얀마 3대 생불사찰인 마하무니 사원, 5차 경전 결집 장소인 쿠도도 파고다,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다녀가셨다는 만달레이 힐 사원 등에는 여법한 생활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자하는 참배객들이 줄을 잇는다. 마음에는 불심을,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사는 스님들의 존재는 미얀마를 살아 있는 불교 성지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스님들의 끝없는 행렬, 마하간다웅 수도원

만달레이에 위치한 마하간다웅 수도원의 아침은 세계각지에서 온 수많은 참배객들로 붐빈다. 10시 30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1000명을 넘는 스님들이 공양을 위해 행렬을 이루며 이를 보기 위한 참배객들 또한 장사진을 이룬다.

맨발에 가사를 통견한 스님들이 법랍에 따라 줄서 엄숙하게 공양하는 모습은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미얀마에서는 오전 탁발을 나가 공양 받은 음식을 10시 30분에 사찰에서 일제히 먹는다. 오후 불식의 계율이 철저히 지켜지는 까닭에 공양 시간 또한 칼같이 지켜진다.

공양은 미얀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사원을 찾아 공양을 올린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순번을 받아 기다릴 정도다.

미얀마 사람들의 승보공양 정신은 출가란 종교의식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미얀마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 듯 길든 짧든 출가를 하는데 출가란 사실상의 성인식 역할을 하고 있다.

군대에 간 아들 면회 가듯 출가한 스님들에게 출가 기간 동안 한번 이상씩 공양 올리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승보공양 정신이 드러난 다리가 마하간다웅 수도원 인근의 우빼인 다리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인 우빼인 다리는 1849~1851년에 걸쳐 완성됐는데 마하간다웅 사원과 호수 건너편 만달레이 아마라푸라 사원을 오가는 탁발승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빼인 다리는 마을의 우빼인이라는 노인이 아마라푸라 사원의 스님들이 배를 기다리다 공양시간을 놓쳐 식사를 하지 못함을 목도하고 매년 굵은 나무를 옮겨지었다고 전해져 '탁발교'로 불린다. 다리 기둥이 1086개에 달하는데 일일이 그 나무를 깎아 옮겼을 노인과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시공을 넘어 전해진다. 수십 년이 지나도, 태풍이 와도 튼튼하게 미얀마 사람들의 교통로 역할을 하는 우빼인 다리에서 스님들을 공경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지나 친 불사가 왕조 멸망 이끌어

반면에 만달레이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한 밍군 대탑은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한 지나친 불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준다.

민돈 대탑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인 꽁빠웅 왕조의 바돈 왕(1781-1790)이 1790년에서 1797년까지 만들다 미완성으로 끝난 불운의 역사 그 자체이다.

바돈 왕은 자신의 강력한 왕권 강화와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탑을 만드는 불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혹독한 노동에 지친 일꾼 1000여 명이 라카인 아쌈(Assam)지역으로 도망친다.

당시 라카인 아쌈 지역은 미얀마가 인도로부터 빼앗은 영토로 국경문제가 일고 있던 분쟁지역이었다. 당시 서구열강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미얀마를 침공할 명분을 쌓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돈 왕은 대탑 건설 중에 도망친 이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미얀마 군대는 라카인 아쌈 지역으로 들어가고 이에 영국이 국경 침범을 이유로 미얀마 전쟁을 선포한다. 그 결과 꽁빠웅 왕조는 영국군에 의해 망하게 되고 밍군 대탑 역시 건설이 중단된다.

만달레이 힐에는 부처님 설법 흔적 남아 있어

만달레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지는 바로 만달레이 힐 사원이다. 분지인 만달레이를 둘러싼 산맥 중 가장 높은 236m에 위치한 이 사원에는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97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만달레이 시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방으로 부처님 상과 아난존자 상이 만들어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친히 방문했다는 만달레이 힐 사원에는 부처님이 당시 2400년 후 이곳에 대도시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민돈 왕은 그 설화에 따라 이곳으로 천도를 해 왕조를 일으켰다.

만달레이 힐 인근에는 민돈 왕이 25년에 걸쳐 1857년에 완공한 쿠도도 파고다가 있다. 729개의 파고다 안에는 각각 석장경이 보관돼 있다. 석장경은 당시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이다. 석장경은 2400명의 승려들이 729개의 대리석에 일일이 조각한 것으로 불경이 파고다 주변에 둘러쳐 있다. 쿠도도 파고다의 역사적 배경을 적어놓은 거대한 파고다와 729개의 작은 파고다 등 총 730개의 파고다로 이뤄져 있다.

얇은 금박 하나 하나 붙여 불상 조성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은 쉐다곤 파고다, 짜익티요 파고다와 함께 미얀마 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3대 파고다 중 하나로 '파야지(Payagyi, 큰 사원)'로도 불린다.

1784년 4m 높이의 불상을 모시기 위해 보도파야(Bodawpaya) 왕이 세웠는데 마하무니 불상은 현지인들에게 영험하기로 소문나 불상에 금박을 입히며 소원을 빌기 위한 신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마하무니 사원의 불상은 수많은 금박으로 인해 표면이 두꺼비 피부같이 울퉁불퉁하다. 부착한 금박의 두께만 15cm로 무게가 12톤이 넘는다.

이 불상 근처로는 비구니 스님을 포함해 여성들은 접근할 수 없다. 승려의 가사와 여자의 옷이 스치면 불심과 영험함이 없어진다는 말 때문이다.

남방불교에서 불교가 지금까지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근본을 지키는 데서 기인한다. 신도들이 붙이는 금박으로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불상을 보며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또 미래 미얀마의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궁금해진다.

만달레이=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하간다웅 사원에서 점심공양을 하는 스님들.


마하간다웅 사원의 긴 탁발행렬.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행

(사)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자함〉

종 정 운 송 (청운사 055-375-0108)
중앙원로원장 대 웅 (봉주암 051-895-6013)
중앙원로의원 혜 원 (봉광사)
무 진 (용수암 011-864-3369)
청 수. 일 파

중앙종회의원 용 현 (극락정사). 수 경 (백련암)
범 주 (몽불사)
청 타 (관음정사 018-403-1022)

중앙종회의장 일 봉 (관음사 011-508-3100)
포 교 원 장 운 암 (문황사 055-573-1745)
교 육 원 장 법 기 (백림사 016-748-0048)
호 계 원 장 법 정 (법정사 011-567-2626)
호 법 원 장 법 산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 향 소 현 (010-7757-5078)
중앙선거관리원장 관 우 (약사사 010-4859-5312)

(社)護國佛敎曹溪宗 總務院長 유 심 성 도
공 동 봉 행 위 원 장 운 암
공 동 봉 행 위 원 장 혜 명 범 우

비구니회회장 혜명 법우 (백광사 051-804-3806)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총 무 부 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감 찰 부 장 서 암 (약수사 010-6668-2017)
규 정 부 장 법 승 (051-516-4494)
재 무 부 장 묘 향 반야라마 (010-8620-4303)
문 화 부 장 청 오 (홍주암 011-514-6310)
감 사 부 장 청 타 (관음정사 018-403-1022)

■ 장 소 :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 일 시 :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 교구 종무원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법승 (천황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무진 (용수암 011-864-3369)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왕사 010-4148-2402)

※ 종지 종풍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501

생태사회와 불교

사찰의 생태적 전통과 지혜 (2)

사찰의 생태 전통은 생명 구제 사상





예불 전 법고를 치는 모습(사진 왼쪽)과 사찰 특유의 발우공양 의식(사진 오른쪽). 이같은 사찰의 전통은 항상 생명을 생각하고 구제하기 위한 친환경적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찰의 청규와 생명살림의 전통

수천년동안 불살생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불교는 생명살림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과 의례, 청규속에 이러한 불살생의 가르침에 의거한 전통과 문화는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발우공양 : 불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이나 대중식사를 공양이라고 한다. 특히 대중스님들의 식사인 발우공양(拔羽供養)의 전통은 공양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수행을 돌아보며, 만 중생의 노고를 생각해 정말 자신이 음식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음식을 맛에 탐착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하기 위한 약으로 먹는다는 서원을 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인 것이다.

특히 발우공양때 외는 경전인 소심경 오관게(五觀偈)에 이 음식이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중생의 노고를 생각하며(計功多小量彼來處), 내 부족한 공덕을 돌아본다(忖己德行全缺應供). 그래서 음식을 먹는 뜻은 탐진치 삼독을 끊고 (防心離過貪等爲宗), 수행과 보살행을 위한 약으로 먹으며(正思良藥爲療形姑), 궁극에는 큰 깨달음을 이루겠다(爲成道業應受此食)는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다.

정식게(淨食偈)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미물, 특히 국이나 물에 들어있을 수많은 박테리아나 세균까지 생각하는 극도로 세심한 생명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들어있다. 물 한 방울을 여실히 살펴보니(五觀一滴水) , 팔만사천마리의 생명이 있구나(八萬四千蟲). 만약에 이들을 살피지 않고 먹는다면(若不念此呪), 중생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如食衆生肉)라고 생각하며 그 생명을 위해 염불을 한다.

그리고 다 먹은 발우그릇은 김치로 깨끗이 닦아 먹어 맑은 청수로 들어가 맑은 청수로 나온다 그래서 발우공양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청결공양이자, 평등공양이며, 절약공양이자, 공동공양인 완벽한 식사법인 것이다. 오늘날 에코붓다와 불교환경연대에서 시작된 '빈그릇운동' 은 불교의 발우공양의 정신을 살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캠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도량석과 예불 :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하기 전에 사찰경내를 돌면서 도량석을 한다. 잠든 중생들을 깨워 함께 부처님께 예불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목탁은 처음에는 작고 나직하게 천천히 치다가 끝날때도 나직하게 사그러 들듯이 친다. 이는 도량주위에 잠들어 있는 많은 벌레와 짐승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세심한 생명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다. 그리고 예불을 하기 전에 법전사물(法殿四物))을 치는데, 구름모양의 운판(雲版)은 하늘을 나는 중생들, 범종(梵鐘)은 지옥중생을, 목어(木魚)는 물속의 중생을, 법고(法鼓)는 들짐승과 축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매일 인간만이 아니라 이들 중생을 구제한다는 서원이 문화속에 습합된 것이다.

③ 재(齋)와 헌식(獻食) : 재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생명들에게 배푸는 천도의식이다. 수륙재는 지상이나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을 위해 베푸는 공덕으로 복업을 짓게 하는 의식이다. 보통 재의식이 마치면 올려진 음식을 각각 조금씩 걷어 옥외의 일정한 장소(헌식대)에 갖다 놓는다. 이를 헌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주위의 새들이나 작은 동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절 주위에 사는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④ 방생(放生) : 불교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실천을 해왔다. 방생이 바로 그러한 적극적 생명살림의 의식이다. 경전에 나오는 최초의 방생(放生) 이야기는 〈금광명경(金光明經)〉에 실려 있다. 어느 해, 유수 장자(長者)가 두 아들을 데리고

불교는 생명 환경 살림 전통 강해
발우공양은 대표적 환경 운동
건축서도 친환경적 지혜 드러나
해우소는 훌륭한 친환경 시스템

어느 큰 연못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오랜 가뭄 끝이라, 때마침 연못에 물이 말라 많은 물고기들이 죽음에 처해 있었다. 이것을 목격한 유수장자는 두 아들과 함께 마을로 되돌아가서 물을 날라다 연못에 부어주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려냈다. 그 공덕으로 유수장자는 다음 생에 시천천자(十千天子)로 태어났다고 한다.

최근 개인의 구복을 위해 생태계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외래어종을 방생하거나 대규모 관광방생 등 무분별한 방생이 문제가 되곤 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은 개선해야한다. 그러나 방생은 본래의 의미를 살려 현대적인 불교문화로 새롭게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 수 없다.

⑤ 육바라밀 집신 : 예전의 스님들은 신총이 좌우데 3가닥씩 매듭진 집신을 신고 다녀 이것을 '육바라밀 집신' 이라고 하였다. 집신의 주둥이는 보시, 가운데는 지혜, 밑바닥은 정신, 집신 굽은 선정, 무명천으로 둘러 묶은 신총은 지계, 동기총은 인욕바라밀이라고 했다.

스님들은 안거가 끝나고 만행을 할때는 특히 부드럽고 헐렁한 짚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길을 가는 도중에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와 곤충을 밟아 죽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뜨거운 물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않는 것은 뜨거운 물로 인해 작은 벌레와 생명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던 것이다.

⑥ 석장(錫杖) : 석장은 비구들이 지니고 다니는 18물 가운데 하나로, 지팡이 머리 부분에 6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육환장(六環杖)이라고도 한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등 육도를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수행자들이 길을 갈 때 석장 소리를 듣고 주변의 짐승과 벌레들이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⑦ 보살통(菩薩筒) : 수행자들은 불살생을 계율로 하기 때문에 해충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오래전에는 해도 승속을 막론하고 몸에 이와 벼룩이 많았다. 스님들이 이나 벼룩을 잡으면 죽이지 않고 대나무통에 넣어서 바깥의 나무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이 통을 보살통이라고 했다.

자연과 조화 중시한 사찰 건축의 친환경적 지혜

옛 수행자들은 산, 들, 강, 나무 등의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했다. 비록 비탈진 산중에 사찰을 지어도 산을 훼손하거나 절개하지 않고 흙을 북돋워서 석축을 쌓은 후 집을 앉혔다. 많은 사찰의 석축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 한옥주택과는 달리 굽고 휘어진 나무라도 그에 맞게 그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적재적소한 곳에 사용했다. 사찰건축에서 나무는 단순한 건축자재가 아니라 나무를 나무 그자체로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과거에는 수행자들이 직접 절을 지었고 자연속의 건축이자,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봉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 고려시대의 건축들이 지금까지 천년을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부분적인 수리와 교체가 가능하도록 조립성(組立性)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사찰의 건물은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음새들이 요철(凹凸)로 되어 있고 나무못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체하여 고스란히 다른 곳에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실성(移室性)이 있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 전에 있던 작은 건물은 다른 곳의 작은 절로 옮겨 세웠다. 그리고 습기나 흰개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다른 목재로 짜집기 하듯이 대목을 대었다. 해체 보수 과정에서 나온 목재들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다. 목재의 썩은 부분을 잘라낸 뒤 다른 전각 불사에 썼다. 그러다보니 누더기 전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실성과 조립성이 강한 건축물은 그 자체로 생태적인 것이다.

요즘 시멘트건물은 50년이 지나면 흉물스러운 시멘트덩어리가 되어 부서지면 결국 매립장에 폐기된다.

그에 비해 전통사찰건물은 썩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며, 부순다해도 다른 건축의 자재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어 철저한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그야 말로 훌륭한 생태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사에서 나온 폐기와 역시 버리지 않고 담장을 쌓거나, 굴뚝을 쌓을때 부재로 썼다.

이뿐 아니다. 기둥의 주춧돌은 대개 자연석 막돌(덤벙주초)을 사용하였는데, 그래서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지만, 윗면의 굴곡에 따라 기둥의 아랫면을 깍아세우는 '그랭이 기법' 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평평한 가공석위에 새운 기둥보다 좌우에서 미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자연재해나 지진에 강하여 건물을 튼튼하게 오래 지탱할 수 있다. 또한 굽은 기둥에 가로 벽선에 맞추거나 기둥의 옆면에 맞게 벽선을 깎아 맞추는 것, 굽어진 보를 세울때나, 성곽의 돌담장을 쌓을 때도 자연바위에 맞게 돌을 깎는 그랭이 기법이 이용되었다. 이 그랭이 기술은 우리나라만의 친자연적인 전통기술인 것이다.

요사채는 대개 작은 구들방이어서 적은 연료로 그만큼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화장실인 해우소(解憂所)는 말그대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아 '근심을 푸는 곳' 이었다. 수세식처럼 물을 사용하지 않고, 낙엽이나 톱밥 등을 사용하여 분뇨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사용했다.

특히 채마밭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거름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소변 등은 액비로 사용했다.

이러한 전통 해우소는 아주 훌륭한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분뇨처리시스템으로 생태전문가들에게는 각광을 받고 있는 불교의 전통인 것이다.



이 외에도 방충방부역할을 한 단청이나 냉난방효과를 위한 겹처마 등 자연을 항상 고려한 사찰의 지혜는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서울에서 두 시간 반 거리,
한국 최초의 만일 염불회가 열렸던 바로 그 곳,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일염불회를 재현합니다.



〈금강산 건봉사 등공 기념탑〉

만일 염불회는 서기 758년 발징화상께서 정신, 양신 스님등을 통하여 1만일 (27년 5개월)동안 염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 를 하였는데 만일이 되어 회향하는 날 기도에 동참했던 31인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1.5Km 지점까지 허공위로 날아가 육신은 땅에 버리고 정신은 서방정토에 극락왕생한 이적을 남기셨던 염불대법회로써 금강산 건봉사에서 이기도 법회를 다시 재현하고자 전국 만일 염불회 1차 3년 발원을 다음과 같이 입재합니다.

금강산 건봉사 만일 염불 기도 1차 3년 입재 안내

- 입 재 : 2012년 12월 8일(토) 철야 오후 6시
-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기도동참금 : 월 3만원 (일가족 동참)
- 계 좌 번 호 : 농협 247-01-251767 / 예금주 : 건봉사
- 접 수 :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
- 입재일 11월 28일(수요일)에서 12월 8일(토요일) 철야기도입재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철야, 만일 염불기도 입재합니다.
* 버스운행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건봉사행 단체버스 출발 (건봉사 종무소로 전화 예약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주지 정현 합장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육신의 눈을 잃고 마음의 눈을 얻다

⑧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율

〈상〉최상의 발심

육안을 잃고 천안을 얻은 제자가 있다. 그는 평생 잠들지 않았다. 부처님과의 약속이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지 않았던 그는 끝내 시력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 부처님은 그를 '천안제일'이라 불렀다. 진정한 발심과 정진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온 몸으로 보여준 아나율 존자의 이야기다.

부처님의 교단은 인도 제일의 강대국인 마가다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국왕 빔비사라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많은 바라문의 상수들과 그 밖의 많은 부호들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거나 출가하기에 이른다. 부처님의 성도와 교단의 성장은 부처님의 고향 가비라국까지 전해지기 시작한다. 가비라국의 국왕이며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부처님의 소식을 듣고 기원정사로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이 고향을 찾는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왕실과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탄하며, 불법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출가

부처님이 고향에 머문 지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에서의 교화를 마친 부처님은 다시 고향을 떠난다.

"절대로 안 된다." / "데바닷다와 아난다, 난다도 모두 출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출가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나율이 출가를 결심하고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부처님이 고향에 머무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실과 대중에게 널리 퍼졌고, 그로 인해 왕실과 대중의 출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출가라니!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아나율의 어머니는 단호했다. 하지만 아나율의 출가 의지도 단호했다. "좋다. 만약 밧디야왕이 출가한다면 너의 출가를 허락하겠다." 고민하던 아나율의 어머니는 조건부 허락을 한다. 밧디야왕은 정반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왕자였다. 아나율의 어머니는 왕이 된 그가 절대로 출가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나율은 바로 밧디야를 찾아간다. "나는 출가할 생각이 없네." 그랬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가 출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출가 의지가 확고했던 아나율은 밧디야를 끈질기게 설득한다. 이미 아나율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던 것이다. 왜 출가해야 하는지, 그는 확실했고 그의 확실함이 마침내 밧디야를 설득해낸다. "알았네. 나도 출가하겠네." 아나율과 밧디야는 다른 왕자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다.

무빈(無貧)의 인연 공덕

"아나율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인연이다." 〈불본행집경〉과 〈현우경〉 등에서 전하는 아나율의 과거생 이야기다. 그가 아무 부족함 없는 왕자로 태어난 것은 과거생의 공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경전에 따르면 과거생의 그는 나무를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다. 불사불(弗沙佛)의 말법시대였다. 아나율은 좁쌀 한 그릇으로 하루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걸식에 나선 벽지불(辟支佛)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다 아나율의 집 앞에 쓰러졌다. "먹을 것 좀 주시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벽지불을 본 아나율은 자신도 굶주렸지만 자신보다 더 굶주린 벽지불을 위해 한 그릇 밖에 없는 좁쌀밥을 건넨다. 허기진 배를 잡고 숲으로 나간 아나율은 숲에서 발견한 시신

보시 공덕으로 왕족, 수행자 몸 받아
설법듣다 졸아 부처님 엄한 경책
'잠자지 않겠다' 서원
실명 불사하고 정진…천안 열려



그림 · 김흥인

한 구를 집에 들이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자 그 시신은 금불상으로 변했고, 그 금불상은 손가락을 떼어내건 발가락을 떼어내건 끊임없이 금이 되살아났다. 가난한 나무꾼 아나율은 금방 부자가 됐다. 그의 집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절반은 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고, 절반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그는 91겁 동안 이러한 과보가 계속되어 어떤 세상에서 목숨을 받아도 빈곤을 모르는 무빈의 인연을 타고 나게 된다. 보잘 것 없는 좁쌀밥 한 그릇의 공양 공덕이 이토록 지중한 인연 공덕이 되었고,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이제 받기 어려운 수행자의 몸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법의 법,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육안(肉眼)을 잃다

기원정사.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때, 설법을 듣고 있던 아나율은 졸음이 밀려와 졸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아나율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아나율아 너는 어찌하여 이 법의(法義)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느냐? 벗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출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 첫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놀란 아나율이 잠을 깨며 말했다. "면목 없습니다." 그토록 출가의 뜻이 컸던 아나율이었지만 수행자로서의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의 엄한 경책에 아나율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한다.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아나율은 그 시간 이후로 눕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다.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고행을 시작했다. 아나율이 걱정된 부처님과 대중은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겠다며 잠을 자지 않았다. "아나율아 대중의 염려를 받아들여라. 이대로 가면 시력을 잃어 영영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부처님이 아나율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나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 맹세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 "아나율아, 고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게으름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행 또한 그러하다. 내가 이미 '중도'를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몸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육신이 음식을 먹듯, 귀는 소리를, 코는 향기를, 혀는 맛을 먹이로 삼고 있다. 그리고 눈은 잠을 자야 한다. 결코 세상의 순리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이다." / "육신의 몸이 빛을 잃는다면 이후로 저는 제 '의지'를 저의 눈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나율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계속해 나갔다. 결국 아나율은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천안(天眼)을 얻다

"아나율 존자, 나와 함께 포행합시다." 어느 날, 목건련 존자가 아나율을 찾아왔다. 〈불본행집경〉에서 전한다. "지금 바느질 중입니다. 삼의(三衣)를 다 꿰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아나율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비구들은 스스로 삼의를 기워 입어야 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나율에게는 바느질 역시 힘든 일이었다. 서둘러 바느질을 하던 아나율의 바늘에서 실이 빠지고 말았다. 아나율이 홀로 말했다. "세상에서 공덕을 지어 내 바늘에 실을 꿰어줄 이 누구인가." 이 때 부처님은 홀로 방안에 계시면서 마음을 거두어 좌선하시다가 청정한 천이(天耳)로 아나율의 독백을 들으시고 찰나에 아나율 앞에 나선다. 부처님은 아나율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다.

"어느 분이 저의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까?" / "아나율 존자여, 내가 그 공덕을 쌓고 싶어 바늘귀를 꿰었노라."

그랬다. 부처님은 늘 아나율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아나율이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생사를 건너 깨달음에 도달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공덕을 쌓아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는 부처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아나율 존자여, 세간에서 공덕을 쌓는 자는 많지만 나를 능가할 자가 없고, 보시나 설법에서도 부족한 바가 없다. 하지만 내가 쌓은 공덕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중생들을 위한 것이니라." 육안을 잃은 아나율은 눈앞의 부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따뜻한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은 아나율에게 육안을 되찾아 주실 수도 있었으나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적을 베푸는 대신에 여러 대중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아나율과 그의 대중들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중은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도 깨끗이 범행하는 이라면 기꺼이 어려운 처지를 돕는데,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찌 서로 돕지 않을 수 있는가." 이로 인하여 모든 비구들은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아나율이 부처님과 대중에게 말한다. "육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온갖 잡념이 나를 괴롭혔지만 육안이 사라지니 볼 것이 없고, 볼 것이 없어지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보여 일체의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멀고 가까운 것, 앞과 뒤, 안과 밖,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색과 형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미래생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아나율은 육안을 잃은 것이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아나율은 육안을 잃고 난 후 더욱 치열하게 정진했다. 그렇게 수행이 점점 깊어진 아나율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음의 눈, 천안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은 찰나찰나 사멸하고 마는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 있어야 할 '눈'을 얻은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 분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산스크리트어의 이름은 마니룻다, 아니룻다이다. 먼 과거생에서 굶주린 수행자에게 한 그릇의 밥을 보시한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가난을 모르는 인연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고향을 찾아 머무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에 교화되어 데바닷다, 밧디야, 우바리 등과 함께 출가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부처님께 엄한 경책을 받고, 재발심하여 눕지도 자지도 않으며 수행하다 시력을 잃게 됐다. 육안을 잃은 그는 대신 마음의 눈인 천안을 얻게 되고, 천안제일(天眼第一)이라 칭송된다. 설법 등을 통한 전법보다는 솔선수범하는 정진을 통해 범행을 닦는 수행자상을 보여주는 십대제자다.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아나율 판화)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총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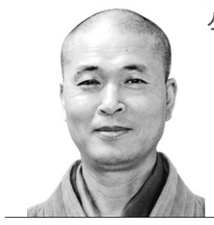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조주의 관문은 '돌다리'

조주 스님이 문하대중에게 가르쳐 말했다.

" '조금이라도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분별심이 있으면 마음을 잃고 만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가?"

후에 이 일을 어떤 학승이 낙포(洛浦)에게 이야기했는데 낙포는 이[齒]를 따다닥 부딪쳤다. 그것을 또 운거(雲居)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운거가 말하길

"낙포 스님이 하필 그렇게까지 할 필요야…"

학승이 이것을 조주 스님에게 이야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남쪽에 크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

학승 말했다.

"화상께서 거론해 주십시오."

주 스님이 은밀히 거론하자, 학승은 곧 옆에 있는 승려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스님은 공양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이야기를 그쳤다.

師示衆云 纔有是非紛然失心 還有答話分也無 後有僧擧似洛浦 洛浦扣齒 又擧似雲居 雲居云 何必 僧擧似師 師云 南方大有人喪身失命 僧云 請和尚擧 師纔擧 僧便指傍僧云 者箇師僧喫卻飯了 作什麽語話 師休去

거론은 " '조금이라도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분별심이 있으면 마음을 잃고 만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가?" 라는 말을 대중에게 거듭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낙포 스님이 이를 부딪쳤던 것은 그에 토를 달기 두렵다는 뜻이고, 운거 스님은 그런 낙포 스님을 부정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또 두 사람을 다 죽이고도 한 학승의 대답에는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선사라 해도 말을 그만 둘 때가 있다. 더 이상 나아가다가는 일을 망치고 말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금강경(金剛經)을 보고 있는데 마침 어떤 스님이 그것을 보고 물었다.

" '모든 부처님 및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두 이 경(經)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합니다만 이 경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아문 일시 불재사위국…"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나 스스로 경전을 고치거나 하는 따위의 일은 결코 할 수 없어."

師因看金剛經次 僧便問 一切諸佛及諸佛阿耨菩提 皆從此經出 如何是此經 師云 金剛般若波羅蜜經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 僧云不是 師云 我自理經也不得

선사가 금강경을 읽으면 꽃이 피어나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금강경을 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주 스님이 신참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주의 관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학승이 말했다. "관문을 건너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주 스님은 꾸짖었다. "이 소금 암매상 놈아!"

또 조주 스님은 말했다. "형제들이여, 조주의 관문은 통과하기가 힘들다."

학승이 물었다. "조주의 관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돌다리가 그것이다."

師問新到 從什麽處來 云南方來 師云 還知有趙州關麽 云須知有不涉關者 師叱云 者販私鹽漢 又云 兄弟趙州關也難過 云如何是趙州關 師云 石橋是

조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남에게 선(禪)을 말하는 것은 소금을 도둑질해서 몰래 파는 자와 같다. 석가모니 불이나 경허 스님은 워낙 큰 인물이다. 이런 거물이 아니라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조실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그러면 "이 소금 암매상 놈아!" 하고 소리쳤을 때 '이도둑놈아' 하고 맞받아 칠 것이고, "돌다리"라고 말했을 때 "닳아버렸다" 고 말하게 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40〉

삼독의 근원은 아상에서 비롯된다

번뇌-④ 근본번뇌 탐 · 진 · 치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거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끼고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씩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번뇌의 절반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번뇌의 원인을 통찰하고 체득할 수 있다면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야말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 열반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열반을 증득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에서는 번뇌에 관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번뇌에 빠져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그 첫 번째가 근본번뇌이다. 근본번뇌는 말 그대로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다른 번뇌들은 이 근본번뇌로부터 파생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번뇌[隨煩惱]이다. 동일한 의미로 본번뇌(本煩惱)라고도 하고 마음을 어지럽고 산란하게 만들어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혹(惑)자를 붙여 근본혹(根本惑) 또는 본혹(本惑)이라고도 한다.

근본번뇌에는 탐(貪) · 진(瞋) · 치(癡)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먼저 탐 · 진 · 치 삼독(三毒)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탐은 탐욕을 말한다. 탐욕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에 대해 사랑하고 집착하므로 애(愛)라고도 한다. 이 탐욕에는 욕망의 세계인 욕계의 탐욕[欲貪, 欲愛]과 감관의 욕망은 없어졌지만 아직 물질적인 것은 남아 있는 세계인 색계의 탐욕[色貪], 그리고 물질적인 것조차 없어진 순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의 탐욕[無色貪]이 있다. 탐욕은 이와 같이 무색계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끈질기고 끊기 어려운 번뇌중 하나이다.

진은 진에(瞋恚), 에(恚), 노(怒)라고도 하며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반감, 혐오, 분노 등 을 말한다. 진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忿), 한(恨), 해(害)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우선 분은 매우 격하게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이다. 한은 진에가 마음에 결합되어 영원한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해는 진이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을 가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좋아하고 간절히 원하던 일을 저지당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우선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미워하는 것에 대한 분노[忿]가 생길 것이다. 그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을 경우 반복되는 분노에 의해 원망의 마음[恨]이 생길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진에란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증오심이라고 할 수 있다.

치는 이러한 탐욕과 분노로 인해 사제와 연기의 도리에 대한 통찰을 방해 받아 일어나는 어리석음[愚癡]을 말한다. 이 어리석음은 십이연기의 무명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 다만 탐, 진, 치 삼독의 치는 탐욕과 분노를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명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이를 테면 무명에는 상응무명(相應無明)과 불공무명(不共無明)이 있다. 이 중에 상응무명은 탐욕, 분노, 교만 등의 다른 번뇌와 상응해서 일어나고 불공무명은 사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 독립적으로 다른 번뇌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치는 탐욕과 분노로 인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여 사제나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응무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사제나 연기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탐욕과 분노의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번뇌는 모두 근원적으로 '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邪見]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상(我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통찰한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번뇌도 자연히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㊺

몸이 침묵하고 입이 침묵하며 뜻이 침묵하는 사람을 죄악이 없는 사람이라 말한다

〈이티붓타카(如是語經)〉

절창(絶唱)이다. 시나 노래에서 '기가 막히는' 명언(名言)이나 명구(名句)를 만날 때, 우리는 절창이라 말한다. 절구(絶句)라고들 한다. 시인들은 이 절창을 시 속에 집어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 사실 시집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어봐도, 어떨 때는 하나의 절창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나는 오늘 절창을 만났다. 부처님이 시인 중의 시인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침묵, 이라는 말은 다변(多辯)의 반대말일 터이다. 아니 다변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말이 있는 상태의 반대말이 침묵이 아닌가. 그러므로 '침묵' 은 당연히 말의 침묵이고, 입의 침묵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입의 침묵만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신다. 뜻의 침묵과 몸의 침묵까지 더 나아가셨다. 뜻의 침묵이라? 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애써 이해한다면 이해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뜻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결은 말로 짜이기 때문이다. 유식(唯識)불교에서 무의식이라 할 수 있는, 제8 아뢰야식은 말(名言)이라는 씨앗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 또 라캉같은 서양의 정신분석학자 역시 "무의식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음을 생각할 때, 뜻의 침묵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몸의 침묵은 무엇이란 말인가? 몸이 침묵하다.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절창이라 느끼면서, 무릎을 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몸은 말이 없는데, 소리도 없는데, 몸이 침묵하다니?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징표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부처님은 몸이 살아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부처님께서는 몸만을 따로 떼어놓고 몸이 아닌 것을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었구나. 몸을 몸 아닌 것과 대립시켜놓은 채, 몸 아닌 것을 살아있음의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터에 부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셨다.

시는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살리는 행위다. 살아있지 않은 것에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버리는 것이다. 몸, 이라는 생명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부처님은 지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 그것이 침묵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렇다면 당연히 "몸이 말하다", 혹은 "몸이 다변이다"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 몸이 말을 하고, 침묵도 한다. 몸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다. 입이나 뜻만이 생명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시인이시다. 시인 중 시인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그렇다면 몸이 침묵하고 입이 침묵하고 뜻이 침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시어경〉 자체 내에 해답이 있다. 이 말씀이 설해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먼저 세가지 나쁜 일, 세가지 착한 일, 세가지 청정함을 말씀하신다. 그런 뒤에 세가지 침묵을 그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나쁜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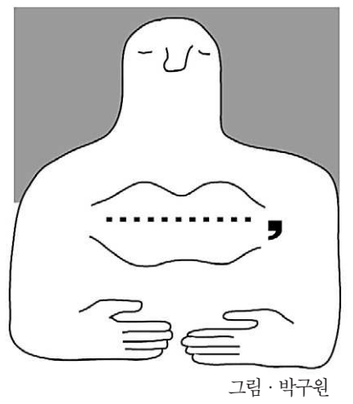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을 지을 수 있다.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다. 몸과 입, 그리고 뜻이 청정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입, 그리고 뜻의 세가지 업을 청정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설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도 나쁘지는 않았으리라. 하지만 마지막 결론, 즉 청정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하시면서 맺음을 하셨다. 더욱 시적으로 강조하셨다. 그를 위하여 침묵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그럼으로써 "몸이 침묵하고"라는 절창을 가능하게 했다. "몸이 청정하고"와 얼마나 다른가. "몸이 청정하고"는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몸이 침묵하고"라는 구절은 쉽게 못 잊는다. 적어도 내 경우는 그렇다. 그것이 절창의 힘이다. 시의 힘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대강백 무비 스님과 대심 거사 조현춘 교수가
누구나 즐겁게 독송할 수 있도록
운율을 맞추어 번역한 가사체 경전

선물용
법공양용으로
절찬리 판매중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96쪽/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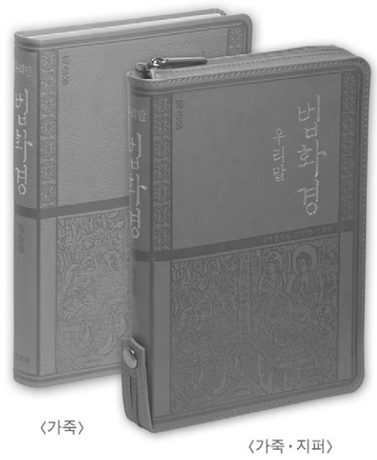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88쪽/5,000원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100쪽/5,000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독송!



〈가죽〉 〈가죽 · 지퍼〉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국판양장/금장 630쪽/가죽: 20,000원/
가죽 · 지퍼: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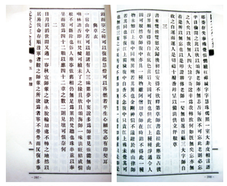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글자마다 지혜구슬이 온 방을 밝게…"

언어를 초월한 해학

추사가 초의스님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두 사람의 교유관계는 물론 당시 세상사가 한 눈에 드러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때로 추사의 편지글에는 불교의 총체간을 바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추사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위명존숀(俛命存順: 천명에 맡기고 순리로 보존)은 유자(儒者)의 사생관(死生觀). 이런 연유로 윤회를 반복하는 스님들의 처사를 곱게 보지 않은 듯하다. 〈완당전집〉에 수록된 〈여초의(與草衣)〉 두 번째 편지에는 이러한 간극이 또렷이 드러난다.



〈완당전집〉에 수록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세간에도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려. 그대들은 영원히 윤회를 벗어나 윤회가 없는 곳에 머물려고 하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살면서 천명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순리요, 죽는 것이 평안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대들이 하려는 것은 애만 많이 쓰고, 번번이 반복되는 일은 아닙는지요. 天命에 맡기고 순리로 보존되는 것인데도 없는 것을 받들고 있으니 매우 슬프고 멍합니다. 이어 스님의 편지를 받으니 글자 글자마다 지혜의 구슬이 온 방을 (등불처럼) 밝게 비춰 피상적인 말로 반나절 한가로움을 빼앗은 것과는 비교 되지 않습니다. 기쁘고 기려집니다. 海 스님도 무탈하신가요. 매번 밥을 먹을 때에도 잊지를 못하는데, 해 스님은 오히려 잊은 지가 오래 되었겠지요. '無我無人' 이라 예서로 쓴 큰 글씨를 보냈는데, 행여 나를 위해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지요. 이미 없어졌다면 잊어버리는 것도 집착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無忘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니 老師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無忘이 없음을 증명한다니 그의 해학은 언어를 초월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해붕스님께 알려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으라는 그의 농담은 진정 추사다운 해학의 일면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運百福' 큰 글씨… 초의 복 축원

판향 동봉 부처님께 청공 올려

하는 것이니 老師에게 전해 한 바탕 웃음거리로 삼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運百福' 라고 쓴 큰 글자는 스님이 거두시어 스님에도 모든 복이 들어오시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들이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열 쪽지의 판향을 함께 보내 청공으로 올립니다. 하인을 세워 놓고 근근이 적습니다. (日月滔滔 世間又過一春秋 宜師衆之欲永脫輪劫廻不轉之地 然以居易俟命存順沒寧者觀之 師衆之所欲爲者 寧不勞勞而反復多事耶 委存失春殊覺悵惘 續枉禪誡字字惠珠燭照一室 大非皮相言語 半日偷閒之比 以欣以頌 海老師亦無恙否 每飯不可忘 此老則必忘之久矣 以無我無人四大隷字寄惩 辛爲我轉致何如 既無矣忘亦無着 是所以無忘也以是叩證 聊慚老師一粲無妨 運百福三大字 師自收之自運而運人 是切禱 十瓣香并呈以備清供 立佇艱草)

이 편지가 초의에게 보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해 스님(해붕스님)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26년 이전의 편지로 추정된다. 해붕스님에게 대한 추사의 특별한 정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거니와 밥을 먹을 때에도 노스님을 잊지 못한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또한 초의스님이 보낸 편지가 '글자 글자마다 지혜의 구슬이 온방을 밝게 비춰 피상적인 말로 반나절 한 가로움을 빼앗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 한 추사의 고백은 초의의 식견을 높이 평가한 것일 터. 이러한 서로간의 존경심은 이익 되는 좋은 벗 중에 가장 수승한 관계로, 후인의 귀감이 되기에 족하다.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글씨는 현재 '명선(茗禪)' , '동국선원(東國禪院)' , 일로향실(一爐香室), 등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이 편지에서 예서로 쓴 '무아무인(無我無人)' 과 '운백복(運百福)' 을 이미 써서 보냈으며, 열 쪽지의 판향(瓣香)도 아울러 보냈다는 것이 확인된다.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주변을 정화하는 향은 부처님께 올리는 청공(淸供) 중의 하나. 특히 무아무인(無我無人)이라고 쓴 글씨를 다시 돌려달라는 추사의 뜻이 궁금하다. 더 나아가 '만약 없어졌다면 잊어버리는 것도 집착이 없는 것' 이란 말이나 이는 무망(無忘)으로, 집착이 없음을 증명한다니 그의 해학은 언어를 초월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해붕스님께 알려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으라는 그의 농담은 진정 추사다운 해학의 일면이라 하겠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각묵 스님(왼쪽)과 대림 스님(가운데)이 황경환 회장(오른쪽)과 함께 걸으며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 세 선우는 "불교는 현재 세계적으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때문에 부처님의 천절한 가르침인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불교경전 번역 원력 세운 세 선우

각묵 · 대림 스님 '발원' 뒤 황경환 씨 후원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 〈땃지마 니까야〉를 한글로 완역하며 4부 니까야를 완역했다. 대림 스님은 팔리어의 로마어 표기판을 바탕으로 5년 동안 번역에 매달렸다. 전체 3100개 이상의 방대한 주석도 달았다.

책을 낸 초기불전연구원은 원장인 대림 스님과 함께 각묵 스님이 2002년 만든 연구단체. 초기불전연구원은 총 50권에 달하는 팔리어 삼장 전편을 한글로 완역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작불사 뒤에는 황경환 진양유조선 회장이란 후원자가 있다.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 또 황경환 회장을 11월 7일 조계사에서 만났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황 회장은 김 박사의 초기불교경전 풀이를 듣고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김 박사는 황 회장에게 불교는 합리적, 이성적 종교이며 특히 초기불교에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과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다' 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닌 실험적 증명을 통한 '앎' 입니다. 초기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스스로 실험해 보며 깨닫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초기불교는 과학적입니다."

황 회장은 그날로 초기불교에 매진했다. 한마디로 반은 미친 사람이 됐다.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를 방문하기도 수차례 인연의 끈은 미얀마에서 이어진다.

"2001년 미얀마 쉐우민 명상센터에서 위빠사나를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물밎지만 제 옆에 함께 있던 분이 대림 스님이셨어요."

각묵 스님 스트레스로 뇌수술
대림 스님 이질로 죽을 고비
두 스님, 초기불전 연구원 세워
황경환 회장 지속적인 후원

한국에 돌아온 황 회장 앞으로는 대림 스님이 번역한 책 한권이 전달된다. 〈염수경〉이다.

〈염수경〉을 읽고 대림 스님을 만난 황 회장은 이후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의 초기불교경전 번역에 대한 원력을 느끼고 후원을 결심한다.

죽음 앞에서 새로운 원력을 세우다

"한국 수행자들은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늘 고민했어요. 그 해결책을 초기불교불전에서 찾았습니다."

봉녕사 강원 대교반 시절 매일 1000배를 하며 '일생 중노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서지사를 만나게 해달라' 는 발원을 한 대림 스님. 대림 스님은 강원 졸업 당시 향후 계획으로 역경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후 초기 승단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로 티베트를 찾았다가 '남방(南方)' 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선배와 도반들의 권유로 인도로 발길을 옮겼다. 인도에서 각묵 스님을 만난 대림 스님은 각묵 스님의 '초기경전을 공부해 보라' 는 조언을 듣고 초기불교 공부에 빠져든다.

"인도에서 곰바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출가해 세속에서 공부한다는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각묵 스님의 추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식이죠."

대림 스님은 한달 동안 절만 하며 진학여부를 고민을 했다. 대림 스님은 "내가 스님이란 아상(我相)을 갖고 '마을 선생님' 에게서 공부를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만(我慢)' 을 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스님은 뿌나대에서 1년 간 산스크리트 문법 공부에 치중했다.

대림 스님은 "수행과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매순간 즐거운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 순간 번뇌가 일어날 때 상황에 맞는 대처를 초기불교에서는 상세히 일러줍니다. 초기경전에서의 부처님 말씀은 불자들을 이끄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대림 스님은 공부하면서 건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미얀마에서는 이질에 걸려 죽을 직전까지 갔다. '내 삶을 미얀마에서 정리하는 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기적같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그 때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더욱 역경에 매진하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림 스님은 귀국 직후 각묵 스님과 함께 초기불전연구원을 설립해 빨리어 삼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10년 동안 진행됐다.

선수행서 못 얻은 묵마름, 초기불교서 풀어

"부처님 생존 당시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할 때, 한국 불교도 바른 길로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초기불전연구원을 대림 스님과 함께 만든 후 경전 번역과 감연 등에 나서고 있는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로 출가해 7년 내리 선방에서 화두를 든 수좌 출신이다.

각묵 스님은 "출가 후 간화선 수행을 계속했는데도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스님은 그때 대학시절 접한 범정 스님 번역의 〈숫따니파타〉 같은 초기불교 책들을 다시 접하며 초기불교경전 번역의 뜻을 세우게 됐다. 스님은 항상 걸망에 범정 스님의 〈숫타니파타〉를 넣고 다니면서 수십 차례 읽었다.

1989년부터 뿌나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공부를 시작으로 10년 간 유학한 스님은 인도에서 고대 인도 성전인 '베다' 를 전공하는 등 박사과정을 마쳤다.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 아래 경전을 올리고 번역에 서원을 세운다.

스님은 인도 유학 시절부터 경전 번역에 매달리기 시작해 니까야 번역을 진행했다. 스님은 하루에 10시간 넘는 번역 작업을 반복하다 얻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뇌수술을 받기도 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각묵 스님에게 그 때 만난 대림 스님은 흡뭉한 도반이자 선지식이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각묵 스님은 아는 이 한 명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골방에서 6개월 동안 3권의 번역을 해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불교의 뿌리를 배운다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불교 관심에 보탬 느껴

"최근 조계종 교육원의 스님 연수에서 초기 불교 강좌의 수강 신청자가 다른 과목의 4, 5배에 이르고 종단 차원에서도 교과과정에 초기불교 강좌를 도입하는 등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보람을 느낍니다."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은 초기불교는 이미 한국불교의 일부가 됐다고 평하며 완역된 초기불전이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했다.

인도서 완역불사 원력 세워
술어DB화 노하우로 속도빨라
초기 경전은 불교의 뿌리
팔리어삼장 50여권 완역 계획

각묵 스님은 "현재 세계적으로 불교는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부흥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불교가 중흥을 맞으려면 원전에 기초한 체계적인 한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경환 회장은 두 스님의 번역작업을 두 스님이 가능한데는 번역과정에서 팔리어 술어집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두 스님은 사부 니까야 완역에 이어 논장의 주요 주석서와 팔리 고유명사 대사전 등을 출간하는 한편 향후 율문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번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교는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부흥기를 맞고 있어요. 반면 한국 불교는 다소 침체해 있는데 한국 불교가 중흥을 맞으려면 원전에 기초한 체계적인 한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이 다 할 때 까지 오로지 초기불전에 대한 역경 작업을 하겠다는 두 스님과 그들의 후원자 황경환 회장. 이들의 모습에서 과거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되었을 때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했던 구마라집 스님의 모습이 비춰졌다.



각묵 스님은 …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7년간 안거 수행한 후 인도로 유학해 푸나대학 산스크리트어과 석 · 박사 과정을 마쳤다. 번역서로 〈금강경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등을 출간했다.



대림 스님은 … 대림 스님은 1983년 세등선원에서 수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해 인도 푸나대학 산스크리트어과에서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청정도론〉 주석서로 푸나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번역서로 〈염수경〉 〈아비담마 길라잡이〉 〈출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등이 있다.



황경환 회장은 … 황경환 회장은 국제P.T.P한국본부 총재와 울산시 불교신도회장, 법무부 불교분과 종교위원, (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 초기불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법무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와 ㈜진양유조선 회장 등을 겸하고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니까야와 초기불교 해설서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www.msjy.co.kr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전법일기

"아들이 주지이니 예의 지켜야죠"

아버님, 법당에 가서 절하시다

전화벨이 울린다. 속가 아버님의 전화다.

"여보세요" "셋째가?" "예, 주경입니다." "아~ 그래. 스님, 잘 지내지요. 여기 집이다. 아버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지요."

속가의 부모님은 스님이 된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직도 말씀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며 편안하고 자연스럽지가 않다.

아들이 스님이 되고도 10여 년 정도 자주 보지 못할 때는 당신들 편한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주지를 맡고나서는 거처가 일정한 까닭에 초파일을 비롯해 기도와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절에 오시곤 한다.

처음에는 당신들 편한대로 평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신도들이 스님께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자주 접하면서 어느 순간 때때로 경어를 사용하기도 하셨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물으셨다. "아들 스님한테 꼭 존댓말을 해야 하나?" "하하, 법회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경어를 쓰시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님도 어린 어석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화의 시작은 거의 평어로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경어로 마무리되곤 한다.

아버님은 자주 명산고찰에 등산이나 관광으로 방문하시곤 하셨지만, 아들이 출가할 때까지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한 적이 없었다. 대체로 자유로운 생각을 지니시고 호탕한 품성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아버님



그림 · 박구원

법당 출입 없으시던 아버지
평소 안부 전화에도 경어 써
가족포교 못하면 부끄러운 일

은 당신 나름의 분명한 철학과 종교관을 지니고 계셨다.

'당신은 당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부처님이나 신 등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빌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또 가족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자신에게 종교를 믿으라거나 불편함을 준다면 안된다.'

당신의 이런 원칙은 아들이 출가하고 나서도 지켜졌고 스님이 된 아들도 당신의 뜻을 존중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오셨을 때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시는 것이었다.

"아니 아버님, 어쩐 일로 법당에서 절을 하셨습니까?" "하하, 이왕이 주지스님인데 모시는 부처님한테 예의는 지켜야겠다 싶어서 절을 했지요." 그렇게 아버님은 부처님께 처음으로 절을 올렸다.

당신 보기에 아들이 믿음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생각되니 그렇게 절을 드린 것이다. 이후로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편하게 법당출입을 하시는 것으로 보였다. 일단 당신의 완고한 고정을 점었으니 더 깊고 귀한 불법의 인연이 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다른 사찰들은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절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드물지 않게 오는 편이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의 정으로 오지만 다시을 때는 불자로서 태도와 예법을 잘 지키곤 한다. 주지가 그렇게 지내니 대중스님들의 가족과 친지들도 편하게 오고 간다. 다만 다른 신도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법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 무엇보다 깊은 인연인 가족들에게 법을 전하고 포교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과 그 가족들, 혈연과 인연으로 맺은 다생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통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종정 및 부종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중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중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희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립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종단이 있습니다. 종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러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종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종정 스님들을 3주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멋펏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의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얀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 구족계 자격자
1.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숫에 한함
3.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 종사 대종사 품수식
1.법납 25년 이상 : 종사 2.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패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종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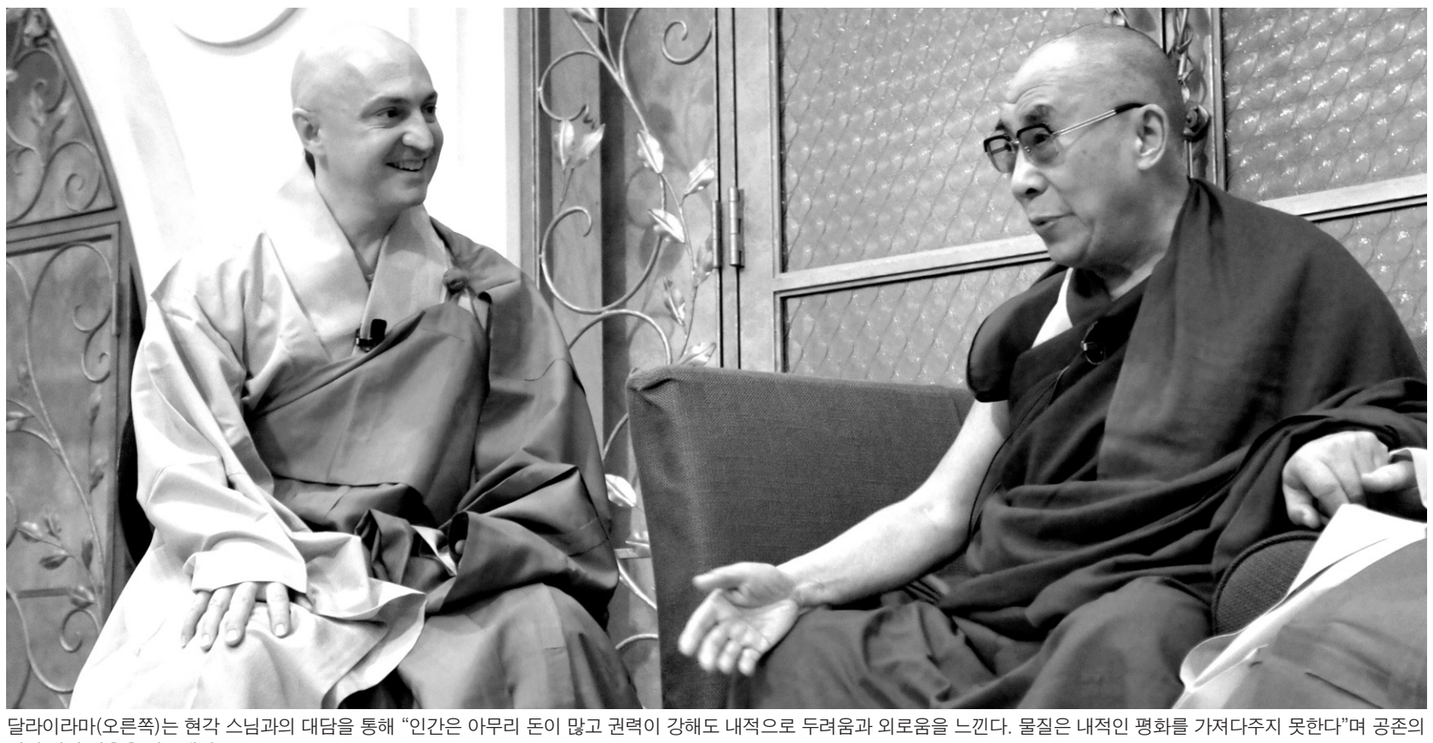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달라이라마 · 현각 스님
일본 요코하마 특별대담

맹목적 믿음 경계… 끊임없이 공부해야

달라이라마는 11월 5일 일본 요코하마 인터콘티넨탈호텔 특별법회장에서 한국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스님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매일 수행을 멈추지 말고, 부처님이 누구이며 가르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또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듣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불교TV



달라이라마(오른쪽)는 현각 스님과의 대담을 통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해도 내적으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낀다. 물질은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공존의 삶과 열린 마음을 강조했다.

진정으로 신념 따르면 종교 붕괴되지 않아

현각 스님: 부처님은 어떤 분이며, 불교는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많은 불자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단지 전통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의식과 의례로 받아들인다.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기독교인과 이슬람인들도 자신의 믿음을 의식과 의례로 받아들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붕괴되고 있다. 종교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따를 경우에는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열심히 공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티베트에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된 경론이 300부정도 있다. 티베트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주석서는 수천 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법에 대한 믿음과 의식, 예를 들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수천 권의 주석서과 인도에서 번역된 300여권의 경론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것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여러 법우님들께 불교공부에 좀 더 집중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경〉이다. '반야경' 이라고 할 때 이름에 '반야' 가 있다. 선정에 관한 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주된 것을 반야경으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주로 '반야' 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 즉 지혜를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듣는 것에서 생긴 지혜' 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 이해한다. 그 다음에는 들은 것에 대해 거듭해서 생각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에서 생긴 지혜' 에 대해서 확신한다. 확신한 의미에 대해서 거듭해서 닦음으로써 처음에는 분석을 가진 경험을 얻고, 그 다음에는 분석이 없는 경험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경우 '닦는 것에서 생긴 지혜' 가 생긴다.

어떻게 해야 조화로울 수 있나

현각 스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달라이라마: 유럽연합의 정신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나라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좁은 마음과 시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비록 동일한 민족,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분리돼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전체적인 시각이 없고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종교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으로 나누어진다. 만약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원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푸른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들은 동일하다. 우리는 동일한 인간으로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70억 명 중의 일부다. 자연재해, 지구온난화에는 예외가 없다. 뉴욕처럼 세계의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각 스님: 우리의 종교와 실천에 대해서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가.

달라이라마: 1979년에 소련을 처음으로 방문해 과학자들을 만났다. 내가 다섯 가지 감각기관 외에 다른 것을 말했을 때, 그 때 근본 마음을 말했다. 그 때 소련의 과학자들은 곧바로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감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과학자들, 예를 들면 미국의 과학자, 유럽의 과학자들은 매우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근본 마음인 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명상할 때 감각기관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지속된다. 그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이 명상할 때 뇌의 변화가 어떤가를 연구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지혜 강조한 '반야경' 가장 중요
"나는 승려지만 수미산 존재 안믿어
논리 · 실험통해 불교 발전 시키자"
인도 논사의 문헌 한글 번역 해야

종교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독특한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오,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신념과 헌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철저하게 따져보고, 연구해보라. 연구하고 따져보고 난 후에 확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용수보살을 포함한 모든 나란다의 지자(知者)는 위대한 사상가이고, 논리학자이고, 철학자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따르지 않고 따져본다.

현각 스님: 우리는 명상과 불교를 웰빙, 행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달라이라마: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 무슬림, 힌두들이라도 불교적인 실천에 대해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명상인 지(止), 인내에 대한 실천, 용서에 대한 실천을 기독교인과 무슬림인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천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교경전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최고로 훌륭한 과학자도 뇌와 감정의 관계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마음과 감정의 체계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절대로 "비신자이라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유해야 한다.

불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논리적

현각 스님: 어떻게 하면 한국불교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전통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달라.

달라이라마 : 20세기 후반 물질적 풍요를 누린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가치는 내적인 평화를 주지 않는다. 매우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풍요롭지만, 사람으로서는 의심, 기대, 두려움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자, 약학자, 뇌과학자들은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마음, 즉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전의 인도전통에서는 지와 관을 실천했다. 본질적으로 마음의 본성, 마음의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불교에서 설명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동안에도 우리 불교도들은 불교가 우리의 고유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워야 한다.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하는 것은 훨씬 견고하다. 그 믿음은 논리적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접근이다. 단지 믿기만 하는 믿음, 전통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 불교도들은 진정한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달마가 무엇이고, 승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그래서 한국의 법우님들이 일상적인 명상을 진행하면서도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란다. 또 한국불교의 가르침은 대부분 중국어로 쓰여진 것일 것이다. 일부 한문으로 된 불교문헌은 티베트문헌보다 풍부한 것이 있다. 몇몇 경우에는 티베트문헌이 한문문헌보다 더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훌륭한 인도논사가 남긴 문헌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번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보다 더 지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도의 2500년의 역사에서 불교와 법은 도전을 받았다. 거대한 비불교의 세력은 몇 가지 불교의 개념에 대해 도전했다. 그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불교논사도 똑같이 도전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21세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와 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사론〉 3장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고, 태양과 달이 비슷한 높이에 있고, 그 주위를 수미산이 둘러싸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는 여전히 불교도이고, 단순한 불교승려다. 하지만 더 이상 수미산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세친(世親)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전히 땅이 평평하고, 수미산이 중간이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체계를 알면, 이유, 논리, 실험을 통해 우리가 불교를 발전시킬 것을 안다면 도전이 있더라도 불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념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만약 신념을 단지 전통으로 받아들인다면 도전이 생길 경우 약간 불편해지고 흔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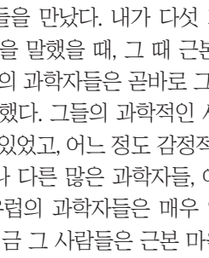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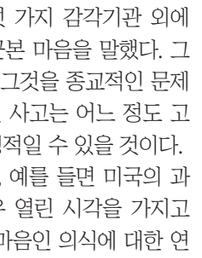
여러분들이 강한 불교적 신념을 가진 것을 찬탄한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인도는 여러 종교의 발생지이고, 그래서 많은 종교는 인도를 기원으로 한다. 오늘날 인도에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서로 배우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할 것이다. 종교 간의 화합과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티베트처럼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종교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믿는 것은 자신의 종교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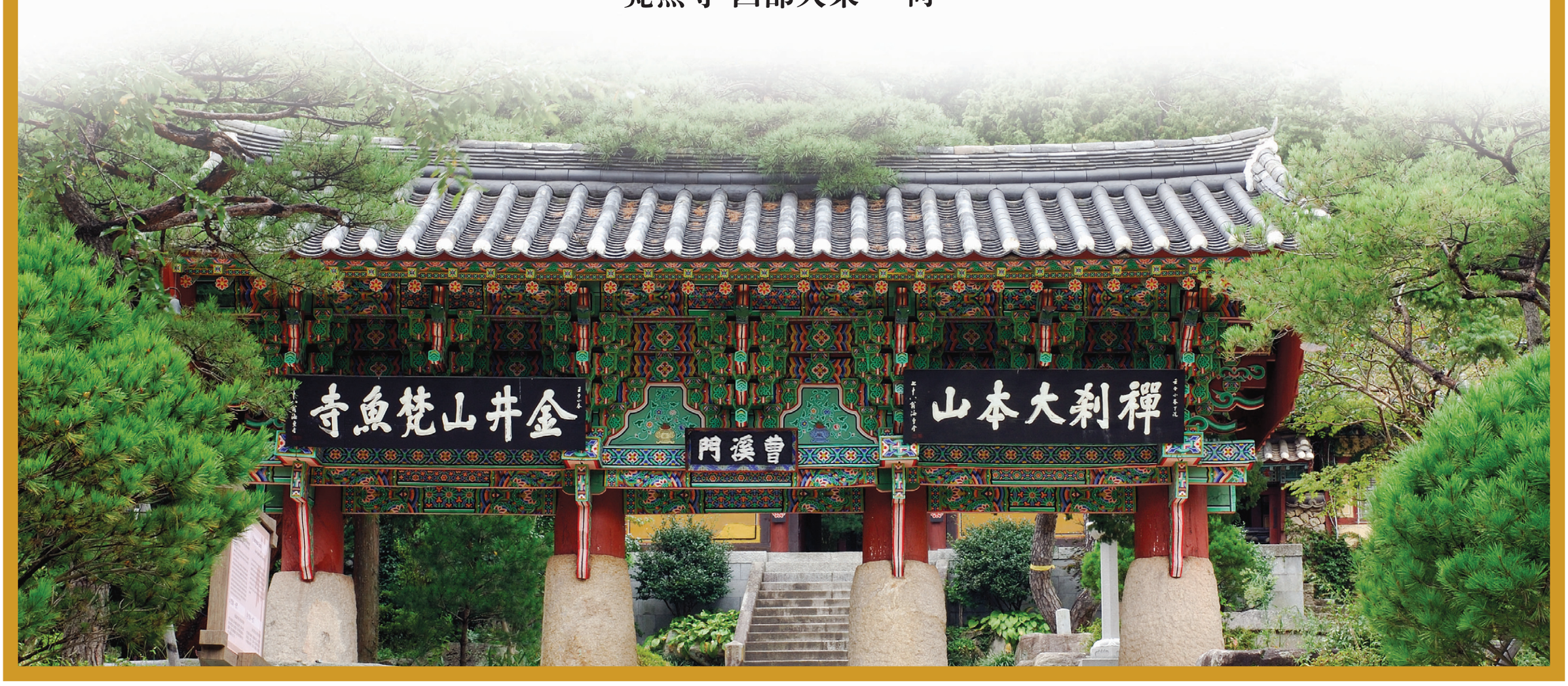
大韓佛敎曹溪宗 第14敎區本寺 梵魚寺 叢林指定

指定日字 : 佛紀2556(2012)年 11月 7日(水)

第14敎區本寺 梵魚寺는 금번 叢林指定을 契機로 創建主 義湘祖師의 華嚴宗旨와 東山大宗師의 禪風을 繼承하여 韓國佛敎의 正法時代를 이끄는 如法한 叢林道場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祖室 知有

梵魚寺 四部大衆 一同



경 범어사 총림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

범어사 신도회장 이윤희외 신도일동

범어사 신도회 · 합창단 · 다도회 · 청년회 · 관음회 · 지장회 · 수월회 · 토요참선회 · 포교사회 ·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총동문회 · 부울경 법우회 · 어린이회 · 중고등학생회 · 금정구청불자회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난초꽃의 웃음을 보았는가

고전 속 난초 이야기

굴원은 고대 중국 전국시대 당시에 초나라의 시인이다. 동정호의 원류인 멱라(汨羅)에 돌을 안고 뛰어들어 자결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를 기념해서 단오절이 생겼다는 일화가 있는 것을 보면, 한국과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시인임이 분명하다.

굴원은 난초를 주체로 시를 쓴 최초의 시인이라고 한다. 그가 쓴 최고의 명문인 '이소'를 보면, 굴원이 사군자 중에 여름을 상징하는 식물인 난초를 얼마나 좋아하는 지 알 수 있다.

"여기자란지구원혜(余旣滋蘭之九畹兮)-나는 이미 구원의 밭에 난초를 키우고 / 우수혜지백무(又樹蕙之百畝)-또 백무의 밭에 혜초도 심었다"라고 한 부분을 읽어보자. 백무라 하면 만평 정도의 밭이고, 9원일 경우 1원을 12무라 치면, 108무니까 만팔백평의 밭이라고 볼 수 있다. 그토록 넓은 밭에 한 줄기에 한 꽃이 피는 난초를 키우고, 또 한 줄기에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사는 존재
내 기분이 꽃의 웃음 만들어

여러 꽃이 피는 혜초를 심었다고 하니 얼마나 난초를 좋아하는 지 알 수 있다.

난초는 예전부터 수행의 일환으로 동양 삼국의 많은 스님들이 즐겨 그려온 기품 있는 그림이다. 근래의 우리나라에서도 송광사 방장이셨던 석사자 구산 큰스님이나 동국대 총장을 지내신 퇴경 권상로도 즐겨 그리셨다고 한다.

그런데 난초를 그리되 웃는 난초꽃을 그리기는 무척 어렵다. 난초가 웃는지 우는지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꽃이 확실히 웃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 새가 울고, 꽃이 지는 것을 듣고 보기는 쉽지만 웃는 꽃이나 우는 새의 눈물을 보기는 실로 어렵다.

옛날 학동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공부하는 〈추구집(推句集)〉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글귀들이 많이 나온다. 〈추구집〉은 주로 옛날 오언시 중에 적절한 구절들을 뽑아 한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책인데, 한시는 대립개념을 묘사한 대구법이 그 생명이고 그 대구법이 문학적인 흥취를 느끼게 하는 묘수이다. 〈추구집〉은 말 그대로 시구 안에 그림이 보일 정도로 예술적인 글들이다.

그 〈추구집〉 안에 '화소성미청(花笑聲未聽)-꽃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 없고, 조제루난간(鳥啼淚難看)-새의 울음소리는 보기 어렵다'는 재미있는 글귀가 있다. 꽃이라는 것은 워낙 예쁘고 향기가 좋은 것이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다.


법관 스님의 '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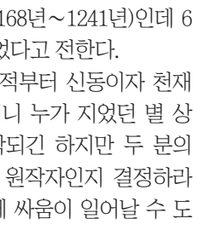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일은 이 시의 원작자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그 중 작자로 추정되는 한 명은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년 ~ 1493년)인데 세살 때 지은 시라는 기록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서사시 동명왕편을 지은 백운거사 이규보(李奎報, 1168년~1241년)인데 6살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한다.

두 명 다 어릴 적부터 신동이자 천재로 이름난 분들이니 누가 지었던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두 분의 후손들더러 누가 원작자인지 결정하라고 하면 문중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사실 육체라는 동굴에 갇혀 사는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꽃들과 나무들에는 화정이라는 요정들과 목신이라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핀 정원에는 수많은 꽃요정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목신들이 나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한다. 〈담마빠다〉의 일화를 보면 목신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의 사대기서인 〈요재지이〉에 보면 모란의 요정이 사람과 함께 생활한 기록이 나오기도 한다.

이 그림은 강릉 능가사의 법관 스님이 그린 난초그림인데, 정식으로 화가수업을 받지 않은 분임에도 환한 난초꽃의 미소를 그려서 깜짝 놀랐다.



수행과 더불어 계행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는 스님이시라 그런지 항상 뵐 때마다 존경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부처님의 깨달음 절정 '삼매도'에

신장식 개인전… 11월 27일까지



35살 나이에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싯다르타의 얼굴은 평온했다.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풀고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길을 나선다.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고자 전법의 길에 나선 부처님. 그는 그렇게 열반할 때까지 길 위에 서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깨달음을 얻은 35살 부처님의 모습이 시공간을 초월한 '삼매'에 담겼다. 불교미술을 총망라한 삼매의 모습을 담아낸 신장식 교수〈사진〉의 개인전이 11월 27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경주, 금강산, 인도, 간다라 미술 유적지 파키스탄까지 불상의 다양한 모습을 11점의 작품에 담아 선보인다.

"이번 작업을 위해 국내는 물론 간다라 미술을 살펴 볼 수 있는 파키스탄부터 인도 티벳 등을 여행하면서 불상의 모습을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그 각각의 형태는 다르지만 저는 그곳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 직후 부처님의 모습이 대부분의 불상에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삼매에 든 부처님 그 깨달음의 절정을 작품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아리랑 금강산 등 한국 전통에 근거한 작품을 그려낸 작가가 불상에 천착하게 된 것은 북한 국보 문화 유물 제 102호로 지정된 묘길상암을 감상하고 나서다. "당시 금강산을 주제로 작업을 할 때였어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마애불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죠. 제 작품의 주제가 한국의 전통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인데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 그 중에서도 불상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죠.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와 깊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정신은 불상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국내외의 불교 유적지 여행은 물론 불교 및 인도철학 영상 강의 48강을 챙겨 듣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조선시대 천체도를 배경으로 간다라 불상을 작품으로 승화한 '삼매'. 불교미술을 총망라한 삼매의 모습을 담아낸 신장식 교수의 개인전 '삼매'가 11월 27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간다라 미술에서 경주 유적까지
삼매에 든 불상 모습 찾아 매진
11점 작품에 부처님 자비 담아

룸비니부터 전정각산, 보드가야, 사르나트, 왕사성, 기원정사, 죽림정사, 대원정사, 쿠시나가르, 날란다 유적과 산치대탑, 아잔타, 엘로라석굴 등을 돌아보고 여러 지역의 박물관에서 불상을 친견한 그는 삼매에 이른 불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하신 부처님의 표정을 읽어낸다. 여기에 광배로 화현한 우주 천체, 경주 남산의 소나무, 돈황의 비천, 조선시대 별자리 등이 배경으로 탄생한다.

특히 간다라 불상에 조선초기의 천체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을 그려 놓고 그 좌우에는 용주사의 범종을 배치한 작품은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의 모습을 신비롭고도 성스럽게 표현했다. 푸른색 바탕의 별자리는 전 우주를 담은 듯하고 생로병사의 고민을 해결하고 전 우주를 안은 부처님의 모습은 평온하기만 하다. 또한 경주 남산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한 칠불암 마애석불 또한 그 자애로운 표정이 자못 성스러움을 더한다. 일본 변지사종의 비천을 양쪽으로 표현하고 촛불공양을 배경으로 한 경주 삼화령의 미륵불은 동자승의 표정을 담아낸듯 맑은 미소를 자아낸다.

50대에 이르러 길 위의 수행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신장식 교수. 그는 지극히 깊은 선정(禪定)에 든 불보살을 작품으로 승화해 또다른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작가 역시 수행자와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 작품으로 옮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불교 작품을 작업해 보고 싶습니다"

불교 성보박물관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신 교수. 그는 앞으로도 불교 유적의 시원을 찾아 그 정신적 의미를 찾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30년 만에 돌아온 '선객' 역사의 옷을 입다

10.27 법난위원회, 뮤지컬 '2015 선객' 공연

10.27 법난을 소재로 한 한국형 뮤지컬 '2015 선객'이 관객들을 찾는다. 조계종 총무원과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공연은 11월 23일~12월1일 창덕궁 소극장에서 열린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 대본을 쓴 이 연극은 1982년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초연 이후 30년 만에 각색돼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작품은 스님의 수행과정을 그린 작품의 원안을 10.27법난의 현장과 통일로 향하는 희망의 발원을 담아 새롭게 재구성해 주목을 끈다.

예술감독을 맡은 이강열 경기대 교수는 "원안은 두 스님을 등장시켜 문답형의 절제된 시적 언어와 동작으로 선(禪)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었다. 파격적인 구성과 범패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삽입, 그리고 깨달음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을 극적 상징성을 더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원작을 상당 부분 개작 '10·27 법난'을 기리기 위한 소재로 불교 대중화를 위한 전통 음악극 형식으로 창작했다"고 전했다.

연극은 총 3막으로 구성됐다. 1980년대 정권에 의한 불교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 안기부 조사실에는 한 스님이 고문을 받는다. 그 시간 또 다른 법사 한 명이 고문을 받는다. 그는 스님 중 한 명을 모함하는 거짓 자백을 강요받는다. 이를 거부하다 심한 고문을 당한 법사는 기억을 잃고 결국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만다. 세월이 흘러 법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일에 한 스님이 방문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뮤지컬 '2015 선객'의 한 장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새롭게 태어난 선객의 변신은 반갑다. 하지만 10.27법난의 상처가 2015년 통일로 향한다는 대의적 주제가 어떻게 뮤지컬로 승화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박종철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박정순, 강승의, 김양화, 유선후 등이 출연한다. (02) 742-7278

정혜숙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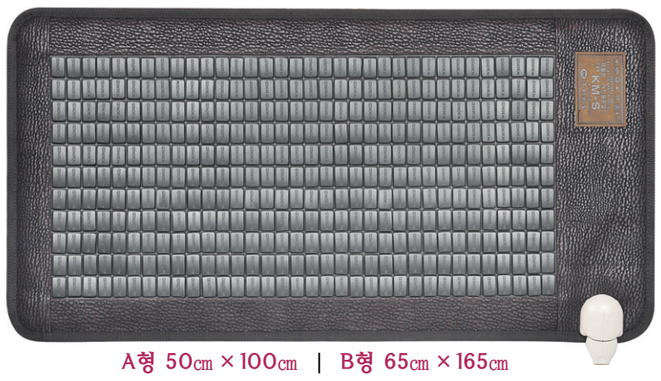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선서화와 도자기가 손잡고 자연을 노래

김양수-가또가츠와 작가 '세상을 품다' 展

"예술이라는 산을 오르다 길 위에서 우리는 만났다. 자연에 귀의한 선승처럼 살아가고자 뜨겁게 두 손을 잡았다"

한국 선화가 김양수 작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와 일본의 도예가 가또가츠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둘의 만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작가가 당시 일본에서 '고요를 품다' 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가또가츠와 작가는 아내와 함께 이 전시를 관람하게 됐고 그의 그림에 반하게 된다. 이렇게 가또가츠와 작가는 그에게 함께 하는 전시를 제안하게 됐다. 2012년의 끝자락 두 작가의 인연은 꽃을 피우게 되었다. 도자기와 선서화, 한국과 일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양수-가또가츠와 작가의 '도자기와 그림의 만남-세상을 품다' 전이 11월 29~12월 2일 일본 나고야 마루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도자기와 한국의 선화가 만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한국의 막사발 기자에몬이도가 일본에서 국보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서 건너간 도자 기술이 일본에서 꽃을 피웠지만 일본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질감과 자연스러운 느낌은 그들에게 존경과 찬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6대째 도예를 가업으로 삼고 있는 가또가츠와 역시 한국 문화 특히 한국의 질그릇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김 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가또가츠와 작가는 한국 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특히 옹기 질그릇 등 그 투박한 느낌을 매우 좋아해서 그 질감을 작품 속에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5점 정도의 그림과 도자기 작품을 선보여요. 도자기를 바닥에 놓으면 벽은 비워 있잖아요. 그 벽을 수묵화로 채우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 세계에 있는 두 작가가 만나 서로의 예술적 능력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자연에서 가져온 도자기와 함께 자연의 느낌을 많이 살린 선서화를 전시한다. 자연의 온기를 품은 그의 먹은

직관과 청빈의 세계 선화로 표현

도예가 가또가츠와와 공동 전시

11월 29일부터 일본 갤러리 마루서

계곡이 되었고 섬이 되었고 산이 되었고 장독 위 귀뚜라미가 되어 세상과 만나게 되었다.

"저는 그림이 한 편의 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독 위 귀뚜라미가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을 표현했죠. 이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삶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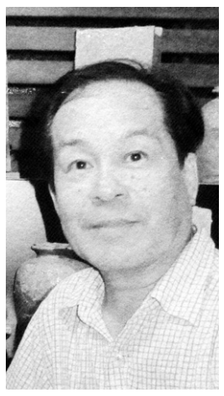
김 작가는 한국의 문화가 서양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은 건축 의상 인테리어 등에서 이미 젠 스타일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선화는 구경하기가 힘들죠. 선화는 직관의 세계, 청빈과 고요를 표현하는 가장 동양적이면서 선적인 그림이죠. 이를 통해 물질 문명에 찌들린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양수-가또가츠와 작가의 '도자기와 그림의 만남-세상을 품다' 전이 11월 29~12월 2일 일본 나고야 마루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림은 김양수 작가(사진 오른쪽)의 '품다'





가또가츠와(사진 오른쪽)는 한국 질그릇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왼쪽 이미지는 작가의 작품 '요변사방연적'.

경기도 안성의 덕성산 적염산방에서 자연과 더불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김양수 작가. 그는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인근 칠장사에 올라가 명상을 하며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고요로 파고들어 직관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난다는 김작가. 그의 새로운 고요를 기대해 본다. (010)6827-876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친 중생에게 자비의 마음 전하고파"

도행 스님의 3번 째 개인전 11월 27일까지 아트센트서



도행 스님의 '사십이수 관음도'

도행 스님의 3번 째 개인전 '도행 불화전'이 11월 21일~27 인사동 아트센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사십이수 관음도' '도반의 향기' '봉황 반자문' '용 반자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십이수 관음도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표현하고자 했다. 도행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해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칼 꽃 약 연꽃 등 다양한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어요. 또 광배 양 옆으로는 해와 달을 배치해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뜻을 표현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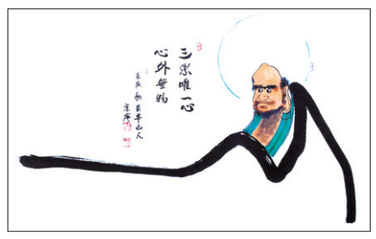
스님은 이밖에도 칠보만다라 법륜 등 다양한 문양을 응용한 여러 장르의 불화를 선보인다.

지리산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에 매진하고 있는 도행 스님은 자신의 그림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스님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마련된 전시다. 천진난만한 동자승의 모습에서 자비로 세상을 내다보는 관세음보살님을 통해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02)736-1020 정혜숙 기자

자비의 바람이 산사에서 불어오네

워싱턴 보림사 경암스님 선서화전 11월 26일부터 나무갤러리서



경암 스님의 '달마도'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이 제9회 국제선서화전을 개최한다. 11월 26~12월 5일에서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경암 스님은 무심의 손끝에서 빚어진 달마도를 비롯 거북 용 코끼리 등 민속화까지 다채로운 그림 60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육바라밀 작품은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작업에 임했다. 나의 작품이 중생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시회를 여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1월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울 국회의사당 전시 이후 불자들을 위해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전시다. 앞으로 스님은 내년 3월과 4월에는 부산과 제주에서, 5월에는 캐나다, 7월에는 일본 오사카 8월부터는 미국에서 순회전을 열 계획이다. 경암 스님은 57년 마곡사로 출가, 84년 워싱턴에 보림사를 개원했으며 미주불교신문의 발행인, 대학에서 선불교 강의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혜숙 기자

개혁의 시대, 로맨티스트는 슬프다

연극 '로맨티스트 죽이기'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를 모티브로 한 연극이 관객들을 찾는다. '로맨티스트 죽이기'가 11월 24일~12월 9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국립극단의 삼국유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로맨티스트 죽이기'는 삼국유사의 원전 설화를 뒤집어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은 진지왕과 도화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공연은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비형이 흥륜사문을 짓는 과정을 배경으로 당시 시대적 모순을 보여주고자 했다.

1500년 전 신라는 당시 귀족 중심 사회였으나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귀족과 왕족의 대립이 심해졌다. 나라 밖 교류가 활발해지며 물신주의가 만연하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며 빈부의 격차가 급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 모티브

신라 흥륜사 문짓기 재구성

격하게 커졌다. 진지왕 '흥륜사 문' 건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현시대의 문제로 재해석했다.

설화에 따르면, 비형은 여우로 변신해 도망친 도깨비 '길달'을 잡아 '축귀(逐鬼)'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로맨티스트 죽이기'에서는 도깨비 '길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배치한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최고 권력자의 양아들이었던 그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도깨비로 인식되었는지, 또한 도망치다 결국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상상해 본다.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를 모티브로 한 '로맨티스트 죽이기'가 11월 24일~12월 9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길달이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던 로맨티스트였다면?, 길달의 꿈과 그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출발한 '로맨티스트 죽이기'의 상상력은 길달을 둘러싼 다섯 인물의 관계와 당시의 사회 권력구조를 풀어내 오늘의 한국 정치, 사회적 문제를 꼬집어낸다. 1688-5966 정혜숙 기자

진각종 청년 밴드 JnB 콘서트

12월 1일…진각문화전승관서

진각종 청년 보컬 밴드 JnB가 2012년 콘서트를 개최한다. J&B소울에서 JnB로 명칭을 바꾼 밴드는 이번 개명을 계기로 좀더 전문성 있는 밴드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12월 1일 오후 3시 진각문화전승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에서 JnB는 클래식 찬불가, 찬불가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사한다.

JnB는 "2004년 결성 이후 8년간 300회의 음성 공양을 펼쳐왔다. 이번 콘서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이름으로 단장한 JnB가 진각문화전승관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청년불자로서 음성공양을 통해 포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JnB는 바람부는 산사, 지혜는 자비를 낳고, 마음에 내린 비 등을 솔로 듀엣 중창 등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한편, 진각종 유가 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12월 1일 저녁 7시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유가합창단은 찬불가를 비롯해 다양한 음성공양을 펼칠 예정이다. 합창제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등이 참석한다.

정혜숙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성의 광명과 증정의 힘
계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中

《다라니의 힘》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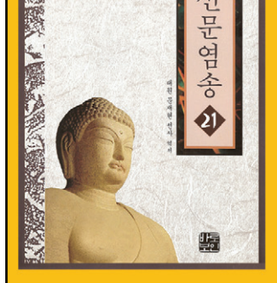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 · 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법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로 불리우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계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1권 출간!
운거, 소산, 조산, 용아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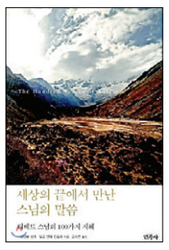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모든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해”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파담빠 상계·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민족사 펴냄
1만3천원



티베트인들은 지금 이순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 간다. 그런 매일 매일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지혜들을 모아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을 펴냈다. 사진은 티베트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모습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삶과 죽음에 대한 편지. 티베트인들은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 이 책은 매일이 행복으로 충만한 티베트인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를 담았다. 한 발 물러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돈, 명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한 친구가 있다. 실제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 책에는 평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진리는 한가지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내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질 때, 현실의 고통과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나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온갖 첨단 기기가 발달해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불행하다. 시도때도없이 날라 오는 스팸성 및 광고성 연락 또는 주말, 심지어 휴가를 가리지 않고 첨단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연락 해오는 직장의 과잉 업무 등 현대인은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다.

티베트 스님들의 100가지 감로 법문
“고결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선업 증대”
삶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 제시

이럴때일수록 지금 현재 우리는 행복한가에 대한 자문만 늘어갈 뿐이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이 행복지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의 티베트인들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행복을 느낀다.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행복으로 충만한 티베트인들의 지혜를 신간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다.

“고결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대의 선업을 증장시키니, 그대의 스승을 따르도록 하라”

“속임수와 거짓말은 단지 남을 속이는 것만이 아닌 그대 자신도 속이는 것이니, 그대의 양심을 증인으로 삼거라” 등등.

이렇듯 이책은 주옥같은 법문들로 가득하다. 특히 보시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생각은 더욱 가슴에 구구절절 와 닿는다. “보시는 언제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자, 노인, 이방인, 친구이거나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거나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자 등 모든이에게 구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보시는 과시와 편애, 보상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책에서 티베트 스님들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인색해지고 욕심도 늘어난다”며 물질적 집착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 “보시는 평등하고 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고.

아울러 계급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도 끊어 버리라고 일침을 가한다. 저자는 지위가 높아지면 종종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먼 옛날 인도의 위대한 성자 파담빠 상계가 티베트 띵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100가지 훈시를 남겼다. 그리고 구전되어 오던 이 가르침을 딜고 켄체 린포체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다.

이 책은 종교, 종파, 인종을 넘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명료한 답이 가득하다. 이 책을 읽으면, 그동안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부작용 없는 해독제와 같다. 또한 현재 자신의 불행한 삶이 불행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티베트 스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자. 책에서 권하는 사소한 실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작은 믿음을 갖는다면, 당신의 얼굴을 더 밝고 환하게 변화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의 특징 비교연구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의 역사

벽공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불교는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남성 지배 사회와 계급사회에서 여성에게 종교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 몇몇 안되는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비구니 교단은 인도에서 성립한 이후, 스리랑카를 거쳐 중국에 전래됐으며, 다시 중국을 통해 한국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이와같이 전해진 삼국 비구니 교단은 수많은 역경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의 연구 목적은, 우선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인도에서 출발한 비구니 교단이 중국, 한국,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었고, 비구니 교단이 정착하기까지 국가나 사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했을까? 비구니 스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활동과 수행을 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은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의 특징을 찾아 비교한다. 비구니 교단의 탄생과 수계 방법, 그 발전과 변화의 흐름을 살핀다. 기존 사상인 도교, 유교, 신도와의 문제와 국가와의 관계도 상세히 비교한다. 비구니 교단의 존재 가치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밝혀냈으며,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의 종류와 깨달음의 내용도 정리했다. 특히 비구니들이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밝혀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주일 기자**

이 시대 부루나 존자 성일 스님 포교 결정체

붓다 콘서트 –부처님 교화공원 이야기 16

성일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9천원



5비구에서 시작된 귀의와 전법. 부처님의 제자들은 2500년이란 세월 동안 불법에 귀의하고, 그 법을 널리 전해왔다. 그 옛날,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전법은 불법의 미래였던 것이다. 책은 그 옛날의 오래된 미래다. 10월 21일 ‘부처님 교화공원’ 불사를 회향한 화성 신흥사의 주지 성일 스님의 책으로, 스님이 조성한 교화공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책이다.

“29년 전에 인도 부처님의 성지를 처음 순례했을 적에 제일 먼저 룸비니 동산을 참배하고 나오는 버스 속에서 두 시간이나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늘 경전에서는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화창한 룸비니 동산에서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팔성성도를 읽었는데, 그 때 인도의 룸비니 동산은 잡초가 무성하고, 마야부인께서 태자를 잉태하는 조각상의 아기 부처님과 마야부인의 석조상의 얼굴이 다 싹싹 깎여 있었다. 이교도들의 짓이란다. 보름 동안 불교유적지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부처님이 나신 나라, 불교가 천 년이나 꽃피웠던 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구나.” 스님은 전법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느끼고 돌아왔다. 스님은 평생 전법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서원했다. 40년 넘게 한 길을 걸었고 스님의 원력은 화성 신흥사에서 꽃피웠다.

책은 부처님 교화공원에 모신 부처님의 교화 사례를 그대로 엮은 것으로,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화 사례 15테마와 〈부모은중경〉의 ‘다생부모십종대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담아놓았다. 책은 작지만 불교의 정수가 담겨 있다. 불교 경전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 뜻 또한 깊고 깊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책이다.

책에는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전한 초전법륜을 비롯해서 야사, 라훌라, 앙굴리마라, 주리판타카, 승만, 수닷타 등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부처님의 교화 사례가 담겨 있다. 어린이 청소년 , 성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열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처님의 외아들인 라훌라를 교화하시는 장면에서는 오늘날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청년 야사를 교화시키는 장면에서는 청소년 교육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앙굴리마라를 깨우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장면, 바보인 주리판타카를 자비심과 인내심으로 이끌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아라한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모습은 도처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 시대의 부조리를 경책하고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큰 힘, 새로운 희망을 준다.



세계 최초로 조성된 신흥사 부처님 교화 공원

신흥사 교화공원 내용 그대로 담아
초전법륜등 대표적 부처님 교화사례 소개

저자 성일 스님은 “우리나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모셔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고 배워서 알아야 하며, 배운 것을 실천하여 너도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워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곳 신흥사에서 혼신을 다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정성을 기울여왔다. 그렇게 하니 성인 포교도 자연히 더욱 활발해졌다. 이제 언제든 누구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부처님 교화공원에서 황톳길을 걸으며 들꽃향기 속에서 자연히 들려오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 감동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서원해 본다.”며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부처님 당시 ‘설법제일’ 이라 불렸던 부루나 존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순교했다. 그리고 미래불로 다시 올 것을 수기 받는다. 부처님 이래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 불법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있음은 그 옛날의 미래불, 부루나 존자가 이 땅에 이미 와 있기 때문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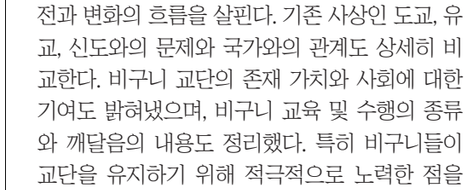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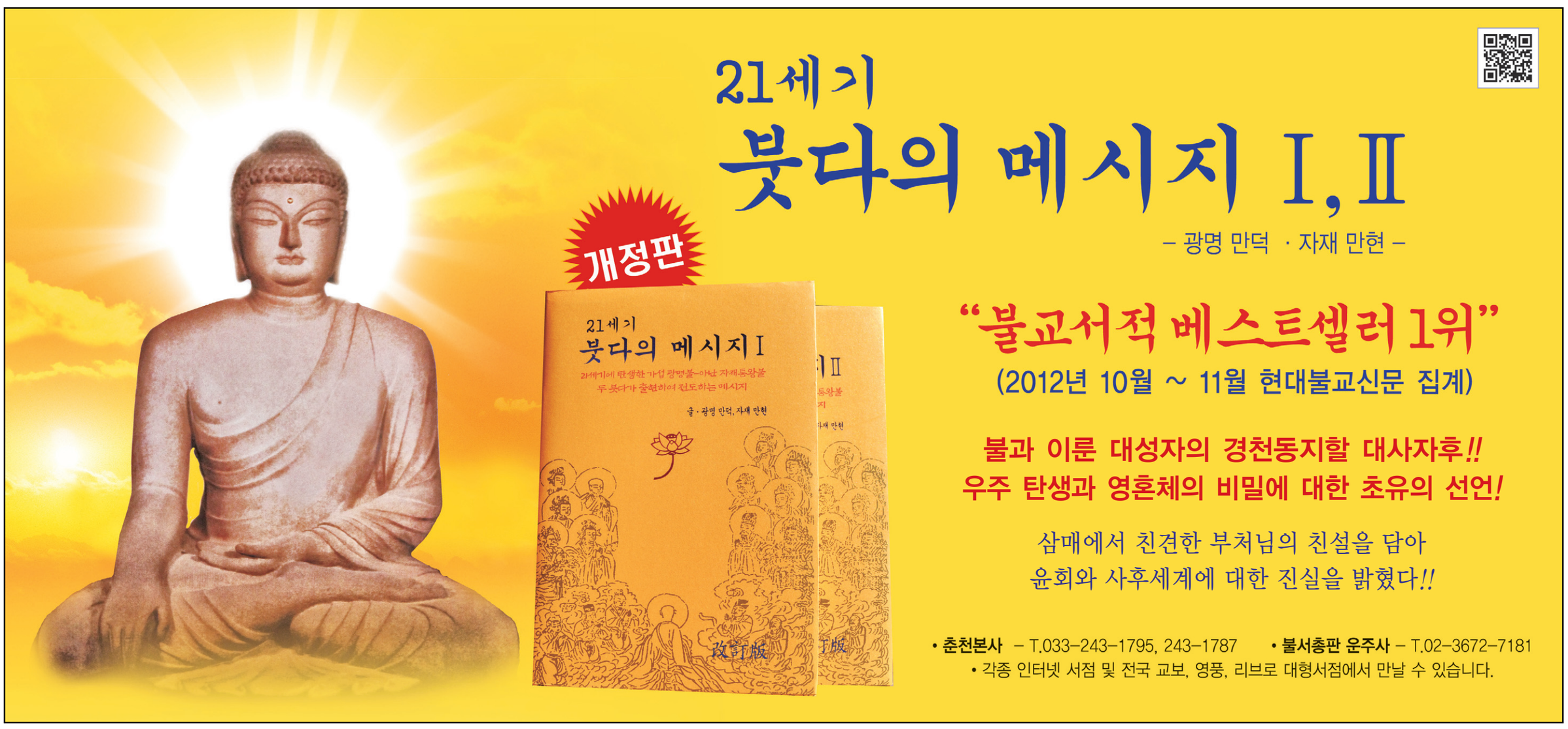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7~11/1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8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진	불광출판사
9	맛지마 니까야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10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스님·신부·목사 머리맞대고 '잡설' 풀어



잡설
도법·김민웅·김인국 공저
가교 펴냄
1만3천원


사진 왼쪽부터 김민웅 목사, 도법 스님, 김인국 신부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스님·목사·신부, 한적한 산사와 예배당·수도원에 있어야 제격인 사람들이 모여 때 아닌 잡설을 펼친다. 잡설이라고 해서 그냥 잡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흔한 단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세상사, 즉 우리 시대를 꿰뚫어보는 촌철살인이라고 해야 옳은 말들이다. 글로 따지면 일필휘지에 천의무봉이다. 잡설은 잡설이되, 그야말로 경구가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생명평화운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불교 갱신에 앞장서온 '도법 스님'과 거대 자본은 물론 부당한 권력과의 싸움을 해온 '김인국 신부', 목회자이자 언론학자로 줄기차게 시대정신을 외쳐온 '김민웅 목사'의 대담은 그렇게 잡설이 아닌 거친 세상을 향한 사자후다.

자살로 시작된 잡설은 이내 '죽음 불감증'에 빠진 한국 사회의 근원적 문제로 진입한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 대열에 내몰리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한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잃어버린 시대는 징후는 암울하기만 하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살 행렬에

자살과 자본 함수 놓고 대담
질타 듣는 종교를 향한 고언도
교육·거대자본·선거 등 주제 다양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국민뿐이다. 우리의 아들·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식하자는 말이다.

"나 같이 무식한 사람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죽어라 싸웠는데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잊혀져가고, 투쟁력은 훨씬 약화되는 상황인데 다시 강력히 투쟁해서 해답을 찾자? 이게 대체 뭔 대책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갑갑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관점과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도법 스님).

한편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자본'에 대한 스님·신부·목사의 잡설은 실로 거침없다. 거듭 자본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지만 후안무치한 자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수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다. 해답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성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의무교육, 즉 학교마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쟁만능의 시장에 내몰린 학교는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를 모종하기 위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MB 정권이다. 자본과 영합한 권력, 특히 MB 정권은 자본을 파트너로 삼아, 아니 당당하게 보호자가 되어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의 처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의무교육이어야 하는데 학교가 그 역할을 안 하지요. 사실 학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모종하기 위해 생겨났어요.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의 학교일수록 폭력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가르치지 않지요. 일제 강점기의 '국민학교'를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교육, 언론이 안 하면 종교라도 해야지요."(김인국 신부).

스님·신부·목사는 스스로가 자리를 펴고 있는 '종교' 영역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잡설을 뿜어냈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세 사람은 한국의 종교 현실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중지를 모은다. "너나 잘 하세요." 기독교이건, 가톨릭이건, 불교이건, 이제 "누가 누구를 대속하고 구원한다는 말이냐"는 것이다. 종교가 세상을 근심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종교와 관련한 대화에는 종교학자 오강남 박사와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가 동참해 교회와 역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김기석 목사는 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회복을 강조한다.

스님·신부·목사의 잡설은, 잡설이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잡설이다.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를 일신하는 고갱이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색창연한 고담준론만을 되뇌, 뒷짐 지고 세상만 질타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폭력 앞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잡설은 실상 우리 사회를 후려치는 죽비소리에 다름 아니다. 일상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늘을 영원에 비춰볼 수 있는 스님·신부·목사의 잡설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

17세기 조각승 유파와 그들의 작품 설명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송은석 지음 | 사회평론 펴냄 | 3만2천원



이 책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다섯 개의 조각승 유파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한국 불교조각사 최초로 조각승을 유파별로 정리하고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수조각승 헌진과 청헌, 응원과 인균, 수연, 법령, 무염이 이끌었던 다섯 유파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양식을 발전시켜 불상들을 대량으로 조각해냈다. 개별 창작자를 넘어 집단 창작 체계를 구축한 조각승 유파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조선시대 중반, 임진왜란이라는 재앙이 전 국토를 휩쓸고 지나갔다. 전쟁이 끝나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적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때 사찰도 함께 재건된다.

이때 대량의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은 조각가도 기능공도 아닌 승려였다. 전문적으로 조각만을 하는 장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록에는 이들을 화원(畵員) 혹은 화사(畵師)로 칭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직업은 승려였다. 현대 학계에서는 이들을 조각승(彫刻僧)이라 부르고 있다. 대량의 불상이 동시에 필요했던 시대적 상황은 당시의 조각승들로 하여금 공동 작업이라는 작업 방식을 채택하게 한다. 조각승들이 집단을 이루어 돌아다니며 공동으로 불상조성 작업을 한 것이다. 이 집단은 수화사(首畵師)로 불리는 우두머리 조각승 아래 차화사(次畵師), 그리고 일반 조각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화사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감독으로, 가장 중요한 밑그림 그리기와 마무리 작업을 맡았다. 수화사가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차화사 및 나머지 조각승들이 수화사의 감독하에 전체 통나무를 깎아 몸체를 만들었다. 그 후 얼굴, 다리, 옷주름 등 부분조각을 마치면 마지막에 수화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 후 작업을 완성하였다.

마치 마스터는 작품을 수주받고, 작품의 얼개를 구성하고 밑그림을 그리면 제자들이 물감을 개어 채색 작업을 도왔던 서양의 작업공방처럼, 17세기의 조각승들은 집단 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다.

수조각승 아래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각승들은 자연스레 수조각승의 작풍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조각승 집단의 유파가 성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미술사에서 그 구체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작가 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1610년대에 현진·청헌을 수조각승으로 한 유파의 성립을 시작으로, 응원·인균파, 수연파, 법령파, 무염파, 이렇게 다섯 유파가 17세기 전반에 확립되었다.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 3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컸던 작가 그룹-유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량의 불상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당시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주어져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저자가 조선시대 불상에 대해 연구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십여 년의 연구 기간 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

임란후 대량 불상 조성 필요
조각승들 공동 불상 조성 작업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새 접근

아다니며 직접 불상을 확인하였다. 저자가 조사한 17세기 불상은 수백여 점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조각승 유파의 계보를 완벽히 밝혀 책에 실은 것은 총 142점이다. 이 결과물을 얻기까지, 수백여 점의 개별 불상 양식을 정리하고 그 안의 복장발원문을 모두 옮기고 해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특히 복장발원문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과 함께 오랜 시간 석문한 끝에 조각승 유파의 계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촬영한 방대한 양의 불상 사진 역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다. 정면과 측면을 고루 촬영한 192컷의 도판을 보여주고 일일이 해설함으로써 유파 간의 특징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한 유파별 양식을 기준으로 발원문이 조사되지 않은 불상들까지도 조각승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17세기 조각승 유파와 그들이 조성한 불상에 대한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김주일 기자

행복 꿈꾸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글 덕일 스님 | 사진 윤창호 | 작은 숲 펴냄 | 1만3천원



BTN 불교 TV에서 방영한 '금강경 생활법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으로 알려진 덕일 스님. 최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 선원을 열어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하고 있다. 불자들에게는 인생 멘토로서 이미 알려진 스님이다.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는 책 제목부터가 신선하다. '시대를 초월한 덕일 스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멘토링'이라는 부제도 눈에 띈다. 성공, 행복, 멘토링…… 지금 시대의 키워드들로 채워진 책 표지에서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의 고뇌와 번민을 풀어 주는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을 쓴 덕일 스님은 도시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에서 법문을 한다. 스님의 법문을 펼치는 사홍선원은 경치 좋은 국립공원의 산사가 아니라 어쩌면 허름해 보일 수 있는 도시 상가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BTN 불교 TV의 생활법문을 통해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으로 크게 알려진 뒤로 전국 주요도시(서울, 부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에 선원을 열어 도시의 숲속에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 책은 알 듯 말 듯한 용어로 가득 찬 철학서나 일반적 종교서가 아니다. 곁에 두고 누구나 쉽게 틈틈이 읽으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경전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자식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어려움, 학교 폭력, 부부 문제, 고부 갈등 등 치명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읽혀져서 그들의 지독한 통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펼친 스님의 98개 생활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일 기자

참 곱게 늙은 인생 멘토, 옛 그림

그림공부 인생공부

조정육 지음 | 아트북스 펴냄 | 1만6천원



'옛 그림은 사마천의 〈사기〉다'라는 생각으로, 한중일 삼국의 옛 그림에서 찾아낸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사기〉가 인생을 공부하는 데 훌륭한 지침서가 되듯이, 사람살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옛 그림 또한 인생의 등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옛 그림은 속 깊은 멘토다. 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탱화, 불화, 우키요에 등 멘토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대인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지은이의 옛 그림 읽기는 내면을 직시하며 삶을 확장시키는 인문학적 그림 읽기다.

저자의 옛 그림 사용방식은 특이하다. 옛 그림을 이야기하되, 그 시대와 화가와 작품에 얽힌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모란꽃을 보여주면서 모란꽃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모란꽃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감상 주체인 자기 삶을 통해서 옛 그림과 만난다. 그것도 사계절을 나면서 일상에서 부딪치며 겪은 소소하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독자는 옛 그림과 일상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옛 그림이 고리타분한 유물이기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도 저자처럼 얼마든지 옛 그림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 수 있음을 일깨우려 노력했다. 오랫동안 옛 그림의 권위에 주눅이 들었던 독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림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한 것이다. 옛 그림도, 결국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산 옛 사람들이 자기네 삶에서 길어낸 '지혜의 경전(經典)'이라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살이의 발견으로, 옛 그림을 인생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다시 보기 시작한 셈이다. **김주일 기자**

改名公告

무무암(강원도 횡성) 회주 覺雲은
2012년 11월 21일 부로
법명 覺雲을 無山으로 改名함을
제방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무암 회주 無山 합장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15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강의
11월 27일(화) 오후 3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안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서울에서 유명한 작명소 ▼ goodname114.com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실용의식 : 1 천수경
2 상단, 각단예불
3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 법 무 : 1 천수바라
2 화의재바라
3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3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010-4746-6581.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의 관음보살이 조신을 교화한 까닭은?

꿈을 통해 인간세상 덧없음 알려

1. 관음사상의 신라적 정착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열 가지 악을 '참고 견디는 곳' [忍土]이라는 뜻에서 사바(裟婆, 堪忍)라고 한다.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듯이 아픔을 느끼는 이들이 사는 곳이 사바세계다. 만일 중생이 다하고 환자가 다하면 그곳은 이미 극락이요 정토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과 환자를 고칠 대의왕(大醫王)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있기에 거기에 부응하는 구제자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보살은 붓다의 자비와 지혜 및 덕행과 원력 등을 의인화한 존재이지만 중생에게는 실존적 존재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살들은 중생들의 물리적·심리적·정신적 병들을 낫게 해 주는 순간 이내 사라진다. 이미 자신의 기능과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다.

관음신앙은 붓다의 자비의 화신인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이다. 관음신앙은 서진의 축법호가 번역(286)한 『정법화경』(10권)의 「광세음보살보문품」(제23품)에 의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광세음신앙'으로 전개되었던 이 신앙은 구마라집(344~413)이 번역한 『묘법연화경』(7권)의 「관세음보살보문품」(제25품)에 의해 비로소 '관세음신앙' 혹은 '관음신앙'으로 정착하였다. 여기서 빛을 뜻하는 '광'과 '봄'을 뜻하는 '관'은 술어는 다르지만 중생 구제의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관음신앙은 영험과 영응에 기초하면서 중국 민간에 빠르게 퍼져갔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보문품경』 혹은 『관음경』으로 유통되면서 관음보살의 명호를 지송하는 신앙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왔다.

통일 이전 신라의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설하는 순수한 관음신앙과 그 영험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중생이 갖은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지니고 이름을 부르며 늘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예배 공양하면 곧바로 고통과 고난을 구제하여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아들 얻기를 바라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자주 원용되었다. 이를테면 자장(慈藏)의 아버지인 소판(蘇判) 무림(茂林)은 아들을 얻기 위해 삼보에 귀심하고 관음상 천부를 조성하여 서원하였더니 4월 8일 불탄일에 그를 낳게 되었고 이름을 선종랑(善宗郎)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그 이후 낙산사의 창건연기에 나타난 것처럼 『법화경』에 기반한 관음신앙은 『화엄경』에 기반한 관음신앙의 일면까지 수용하여 신라 관음의 신앙적 정착으로 굳건하게 확립된다. 하지만 신라의 관음신앙은 '일심칭명 예배공양에 의한 구제'와 '관음의 자발적 내현(來現)구제'로 대별된다. 일심칭명 예배공양에 의한 구제는 경전에서 설하는 것처럼 지송(持誦)과 예념(豫念)에 의한 영험은 조건적 구제이지만, 관음의 자발적 내현구제는 '무조건적 무연(無緣)자비의 영응(靈應)'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는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신라 관음신앙의 독특한 창의성과 특수성을 엿볼 수가 있다.

2. 관음 후신 정취보살의 신라 상주

낙산사의 연기설화에 의하면 입당(入唐) 구법(求法)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義湘, 625~702)이 양양 낙산의 해변 굴 안에 관음진신(觀音眞身)이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서역의 보타락가산(寶?洛迦山)의 이름을 따서 낙산(洛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의상은 7일간 목욕 재계하고서야 비로소 굴 안에서 관음진신을 친견하게 되었으며 그 지시에 따라 산 위에 전당을 짓고 관음소상을 모셨다. 그리고 의상은 이곳 낙산을 신라 관음진신의 상주도량으로 삼았다. 이제 이곳의 관음은 서방극락세계에 상주하면서 아미타불을 협시하는 무량수불국 보살로서의 관음이 아니며, 인도 남해안의 보달락가산(光明山)에 머물고 있다는 『화엄경』 설의 관음과도 다른 신라의 관음보살이다.

신라의 관음보살은 이 땅 해동 낙산의 해변석굴에 항상 머물러 있으며 이곳이 진신의 주처임을 성사 원효(元曉, 613~686)를 등장시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즉 당대의 고승이었던 원효와 의상이 모두 이곳 낙산의 관음주처인 해변석굴에서 관음보살의 응현을 만남으로써 신라의 관음도량을 직접 열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의 관음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응현하여 인연이 있는 신라인을 구제하고 이롭게 하였다. 그 예는 『삼국유사』의 관음 응현 및 영험 사실들에서 두루 확인되고 있다. 경주 남항사의 십일면관음화상(十一面觀音畵像)은 스스로 비구니의 몸을 나투어 신문왕 때(681~692)의 국로(國老)였던 경흥(憬興)을 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였다. 또 백율사 대비상은 사문의 몸을 나투어 이국땅에 잡혀간 국선 부례랑(夫禮郎)과 안상사(安常師)를 구해 왔다. 그리고 분황사의 천수대비화상은 가난한 여인 우조(憂助)의 눈 먼 딸의 눈을 뜨게 하였다.

관음보살을 친견한 원효와 의상에 이어 낙산사에 주석한 범일(梵日, 810~889)은 정취보살을 만났다. 정취보살은 관음과 함께 아미타불을 협시(挾侍)하는 대세지(大勢至)보살이다. 이 보살은 『화엄경』「입법계품」에 의하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난 선재동자가 28번째의 관음보살에



낙산사 해수관음상. 낙산사 관음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던 조신은 40년의 꿈을 통해 인생이 무상함을 깨닫고 서울에 정토사를 세운다.

신라 관음신앙은 수행 통한 자기 구제 성격 강해
범일 스님 일화서 관음보살 후신 신라 상주 드러나
조신 설화는 제행무상 터득케 하기위한 신앙 발현

이어 29번째에 만난 보살이다. 범일은 당나라 명주 개국사(開國寺)에서 승려들의 말석에 있던 왼쪽 귀가 없는 한 사미를 만났다. 사미는 말하였다. "나는 고향 사람입니다. 집이 명주(溟洲) 경내 익령현(翼嶺縣) 덕기방(德耆坊)에 있으니 법사께서 후일에 본국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제 절을 지어 주소서." 이후 공부를 마친 범일을 신라로 돌아가 굴산사(堀山寺)를 짓고 불교를 전파하였다. 어느 날 꿈에 개국사에서 봤던 사미가 창 앞에 와서 말하였다. "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법사와 언약이 있어 이미 허락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범일이 놀라 깨어 수십 명을 데리고 가서 익령현 경계에 가서 사미가 살던 곳을 찾았다.

낙산 아랫마을에 사는 덕기(德耆)라는 여인에게 여덟 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늘 동리 앞 돌다리 밑에서 나가 놀면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느 날 "나와 같이 노는 아이 중에 금색 동자가 있어요"라고 한 사실을 범일에게 전하였다. 범일은 놀라고 기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놀던 다리 밑의 물속에서 석불 하나를 주웠다. 석불의 모습은 왼쪽 귀가 떨어지고 예전에 보았던 사미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 불상은 정취보살의 존상이었다. 이때 간자(簡子)를 만들어 절지를 터를 점치자 낙산사 위가 좋다고 나왔다. 이에 범일은 세 칸짜리 법당을 짓고 그 불상을 봉안하였다. 여기서 범일이 만난 사미승은 스스로 신라인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것은 관음보살의 후신인 정취보살이 신라 불국토에 상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조신의 꿈과 무상의 자각

승려 조신은 본사(本寺, 興教寺)에서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는 농장인 장원(莊園)의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다. 어느 날 그곳에 온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사모하게 되었다. 때문에 여러 차례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어주기를 남몰래 빌었다. 그러기 수년 뒤에 그 여자는 배필을 가지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않음을 원망하여 슬피 울며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심정이 노곤하여 잠깐 졸았다. 꿈에 갑자기 김씨 낭자가 조용히 문으로 들어와 웃으며 말하였다. "제가 일찍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서 마음으로 사랑하여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만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지금도 소원하여 죽어서 같은 무덤에 들어갈 벗이 되고자 왔습니다."

이에 조신은 미칠 듯이 기뻐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년을 재미있게 살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두었다. 하지만 점차 가난하여져 집이라고는 네 벽뿐이요, 나물 먹는 것도 넉넉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른 도리가 없어 서로 이끌면서 사방으로 다니며 입에 풀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십 여 년 동안 초야에 떠돌다 보니 옷이 메추라기 깃처럼 되어 살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마침 명주 해현령(蟹縣嶺)을 지나다가 열다섯 살 난 큰 아이가 갑자기 굶주려 죽으므로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우곡현(羽谷縣)으로 가서 길가에 띠풀을 엮어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마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자, 열 살 된 딸애가 돌아다니며 밥을 구걸하다가 동네 개에게 물려 아파 울부짖으며 드러눕자 부모로서 한숨 짓고 탄식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으며 창졸간에 말하였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던 때에는 얼굴도 아름다웠고 의복도 깨끗했지요. 맛있는 음식을 당신과 나누어 먹고,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옷을 함께 해 입으며 50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정도 막역하게 들었고 사랑도 깊어졌지요.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지만 근년에 늙고 시약해져 병은 해가 갈수록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심해져 오는데, 방 한 칸, 국 한 그릇도 남이 빌려주지 않으니 이 집 저 집 구걸하는 부끄러움이 산보다 무겁고, 어린 것들의 춥고 주림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부부간이라 하여 사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젊은 날 고왔던 얼굴과 웃음도 덧없는 풀잎의 이슬이 되었고, 지란(芝蘭) 같던 언약도 바람 앞의 버들개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 더 누가 되고, 나는 당신이 있어 걱정이 더욱 많습니다. 생각건대 옛날의 기쁨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의 우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 마리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고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버리고는 편안할 때 따르는 것이 인정상 못할 일이지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헤어지고 만남도 운명에 있는 것이니, 청컨대 여기서 헤어집시다."

조신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각기 아이 둘씩 갈라 맡고 가려하는데 여인이 말하였다.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헤어져 길을 가던 중에 홀연히 꿈을 깨니 조그마한 등불만이 어스름하게 비치고 밤은 벌써 깊었다.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마침내 마음이 망연하여 세사에는 뜻이 없고 삶에 염증이 났다. 마치 한 평생의 괴로움을 다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얼음 녹듯 하였다. 이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관음보살상을 바라보며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蟹峴)에 묻었던 아이 무덤을 파보니 바로 돌미륵이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근처 절에 봉안하고 서울로 올라와 장원 소임을 사임하고 사재를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 착한 일[白業]을 부지런히 닦았다. 그 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신라의 관음보살은 꿈을 통하여 인생이란 일장춘몽(一場春夢)이요 남가일몽(南柯一夢)임을 보여줌으로써 승려 조신으로 하여금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체득하게 하였다. 일연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이 전기를 읽고 책을 덮고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이 그러하리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간세상의 즐거움만 알고 기뻐하여 애쓰지만 다만 꿈을 깨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찬시를 지었다. "즐겁던 한 시절 뜻은 이미 한가하고/ 시름 속에 묻힌 몸이 시나브로 늙었으라/ 한 끼 좁쌀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하리/ 인생살이 꿈결인 줄 내 이제 알았노라// 몸닦음 잘잘못은 먼저 성의에 달린 것/ 홀아비는 미인을 도둑은 창고를 꿈꾸네/ 어찌 가을 날 하룻밤 꿈만으로/ 때때로 눈 감아 청량산에 이를거나." 관음과 정취 보살이 깃든 낙산사에서 조신은 '그리운 정에 지쳐 ' 잠깐의 졸음 끝에 든 긴 꿈' 의 욕망에서 깨어난 뒤 서울로 돌아가 정토사를 짓고 선업을 쌓으며 살아갔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김영태, 『한국불교사정론』(불지사, 1992).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극락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 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걷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五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 오금희, 육단금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월요일 17:00 2.금요일 08:00 3.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우네. 자신도 스스로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의지처가 될 것인가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직접상담합니다.
개인지도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고장신령이 내린 영법사 경문

축원경,해원경,신장경,
대감경,동자선녀경,성주경,
기타 등 전수받을
고장법사 분 문의
010-3123-1325
육관법사

오랫동안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 천도재를 여러번 해도 효과가 없는 분. 각종 기도해도 안되는 분.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 분. 상담 후 고쳐 드리겠습니다

(대원사)
010-4646-7633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허리병 고치는 법

저 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빙의(특히 신에게 고통받는 중생)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 병)
- 아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 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경기 이천 장호원)
011-729-6011

부전스님 모심 전통염불 배울 처사 구함

(마산)
010-3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댐 부근)
010-9506-5706

조용한 사찰에서 스님 시봉을 오랫동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010-2125-1773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397-88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귀포 정방사)
02)732-3920
010-5219-7021

지리산 깊숙히 자리한 암자에 스님과 수행 할 나이 40~60대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3573-3751

사 찰 관 리

재(49재, 천도재)
불공 능숙, 법당관리
공양 無 (선식수행)
010-5316-1054

공양주와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와 법당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는 상담 후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033)682-8100
(야간) 010-8879-8400

심 와 기 도

• 삼생에서 쌓인 업을 씻어내는 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50대 후반 비구승입니다. 스님이 계시지 않거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에 상주하고자 합니다.

010-4668-1284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북 문경 쌍용사)
010-8819-8988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9332-1719

적은 보시금으로 산사 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실 노스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웰강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염불과 법문을 해 드립니다.

(창녕읍 포교당 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연락주세요)
010-8396-4338
무유스님

도심 속 아담한 사찰에서 수행 할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 비구 비구니 예비스님(행자) 인연을 기다립니다.

주지합장
010-6528-1234

부 전 자 리 구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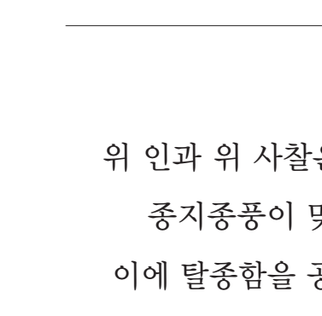
(동국대 대학원졸, 전직교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상담하여
제 절처럼 관리하겠습니다.
서울 010-5012-527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청동 비로자나부처님



[금강계, 태장계]
두분 (각 10자)
모실 수 있는 인연,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3562-5556

청정한 남해바다 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 무병, 정신병, 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10-3565-0492
041)855-3492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항암에 상황버섯과 + 블로초의 +
영지버섯이 + 숙취제거의 인진쑥과 +
소화력의 칡이 만났을 때
완성품(1팩= 1500원)
1박스 = 50팩(봉) => 75,000원
1박스 = 100팩(봉) => 150,000원
상황버섯 1kg = 12만원 (이메일 2880367@hanmail.net)
010-5615-0367
010-5669-0367

탈 종 공 고

• 법 명 : 妙漣 (묘련) 백정옥 (白貞玉)
• 주 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496-2번지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개안사 (開安寺)
• 주 지 : 연광(蓮光) 전영옥 (全英玉)
• 주 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496-2번지

위 인과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륜정사
• 주 지 : 德玄(덕현) 成順子(성순자)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61-10

위 인과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사찰만 탈종합니다)

• 사 찰 명 : 도명사
• 사찰주소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산 108번지
• 대 표 자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길 63
• 성 명 : 권택근
(전화 061-271-8790. 010-6255-0382)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90평
- 가액 : 7억5천 (웅자3억포함) 주차 수십대 가능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극락전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 대지 154평
- 법당 15평
- 산신각 3평
- 방4,주방,
- 주변경관 수려함
- 가액: 1억5천만원

010-8585-138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시장(조방앞)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2번출구(5분) 버스는 중앙시장 앞 하차 (1분)
- 4층건물 중 2층 (25평)
- 전세 : 5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절충가능)
- 법당내부 : 삼존불과 신중탱화, 산신, 용왕탱화, 영단, 인등
- 기도, 법회, 상담의 최적지입니다.
- 몸만 오시면 모든 물품 그대로 인수 (시설비에 포함)

010-2848-363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0평(5층중 4층)
- 보증금:1,300만원 월세:120만원
- 시설비, 보증금 6,500만원
- 방2, 옥탑방 2(옥탑사용)
- 현재 법회중(학업사정으로 급양도)

010-3142-3540

암자안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349-13번지 마산에서 10분거리
- 삼존불 및 시설 일체 구비
- 촌집, 법당, 주지실, 공양간 창고
- 1년세 120만원

010-3869-166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2동 (하이마트 건너편)
- 독채: 법당(18평) 방 4개, 창고 1
- 아미타불(동불석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영가단탱화, 산신각, 용왕당, 법당집기 일체
- 지하철, 시내버스 1분거리(교통편리)
- 현재 법회중
- 시설비 : 이천오백만원(약간절충)
- 보증금 : 천오백만원 월 35만원

010-3783-3606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오곡동
- 시내버스 도로 인접
- 도로 있음. 입구와 도로 접
- 도심 사찰 및 요양원 적합
- 평수 : 724평

010-4741-4158

포교원안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료 연 35만
- 사용대지 공동 약 100평, 관련대지 368평
- 건물 : 단층 독채 약 32평.
- 개인 등기 필
- 내용: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법당넓고 생활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 6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7억 5천

010-2503-0776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강남면 화리 산43번지
- 임야(산) 약8000천평
- 앞에 마을이 보이고 양지밝아 요양시설, 절터로는 명당임
- 가액:8천만원

011-9583-31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역 부근
- 평수 70평, 상가건물 2층, 시설 A급
- 대웅전, 삼존불, 방3, 주방
- 보증금 2,000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시설 :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 안내

010-5622-4589

포교원(급)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3층 90평
-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시설완비, 15년 이상된 포교원, 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떠남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3679-1080

사찰요양터 안내

- 위치 : 포항시 부근 도로접
- 마을 뒷산 (울타리 모양 대숲으로 이루어짐)
- 평수 약 1480평 (평당 42만원) 외 하천부지 약 700평

010-2794-5368
054)261-1104

도심속의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3억3천만원 (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732-5237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 약 60평 • 포교원 최요지
- 삼존불, 탱화, 신중단, 소불 200불가량
- 총가액 7천만원
- 이민관계상 급 처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889-5040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즉시법회가능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암 자 안 내

국화꽃 향기 가득한

암자

몽땅 9천 5백만원

위치: 대구

010-8861-1785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6317-586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2000만원

051)506-403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금오산자락임
- 면적: 실면적:634평(2,095㎡)
- 가용면적:약 1000평(도로부지300평 포함)
- 특징: 현부지에서 지리산 천왕봉 자락이 맑은 날 육안으로 보임
- 광양만경제특구 진입도로 예정지로 유동인구 증가예상
- 가액: 6억 5천만원(가격절충가능) 원매자 직접 양도

010-7145-1083
010-6255-2431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 북부동
- 전세 5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합해서 5,500만원
- 평수 90평, 3층 건물 중 3층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 용궁, 후불 등 부처님 모셔져 있음
- 법당 외 방 5개, 소불 200불

011-9556-8413
010-8384-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초계면 삼거리 잘하실분
- 3층 180평, 대지 350평
- 산아래 2차선 3거리 (권율장군 역사공원 예정지앞)
- 가액: 2억 8천만원
- 주인직접

010-2708-18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원 IC 칠서 5분거리
- 평수 72평, 요사채 35평
- 법당 20평 (2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2억 2천만원 (가액절충)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함

010-6317-322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산사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9억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2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 100평
- 종각 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포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 55억. 꼭 필요하실 분만 연락. 전월세 가능

011-1703-277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시설: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닷찝
- 800년된 김교각스님상(350년된 좌우협시동자동녀상)
- 200+150=고, 신중탱화, 산신각 , 350년된 동자상
- 에어컨 80평, 용등 3대, 온풍기 80평 용등난로다수
- 시설비 1억 2천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 85만원

010-4719-53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 건평 70평(입법당 20평, 방 6개, 화장실 3, 공양간 2)
- 신축과 같음
- 텃밭 200평, 주차 10대 • 전철 온천 근접
- 주변 산, 대로변 버스정류장, 도보 2분거리
- 보증금 5천만원 / 월 50만원 (양도가능)

010-6559-0913

동굴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소재(대구시에서 15분거리)
- 총평수 10,500평 , 대지 2500평
- 맥반석 동굴법당 110평(약사여래불)
- 맥반석 동굴법당 70평 (오방불)
- 천연맥반석 와불상, 거북바위, 맥반석돌탑 108기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연못, 컨테이너1동, 팔각정 2동, 종무소
- 사철 계곡물이 사찰을 끼고 흐르는 청정도량
- 영화 촬영지로 선정된 도량
- 가격절충가 (대출도 가능)

011-809-7434 (주인직접)

수행정토 • 터

- 위치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이지만 밭으로 관리지역임(금강송 천그루 식재)
- 산 정상까지 묘 등과 주변 송전 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건립부지 정리 완료
- 총 5,300평(평당 63,000원) (명당지 방문 요망)

016-573-2032

사 찰 안 내

- 성지중의 성지
- 전통사찰
- 원력이 큰분만 요망
- 풍수상 명터
- 인물도 많이 배출 성지
- 7600평
- 가액: 15억

010-3273-8123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도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펴 나가라. – 잡아함경 –

마음챙김 명상과 서양의학의 접목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프로그램

"원인 변화시키면 미래 달라진다"

존 카밧진 박사 다보법당서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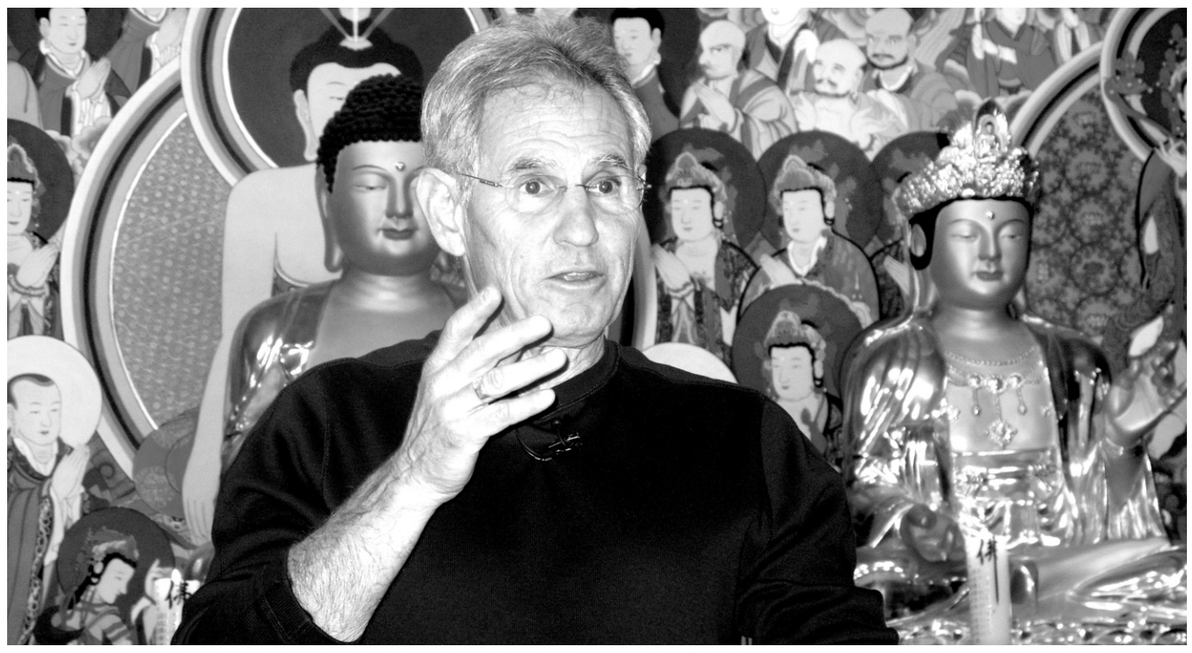
한국심신치유학회(회장 안희영)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10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법당에서 세계적인 심신의학 프로그램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indfulness-Based-Stress Reduction, 이하 MBSR) 창시자 존 카밧진(Jon Kabat-Zinn) 박사를 초청, 특별강연 시간을 마련했다.

카밧진 박사는 "마음속에서 인지적으로 색 · 형상을 만들면 그곳에 형상이 있고, 인지적으로 공(空)을 만들면 마음속에 공이 있다"며 "단지 한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이름과 형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 이나은 기자

MBSR 프로그램은

동양의 마음챙김 명상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것으로 1979년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임상연구가 많고 정평있는 심신의학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MBSR의 근간인 마음챙김은 본질적으로 주의력 훈련이며 카밧진 박사는 마음챙김을 독특한 방식인 △의도적 △비 판단적 △현재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존 카밧진 박사는 11월 10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법당에서 특별법문을 통해 " 종교적인 틀을 뛰어넘는 MBSR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루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존 카밧진은 …

매사추세츠 주립대 의과대학 소속의 의료, 건강돌봄, 사회에서의 마음 챙김을 위한 센터(CFM, 미국 MBSR본부)의 창립대표다. 매사추세츠 의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완화(MBSR)프로그램 창시자다. 1971년 MIT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샐바도르루리아 박사 문하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고 1960년대부터 명상, 요가 등을 수련하면서 폭넓은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974년부터 숭산 스님을 만나 한국식 참선을 배우고 보스턴 근교 캠브리지 선원에서 수석 지도자로 지도를 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대표저서로는 〈마음챙김과 자기치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등이 있다.

사성제…의료과정 닮아

MBSR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법(法, Dharma)의 핵심을 주류의 의료보호 체계 속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33년이 지난 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8주간 MBSR을 거쳐갔고 미국 전역뿐 아니라 캐나다와 전세계로 확산됐다. 미국 전역 520여 병원과 클리닉에 MBSR 프로그램이 도입돼있다. 또한 전세계 250개의 MBSR 연구소가 있다.

MBSR은 법의 진정한 표현이고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지향하는 형태다. 때문에 명상수행에 경험이 없거나, 깊은 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불보살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MBSR의 정수를 가르칠 수 없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원래 불교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MBSR은 불교를 포함한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는다. 과학적이면서도 종교 및 영성 전통에 대해 열려있다. 불교가 마음챙김을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종교 및 영성 전통에도 마음챙김과 유사한 보편적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MBSR은 초 종교적이며 어떤 이념을 주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저항이나 어려움없이 MBSR을 통해 건강 및 행복에 대한 유익함을 배울 수 있다. MBSR에는 다르마라는 보편적 법칙과 과학이라는 두 가지 다른 전통이 녹아있다. 즉 영성 전통과 현대과학을 지혜롭게 통합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완화하고 개인과 사회의 성장 · 발전 · 변화를 지향한다. 이런 초 종교적이고 과학적이고 일상성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MBSR은 서구의 주류사회에서 폭 넓은 인정을 받고 있다.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는 의료의 과정을 닮은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특별히 불교적인 것은 없다. 첫째는 고통이 있고 실재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그것을 진단이라고 부를 것이다. 고통은 자신의 무명(無明)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두 번째인 집제(集諦)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통, 질병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다. 자기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본성이 아닌 어떤 것 과 나를 동일시 해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약, 질병치료가 가능한가를 보는 것이다. 치유와 해탈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통을 여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해 대한 처방은 그 고통을 성찰하는 것이다. 고통을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지 실상을 바로 보면 치유는 가능하다.

사성제의 네 번째인 도제(道諦)는 의사들이 치료의 계획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처방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팔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팔정도는 마음챙김에서 비롯되며 각각의 요소는 서로 연결돼 있다. 마음챙김과 자각을 해야 바른말[正語]과 바른노력[正精進]을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의 삶에서 현재에 온전히 머물지 않고, 마음챙김을 하지 않고서는 바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내안에 이미 근본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학술적 · 아비달마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썼다. 왜냐하면 사성제, 팔정도, 칠각지, 5가지 장애 등을 거론할 때 미국에서는 아무도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마음챙김수행을 할 때 삼매(사마띠) 또는 집중을 계발하지 않고서는 마음챙김을 계발할 수 없다. 마음챙김을 계발하지 않고서는 자애를 계발할 수 없다.

부처님은 수행을 호흡에서 출발
MBSR이 신경 · 뇌구조 바꿔
깨달음에 대한 욕망 가장 큰 장애

우리의 지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마음속에서 인지적으로 색, 형상을 만들면 그곳에 형상이 있다. 마음 속에 인지적으로 공(空)을 만들면 마음속에 공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름과 형상을 초월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 됨(humanbeing)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영역에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따로 획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수년간 학교에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능숙해진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자각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을까. 자각은 지성의 또 다른 측면이고 우리의 인간됨에 대한 기쁨이다. 우리가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명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속에 깊이 현존해 있는 자각이라는 기능을 놓치고 말 것이다.

불교라는 것도 매우 보편적이다. 불교라는 이름과 그 형상을 넘어서면 그 속에 아름다움이 깃들여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이름과 형상을 통해 공덕을 쌓아왔지만 불교라는 이름에 갇혀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3000명 청중들 앞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께 "불법(佛法)과 보편적 진리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다. 달라이라마는 "No(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자각을 갖고 있다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루어야 할 것이 없다'를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이루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자각에 구름과 안개가 끼고 가려진 것일 뿐이다. 보통 일상의 삶에서 자각은 원인과 조건에 대한 인지적 자각이다. 예를 들어 차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면 차에 치어 죽게될 것이라는 식으로 자각한다. 그런데 마음챙김은 순수한 자각이다. 주의를 기울여 순수한 자각을 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매우 단순한 수행이지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다 저기로 가기 때문이다. 마음은 결코 현재 순간에 머문 적이 없다.

재미삼아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5분정도만 주의를 기울여보라. 대부분 마음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또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다. 그러는 와중에 미래에 있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지난 일을 탓한다.

우리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펼쳐져 있다. 만일 여러분이 미래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원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바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 다음 순간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언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MBSR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굉장한 고통을 갖고 있다. 처음에 그들은 명상을 원하지도 않고 철학에 관심도 없다. 불교, 사성제와 깨달음에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매우 순수하다. 그들은 깨달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저 개념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깨달음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곧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바깥에서 끊임없이 찾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챙김 수행시 비판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수행을 시작할 때 호흡에서 출발했다. 호흡이 길고 짧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우리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에 의해 교란되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MBSR참여자들은 암, 만성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의식을 전환한다면 만성통증과 암조차도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조차 스승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안의 순수한 자각을 만나기 위해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나'와 동일시 하지 않기

8주간 MBSR 수행을 통해 사람들은 매우 깊어진다. 3~4주 후 쯤부터는 침묵을 하게 되며 점점 깊어져 간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작은 움직임만 하며 어떻게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지를 배운다. 그리고 자각의 영역 속에 머무는 것을 배운다.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운다. 번뇌에 의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는 것을 배우며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동일 시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 자신의 고통이나 불안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설령 그들이 심각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초반부터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과학 논문도 발표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은 MBSR 연구를 심화시켰고 스님들을 모시고 뇌를 스캔하는 연구를 했다. 이를 통해 MBSR이 신경구조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뇌의 중심에는 초기화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 MBSR 훈련 이후에는 이런 서사적인 구조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서 뇌 옆에 경험적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이곳에는 이야기가 없다. 그저 호흡을 경험한다. 몸의 감각과 청각,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은 8주 만에 일어나는 변화다. 뇌 구조라는 것 자체가 반복훈련과 경험을 통해 실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불교적인 틀로는 진리를 만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법(法)과 명상적 정통, 경험적 과학의 탐구가 하나로 통합된 MBSR을 통해 치유를 하고 변화를 하게 된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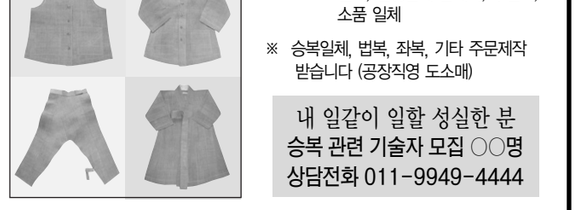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현우경' 이야기 (47)

루타와 아루타 형제

아루타 등에 업힌 토끼는 황금으로…

바라나시에 큰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어느날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그에게는 루타와 아루타라는 두 형제가 있었다. 두 형제를 남겨두고 죽어가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희 형제는 서로 위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부디 따로 살지 말라,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 남들이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으로 화목하여 살림에 힘쓰면 재산이 날로 늘어갈 것이다"

형 루타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동생 내외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자 동생의 마음은 달라졌다. 아내는 형님네와 사는 것이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 아루타를 설득했다.

"형님네와 같이 사니 손님이나 친척이 와도 마음대로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각각 갈라서 산다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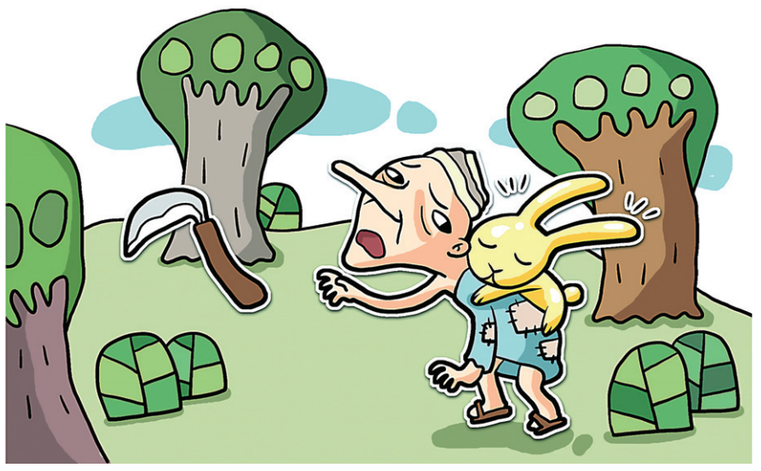
형 루타는 완고히 반대를 했지만 결국 살림을 따로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아루타는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여 가난뱅이가 되었다.

결국 기댈 곳이 없자 다시 형을 찾아갔다. 형은 동생을 불쌍히 여겨 십만 냥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장사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고 손에 쥐고 있던 10만 냥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다시 형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는 아버지의 유훈을 어기고 집을 나가더니 또 이렇게 돈을 빌리러 왔느냐?"

"이번 한번만 봐준다면 다시는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긴 형은 마지막이라며 60만 냥을 빌려 주었다. 동생 부부는 형의 충고를 거울 삼아 열심히 살았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 하지만 형의 사정은 달랐다. 큰 사기를 당했고 하는 장사마다 망해버렸다. 형은 결국



삽화 · 강병호

동생을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내 거절당했다.

"형님은 가난을 모를 줄 알았는데 어째서 내게 와 돈을 구합니까? 저에게는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 너무 괘씸했다. 믿었던 동생이 이렇게 나오자 세상만사가 모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정진해 프라데카 부처님이 되었다. 그렇게 부처님이 된 루타는 성에 들어가 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네에 기근이 들었고 모두가 아사 직전에 다달았다.

프라데카 부처님 역시 더 이상 걸식을 하기 힘들어졌다. 여기저기 떠돌았지만 바루에는 누구하나 음식을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프라데카 부처는 동생 아루타와 마주치게 된다. 그의 가슴에는 죽 한 그릇이 안겨져 있었다. 아루타는 형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다. 그리고는 아루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죽을 발우에 붓는 것이 아닌가? 프라데카 부처님은 물었다.

"이 기근에 어찌 나에게 귀한 것을 보시하는 것이요?"

"저에게는 형님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느날 참회를 하고 보니 형님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형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프라데카 부처는 그 고마움에 이렇게 발원했다. "일체 중생들은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합니다. 세상마다 재물이 모자람이 없이 무엇이나 가지고 싶으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번뇌가 다하고 신통변화를 얻게 해주겠소"

그러고는 한달 여 시간이 지나갔다. 동생 아루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토끼를 보게 됐다. 가지고 있던 낫을 토끼에게 던지자 토끼가 등에 올라타고 만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토끼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토끼가 아루타의 목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토끼는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이 소문은 차츰 퍼져, 왕까지 알게 되었다. 왕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죽은 토끼가 아닌가?

"너는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진실로 금이라고 봅니다"

아루타는 목에 달린 것의 일부를 떼어 왕에게 바치니 찬란한 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인으로 이것을 얻었는가?"

"이것은 분명히 프라데카 부처에게 죽을 보시한 까닭으로 생긴 기적일 것입니다"

"너는 훌륭한 공덕을 쌓아 그런 뛰어난 분을 만난 것이다. 너에게 벼슬을 주어 대신으로 삼을 것이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
• 규격 : 8.9cm×9.5cm
• 매수 : 16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의 주장자 그 자체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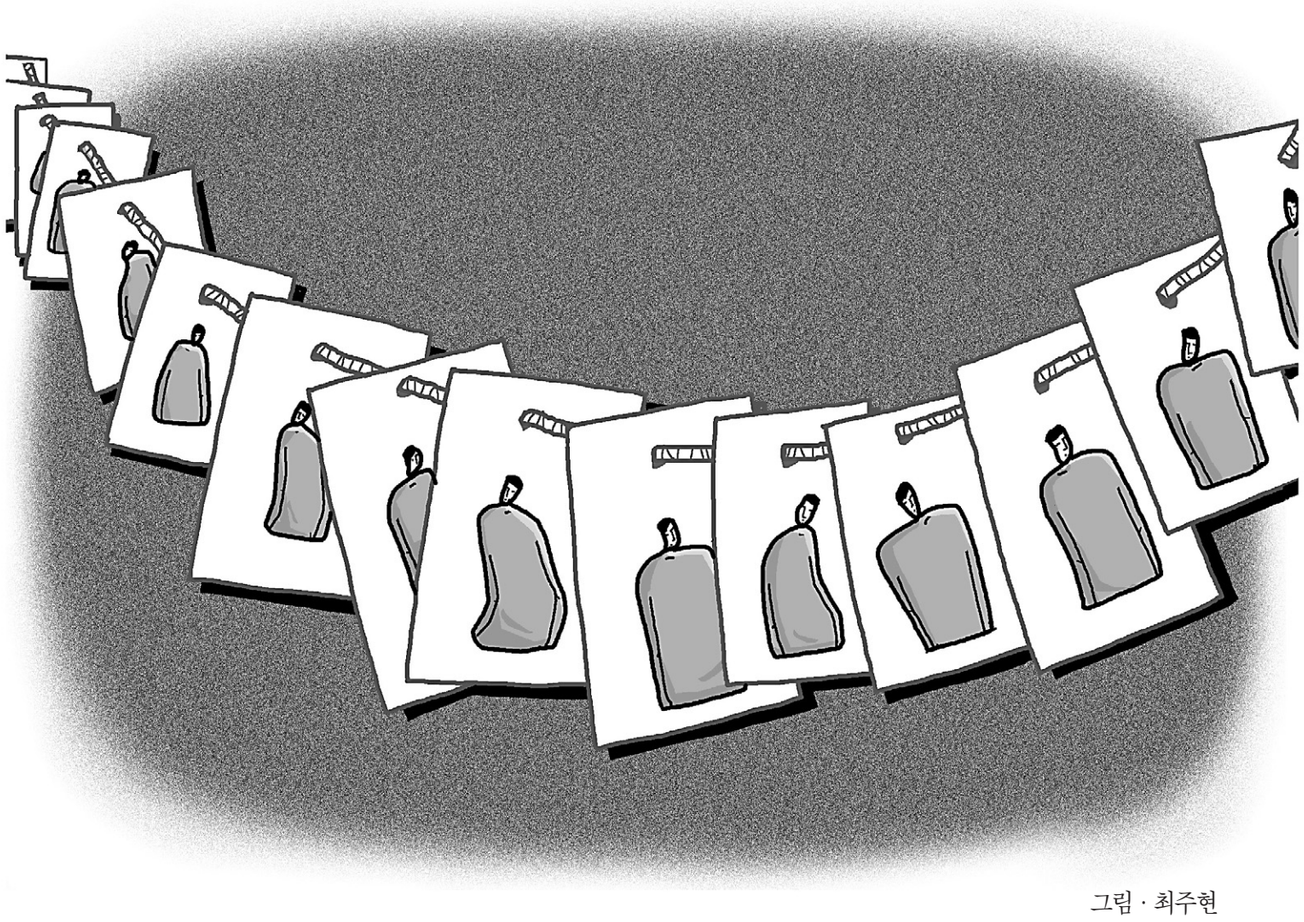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믿음이 중요한데…

문) 마음공부를 하는 데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공부한다 하면서도 막상 어떤 큰일에 부닥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지 겁부터 먹게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러지 않겠지요?

답) 여러분이 좀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걸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약초를 캐는 어느 착한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약초를 캐면서도 항상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한 채, 나오면 며칠이 걸리니까,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다가 고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주 몹시 다쳤습니다. 산골에서 다쳐 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대선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너 낳기 이전 너의 아비는 지금 네가 다친 꼴을 보고 울고 있구나. 아비는 울고 있고 아들은 아파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울다가 말고 그렇게 여쭈니 "바로 네가 생기기 이전 너는 지금 울고 있는 그 마음이니라. 네 몸이 아파하면 네 마음이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네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의욕이 없어지느니라. 네가 의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아비도 의욕을 잃지 않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비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너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간 곳이 없어졌으니, 그러자마자 다리가 일어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다니든 약초를 캐든, 어떠한 짐승이 있든, 불쌍한 걸 보든 항상 이 창문을 통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똑똑히 보시고 이것 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눈은 창문에 지나질 않아요. 눈이 아니에요. 창문에 지나지 않고 그 창문 속에는 진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은 자기의 눈이 눈이 아니고 창틀이고, 그 창틀 속에는 바로 아비의 눈이 시퍼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랴사랴 이 약초를 또 캐러 가다 보니까 덫에, 이렇게 깊이 흙을 파고선 그 덫을 놓지 않습니까? 고만 그 풀을 딛고 가다가 고만 산돼지가 그 덫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 빠졌겠죠? 빠졌는데 이 나무꾼이 가다 하는 소리가 그걸 보고 "아버지!" 하고, 대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런 겁니다. "저 돼지가 덫에 걸려서 저렇게…. 저 생명도 생명이거늘 어찌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모르지마는."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려 주려무나."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그 떨어진 나뭇가지 아주 기다란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기에서 그만 그걸 밟고 나왔습니다.

예전의 산돼지는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산돼지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너를 살려줬거늘 앞으로 네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돼지는 산에서 으뜸가는 맹수가 됐습니다. 그 사자라는 맹수가 됐는데도 글쎄, 돼지는 그때의 그 나무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몸, 모습을 바꿔서 맹수가 됐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그 나무꾼에게 바쳤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냐. 그 나무꾼의 못 잊은 그 마음과 이 맹수의 마음은 항시 둘이 아니어서 고만 이 모습도 벗으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대인이 됐다는 얘깁니다. 대인이 돼서 참 어진 정승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딜 다치거나,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다면 아예, 참 살 의욕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참 내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부처님 법인가?" 이러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보석이나 뭐나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야, 몸뚱이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그 마음은 얼마나 의욕이 없어지고 참 그냥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러거든요. 아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나.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면은 서로 같이 아파 주고 울면 같이 울어 주고 의욕이 없어하면 같이 의욕이 없어하는데도 불구해 놓고 자기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못 믿어서 저 먼 데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은 그냥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시오. 이 몸 아픈 것 좀 낫게 해 주시오' 하고 빌곤 합니다. '우리 남편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해 주시오. 자식 잘되게 해 주시오. 나 몸 좀 안 아프게 해 주시오.' 하고선 빌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나에게 내 자부처가, 자신(自神)이 계신데도 불구해 놓고, 일체 신이, 바로 한마음에 계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못 믿고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 몸과 내 국가, 가정 이런 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 나가면서 어떻게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말입니다. 우리 끝간 데 없이 수억겁 광년이라 할지라도 일 초에 달한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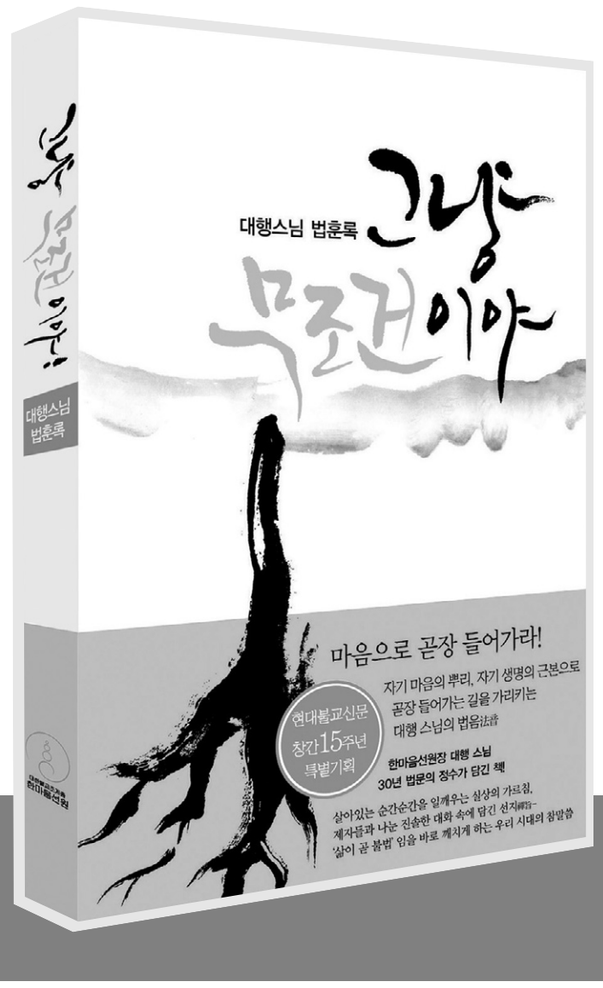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의 도리를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자기의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시면서 거기다가 일체를 다, 들이고 내는 건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 빗장을 쥐지 않는다면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공불 잘하고, 또 짧게 말한다고 해서 공불 못하는 게 아니니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조그만 것, 가정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실험을 통해서, 가고 오면서도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실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부적을 받아오긴 했는데

문) 요즘 하도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얼마 전에 점을 보러 갔다가 부적을 몇 개 받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받아오긴 했는데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공부한다 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는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하게 일침을 좀 가해 주십시오.

답) 우리가 수없는 억겁을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내 몸의 모습을 바꿔 가면서 얼마나 아팠던가. 얼마나 쓰렸던가. 얼마나 고에 휘달렸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습을 놓지 못하고, 그 노비 문서를 놓지 못하고, 그 종문서를 쥐고 다니는 이러한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나는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인공에 모든 것 놓아야

☞ 29면에서 계속

여러분도 나처럼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예전 부처님들도, 역대 조사들도 다 눈 달리고 코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이 부처 저 부처, 용왕이 날 돌봐 준다 해서 방생한다고 고기 잡으러 가 가지고들 다니는 거. 밥 내려 가지고 물에 넣는 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떳떳하고 광대무변한 한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노예로서 거지, 또는 귀신, 이런 짓들만 하고 다니니 이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물건을 쓸 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보배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건 허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보배를 가지고도 당신네들이 쓰지 못하는 관계상, 그 보물이 쓸모없이 됐단 말입니다, 모두.

우리가 사는 게 모두 힘이 있으면 빨아당겨서 자기 거를 만들고 힘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우주의 섭류도 역시, 힘이 있으면 탁 쳐선 그냥 버리거나 쫙 빨아들여서 자기 걸 만들거나,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많으니까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도 다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마음들을 그렇게 쓰니 어찌 뺏기지 않고 살겠습니까. 무당한테 마음을 뺏기고 살지 않나, 부적한테 뺏기고 살질 않나, 장승한테 뺏기고 살질 않나. 남이 용왕이 있다니까 용왕한테 뺏기고 살질 않나. 이름에게, 전부 이름을 해 놓고는 그 이름한테 전부 뺏기고 살아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 정신 내가 가지고 사는 거지, 왜 자꾸 정신들을 뺏기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부적을 해다가 베개에다 넣고, 일곱 장을 사야 그 달에 뭐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선 그걸 다 사다가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선원엘 오게 됐답니다. 그랬는데 며칠 다니면서 설법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밤 꿈에 스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저기 감춰 놓은 거 좀 내놔 봐라." 그러더랍니다. "감춰 놓은 게 없습니다." 하니까 "이것도 없어? 여기에 매달려서 너희가 잘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베개에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서 다 몰아서 놓는데 벌써 그냥 확 불이 붙어 가지곤 그냥 흔적도 없더랍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거 해로울 꿈 아닙니까?" "아휴, 저러니 할 수 없지. 마음 쓰는 게 저렇게 가난하니 어찌 살기가 가난치 않을까."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 놓고선 또 '에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요, 저것이 바로 나인데.' 하고선 잘 다독거려서 "그게 아니라 그릇이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좋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살면 편안치 않아?" 이렇게 처음부터 달래 가지고 나가야지 별수 없거든요, 그놈의 거, 그 습을 다 떼어 버리려면.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체험을 해 보세요. 여직껏 나를 끌고 다니는 거, 오늘도 부지런히 육신을 놀려서 밥해 먹이고, 빨래하게 하고, 똥 눌 사람은 똥 누게 하고, 걸음을 걷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성품에 의해서. 따라서 환경을 자기가 조성해 나가고 화합을 시키고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여러분이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는 영 안되니, 이놈의 걸 노릇을 어떡하나 하고 안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는 거고. 내가 새 달에 무당이 나쁘게 된다니까는 그냥 나쁜 줄 알고 쩔쩔 매는데, 내 주인, 이 주장자의 주인이 없으니깐 그런 소리를 듣고 말리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한테 말리는 거죠. 내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사 갈 때 되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떡 해 먹고 싶으면 떡 해 먹고 이러는 거지 아이, 누구에 의해서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살기가 고달픈데 아니,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때를 바랍니까.

일심에서 일체 만법이 나고, 일체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서 방황하니까 모든 문제가 틀어지는 겁니다. '응,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돌아치니까 너 좀 돌아봐라.' 그러지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직껏 자기가 자기를 끌고 나오는 자기 주인의 그 공도 모르니 어떡합니까, 그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의 주장자, 자기의 주인공, 그 자체를 철저하게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하세요.

자식만큼은 뜻대로 안됩니다

문)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식만큼은 참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가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도, 어떠한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애들 낳고 잘 살았는데 여잘 얻어 가지고는 나가서 영 돌아볼 쳴 안 합니다. 그래서 돈도 다 까불리지 아주 그냥 매기단을 칩니다. 그래서 "얘야, 주인공에 맡겨 버리고 가만 둬라. 저 하고 싶은 대로 이 줄을 늦춰 줘라, 늦춰 줘. 가는 대로 늦춰 줘라. 이 마음과 마음의 줄은 남편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거하고 줄이 있다. 이 줄을 그냥 늦춰 줘라. 그러고 자비로서 그냥 놔둬라. 주인공에 맡기고 놔둬, 그냥."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줄은 쥐고 있으니까, 근본에 같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싫증이 났어요, 고만. 고생만 되고. 이게 그냥 버린 것도 아깝고 싫증이 나 버리니까 슬슬 그 줄이 인제 그냥 늦춰진단 말입니다, 돌아오느라고.

그러니깐 돌아오는 대로 줄이 느슨하게 되니깐 그냥 고것만 느슨한 대로만 잡아당기는 거죠. 아, 그러니깐 집으로 쏙 들어왔는데 바짝 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너무도 사랑하거든요. 가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이렇더라. 세상에,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더라. 세상에 다니면서 봐도 너 같은 아내가 없고, 너같이 예쁜 아내가 없고, 마음씨 그렇게 착한 아내가 없더라." 이러고서는 그냥 전자에 없던 애정도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주인공 줄에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 착해지게 돼요. 그러고 사랑을 받게 되고요. 아무리 아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도 전자의 인연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인연줄을 녹여 주기 위해서는 그저 줄만 딱 쥐고선 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믿고 놔두면은 그냥 저절로 녹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뛰니까 가 보질 못하는 거죠. 좀 느긋하게 두면 그냥 갔다가 한번 휘 돌아서 '아,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선 아예 그냥 싫증이 난다구요. 그럴 때 줄을 딱 잡아 제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꼭 해 봐야지.' 하고 할 때에 이걸 탁 막으면 그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해 보고 싶은데 해 보질 못하게 딱 쥐고서는 늘어지니깐 그냥 신경질을 내고 그냥 온통 야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탁 던져요.

세 살 먹은 어린애나 네 살 먹은 어린애나, 또는 두 살 먹은 어린애, 한 살 먹은 어린애를 만약에 잘못한다고, 이거 울고 뭐 그런다고 자꾸 때려 보십시오. 그럼 더 웁니다. 그럼 저만 손해죠. 어른만 손해예요. 애가 병나고 그러면 더 손해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뿐이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어린애로 생각하고 그 어린애를 때리면 뭘 하나 했습니다. 때리면 더 울기나 하지. 이걸 잘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그러니까는 아무 데서나 모른다고, 밉다고 또 그러고 아무 데서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고 항상 과거의 자기가 어린애로 돼 있었을 때에 자기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도량이 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뜻을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라는 거지,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만날 물질로만, 색으로만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그 부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뭐, 이 스님은 만날 무슨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한다 하더라도, 천 번을 하더라도 잘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런다면 거기에서 바로, 그 진흙, 더러운 그 물에서 아주 예쁜 연꽃이라는 그 향기 내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열쇠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온 누리에 자기가, 참자기가 꽉 차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사리가 온 누리 우주에 꽉 찰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은 왜 이프셨던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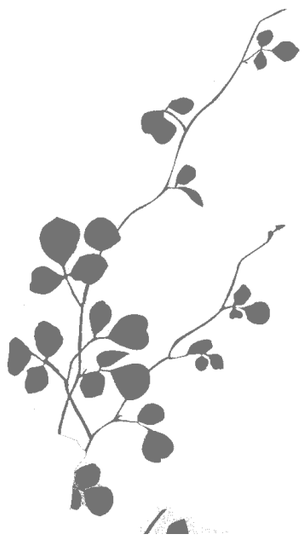
문) 우매한 질문이겠지만, 저희 같은 중생들이야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지만 아니,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왜 아프셨던 것인지요.

답) 부처님께서는 잠시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육신은 바로 내 주인의 거고 내 주인의 시자고, 내 주인으로 하여금 형성됐으니까 주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이렇게 변질되고 바숴지고 이러는 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잠깐씩 이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건 방편으로 쓰신 거지 자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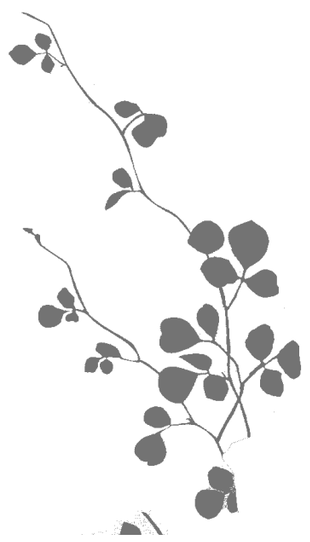
여러분도 몇 년씩 아프다가 그 고통을 받고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평화롭고 티끌 하나 묻지 않게, 발랄하고 생동력 있게, 삶을 보람 있게 그렇게 살면서도 후떡 옷 벗어 버리려면 잠시 잠깐 좀, 그것도 아프지 않게 아팠더라면 상대방들도 고통을 받게 하지 않고 나도 고통받지 않고, 그건 양념으로, 이렇게 진리가 이러하다 하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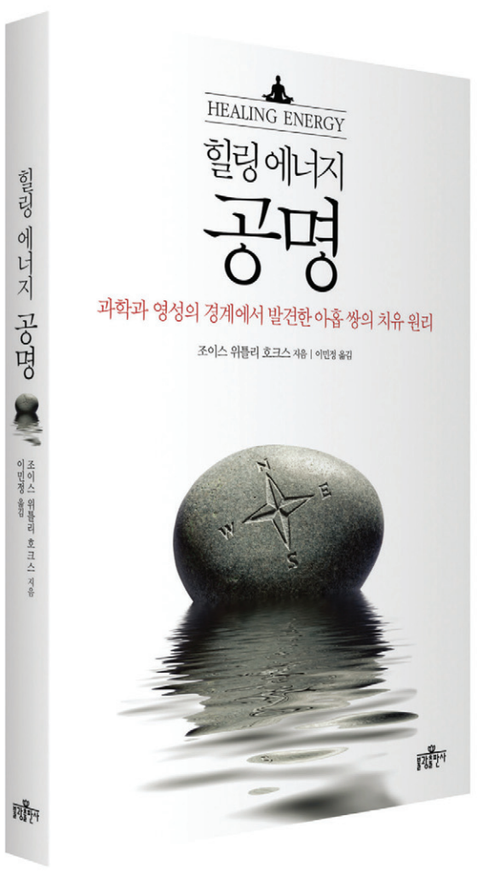
부처님 법은 그대로 우리가 아픈 것도 법 안 아픈 것도 법, 죽는 것도 법 사는 것도 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에서 깊숙하게 자기 주관을 세워서 지혜가 넓은 사람들은 좀 유유하게 살아나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항상 이렇게 밟히고 또는 거절당하고 또 화목지 못하게 되고 또 상대방하고도 내가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합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의해서 자꾸 싸움이 생기고 가정 파탄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도 바로 자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공부라기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묘한 법이 나와서 내가 움죽거리고 있는지 그거를 모른다면 내 몸 하나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묘한 법이 나와서 내가 움죽거리고 있는지
그거를 모른다면
내 몸 하나 이끌어가기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치유 원리
그 생명력의 비밀, 공명

HEALING ENERGY

힐링 에너지
공명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지음 / 이민정 옮김
288면 / 15,000원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의 조화와 공명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 원리와 그 적용 사례

과학자이자 전문 치유자인 조이스 호크스 박사는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간의 조화를 통해 두 영역의 에너지가 서로 공명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명상과 실천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강력하고 다양한 수행법과 더불어 현대 의학도 놀란 극적인 실제 치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것이며, 우리가 내면의 공명을 찾아 깨어 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행복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잘 나가는 100대 기업은 다 이걸 한다"

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친구가 되자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 명상 유도 CD(75분) 포함

존 카밧진 지음 / 안희영 옮김
240면 / 15,000원

언론이 주목한 존 카밧진과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우리에게 고통과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한다. -조선일보

한마디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현재에 집중할 때 솟아나는 자각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 수 있다. 또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향신문

인간의 고통은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인데, 마음챙김은 그것을 아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일보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자 세상보기

아름다운 경영권 이양



법현 스님
前 태고종 부원장
열린선원원장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탈리아 속담이다. 순수이성 비판의 독일철학자 칸트(1724~1804)는 벗 니콜라우스와 우정을 잘 가꾸기로 약속하였다. 그의 아들인 니콜라우스 2세가 제자가 되어 배우기 시작하자 칸트는 꿈을 물었다.

책방을 운영하고 싶다 하자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졸업하고 가게를 내자 칸트는 낮은 책 발행세(인세)를 받고 밀어주었다. 살아있을 때부터 유명한 학자인 칸트에게 일류 출판사들에서 계속 제의가 들어왔다. 비싼 인세를 줄테니 판권을 달라하는 것을 마다하고 계속 벗의 아들에게 주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도 처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상대방이 어긴 약속을 기억하고 화가 나며 잃어버린 이익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동지 간에도 다툼이 있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며 부자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이 욕심세상(欲界)의 보기 싫은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의 아픔이다. 많은 기업가들이 불행하게 죽거나 아픈 다툼을 하는 것도 우리네 상처이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시간이나 처지가 달라지면 그것 또한 달라지리라 생각하면 그만일 수도 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에게 임금이 말했다. 연주가 훌륭하니 끝난 뒤에 천금을 선물로 주마고. 악사는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연주했고 아주 훌륭한 음악회가 되었다.

연주를 마치고 악사가 약속대로 천금을 달라고 임금에게 말하자 임금은 나도 너처럼 네 귀를 즐겁게 해 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백유경』에 나온다. 악사도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니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키는 약속이 더 아름답다.

십사왕(十奢王)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네 왕비를 사랑하여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셋째 왕비를 특히 사랑하여 그녀가 낳은 바라타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나머지 왕비의 아들들은 그것을 아버지인 부왕이 결정한 일이므로 편안하게 받아들여 다른 나라로 가서 일없이 살았다.

바라타는 세 형제들을 찾아가 함께 살자고 진심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나머지 왕자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어기는 것은 불효이고 다른 생각이 없으므로 그냥 여기에 살터이니 나라나 잘 다스리라며 따르지 않았다.

어쩔 수없이 바라타는 형제들의 신발이라도 기념으로 달라고 하여 가져왔다. 옥좌 위에 올려놓고 아침저녁으로 형님들처럼 생각하고 절을 하며 열심히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퍼져 감동한 형제들이 돌아왔다.

서로 왕위를 양보하느라 실랑이를 잠깐 하였으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고 속뜻까지 이해한 사이였으므로 좋은 결론이 났다. 제일 맏이가 왕위를 맡기로 한 것이다. 그 나라는 아주 부강하고 평화로웠다는 『잡보장경』의 이야기다.

2003년 구씨네 일가가 형성한 LG그룹에서 분가한 LS그룹은 재미있는 결정을 하였다.LS는 합심해서 경영합리화를 이룩해 전기, 전자, 에너지, 소재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재계 13위 그룹이다. 물론 그들도 구씨네 일족이지만 그룹의 경영권을 첫 회장의 아들딸들에게로 내리는 일반적 관례를 벗어나 4촌 형제에게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그룹의 주식 지분이 4:4:2로 구성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의 지배권 행사가 필수적인 것이리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사례도 많은데 다투지 않고 화합적으로 물려주되 혈통으로만 넘기지 않는 작은 본보기를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10년 만에 4촌 동생에게 물려주었으니 몇 년 뒤에 다음 상대인 4촌 동생에게 넘길지도 관심이다.

그룹 구성원들이 부처님께서 밧지국과 관련하여 설법하신 스러지지 않는 일곱 가지(七不衰法)의 으뜸이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에 대해 의논하는 것임을 새겨서 자기들도 좋고 종업원들과 고객들인 국민들도 좋게 하였으면 한다.

조금 더 바라기는 가까운 친족이 아닌 일반 임원이나 정통 경영자 출신에게 사업 성공 외에 다른 조건 없이 물려주는 기업도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사부대중 칼럼

'짝퉁 불사'의 전환점을 촉구한다



윤범모
미술평론가
가천대 교수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도처의 사찰에서는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매우 반가운 소리였다(고 믿고 싶다). 과연 그랬던가. 무엇보다 우리는 반성의 시간부터 챙기게 한다. 불사, 과연 진정한 불사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불사라는 이름 아래 가람을 새롭게 일구는 공사 현장을 줄기차게 보아왔다. 한국 사찰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망치소리는 중단을 몰랐다. 정말 눈부신 발전이었다(라고 믿고 싶다.)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여기서 우리는 불사의 현장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한국 불교의 가람 조성은 시대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불사였는가.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적 대답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과거지향적 불사였기 때문이다. 21세기 불사이면서 모델은 신라시대 혹은 조선시대로 되돌아 가 흉내내기에 급급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20세기 가람 조형물은 짝퉁의 천지였다. 왜 과거의 복제로 만족했을까. 어느 시대이건 가람은 당대 최고의 미술작품을 지향했다. 예술작품이라는 단어는 창의성을 동반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독창성이 결여된 작품은 진정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토함산 석굴암 역시 당대 최고의 실험 미술작품이었다. 창작의 모범이었다는 의미이다. 시대정신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만이 역사에 남는다.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반듯이 돌아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람, 시대적 소명이지 않을 수 없다.

강화도 정족산 전등사는 최근 무설전을 신축하면서 새로운 불사의 범본을 보여 주목 받고 있다. 전통사찰이라는 가람의 전체적 분위기는 살리면서 비탈진 언덕의 지하에 커다란 공간을 만들었다.

외형적으로는 건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되는 다목적 공간을 신축했다. 무설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전등사의 장윤 회주스님 이하 사부대중은 새로운 불사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에서 재직중인 전문가를 초청했다.

하여 한국 가람 불사의 현장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역 미술가 중심의 '무설전 창작단'을 구성했다. 창작단에 동참한 작가는 불상의 김영원 홍대 교수, 불화의 오원배 동국대 교수, 공간디자인의 이정교 홍대 교수, 그리고 기획 및 출판 담당으로 필자가 의기투합했다.

무설전 신축에 참여하면서 창작단이 고려한 사항은 이런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목적 공간을 지향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한마디로 무설전은 법당이면서 미술관 혹은 교실이면서 예식장을 지향했다.

무설전에서 법회와 같은 불교 행사 이외 대중 강연, 음악회, 시낭송회 같은 행사 개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출입구 부분의 서운 갤러리는 현대미술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어 글자 그대로 예술공간이기도 하다. 무설전은 청소년을 비롯 불자 이외의 일반인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석사모니 주불을 비롯 4대 협시보살과 1천 원불은 모든 색을 수용하는 백색 도료로 마감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이들 불상은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신체 비례와 친근미를 추구했다. 예배용으로서의 존엄과 더불어 조형성을 가미하여 우리 시대의 불상으로 재탄생한 '작품'인 것이다.

후불 벽화는 서구의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된 바, 이같은 사례는 국내 초유의 일로 기록된다. 공간 디자인은 무설전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꼽힐 부분이다. 천정의 연등 디자인은 저작권을 앞세울 정도로 제작된 작품이다. 무설전은 출입구로부터 갤러리 공간 그리고 신행공간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한 21세기형 가람 불사임을 특기하게 한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아니 전환점을 반듯이 돌아서야 한다. 한국 사찰의 불사 현장에서 꼭 거론되어야 할 화두이다. 시대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불사는 이제 부끄러움의 덩어리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社說

한국불교, 국민의 충고 귀담아 듣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임을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민단체(34.3%)를 가장 신뢰했고, 종교 단체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5.4%에 불과했다. 단순 수치로만 5배의 차이다.

이 같이 국민들이 종교단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재정 문제와 도덕성 실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올 한해 불교계는 백양사 승풍 실추 사건으로, 개신교계는 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반대로 교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카톨릭은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실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에서 불교는 역시 지난해 23.7%에서 19.1%로 하락했고, 카톨릭은 17.6%에서 24.1%로 상승해 불교를 제쳤다.

그래도 20, 30대와 어려운 이웃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로 평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국불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들이 종교에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도덕성'이었다. 청렴성과 공정성도 높게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킬 때 국민들은 종교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큰 내홍을 겪은 조계종이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국민들의 충고를 되새기길 바란다.

동산반야회 30년 성장의 교훈

동산반야회가 지난 11월 1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세 번 변한다는 세월 동안 동산반야회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재가불교운동의 일환으로 고(故) 김재일 법사가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1982년에 32명의 청년 불자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동산반야회는 30년 동안 불교기초교리강좌 운영 등으로 교계 신행문화를 주도해왔다.

특히 동산반야회는 불교 최초의 2년 교육과정인 '동산불교대학', 3년 과정의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동산한글불교의식교육원' 등 세분화된 교육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불교계 교육환경이 다양, 전문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28년 간 약 1만명에 가까운 불교인재들이 동산반야회와 인연을 맺고 불교 교리 공부에 열중했다. 특히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등 이름만 대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유명인사들도 상당수 문을 노크했을 정도다.

하지만 동산반야회의 업적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포교 불사를 위해서는 교리와 신행이 적절히 어우러진 재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98년 제 6차 염불만일회를 결성해 실천불교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산반야회는 그동안 청소년 독서실, 세계난민 구호를 위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등을 운영하며 소외된 국내외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려 나눔의 보시행을 펼쳤다.

또한 인도 석가족 개종사업, 한일찬불가 교류, 한국불교교육단체협의회 결성, 붓다클럽 창립, 전국 호텔 객실에 불교경전 비치하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불법홍포에 앞장섰다.

명실공히 재가불자교육의 1번지로 학고히 자리매김한 동산반야회.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을 향해 비상해 주길 바란다.

동산반야회의 성장은 곧 한국불교 재가자들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잇몸질환 예방
▶ 치주질환 예방
▶ 충치예방
▶ 치태제거
▶ 구취 제거
▶ 시린 이 개선
▶ 미백효과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서화, 산수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 골동품

"제1회 전사련 200개 회원종단 대표자 출품 작품전시회"

200개 회원종단 가입기념

- **일시 :** 2012년 12월 2일~10일까지(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장소 :** 두산위브파빌리온 회의실(종로구 수송동 58번지)
- **전화 :** 02)2198-5022~4/ FAX:02)2198-5025/HP:010-4167-3666



△전사련회장 무산스님출품(고려수월관음도불화 120cm×300cm)



법현스님 도자기출품



보각스님 도자기출품



보각스님 도자기출품



보각스님 도자기출품



재단법인달마선원 청광이사장 독수리 민화작품 출품



◁성철스님 포대화상 공예품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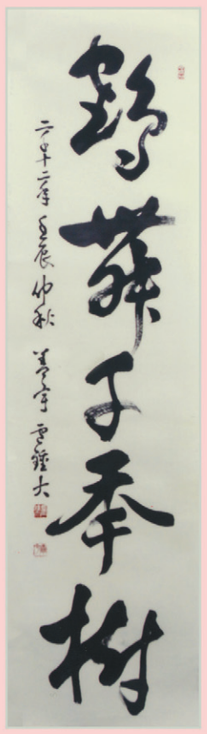
이풍호 사진작가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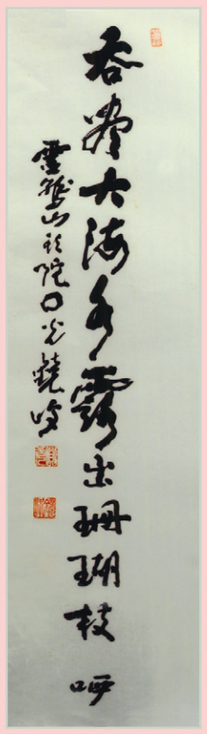
◁천종사 송창일사장 청동 화로 출품



구일화백 수묵화 출품



선우 서예 출품



경봉스님 작품 출품



동산스님 작품 출품





이풍호 사진작가 출품



도광법사 도자기출품

▷무상스님 행운달마도 출품



www.kntga.or.kr 사단법인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전/국/주/문/전/화 02)2198-5022~4